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 9 권 제 3 호(통권 48 호) 1987. 6.

특집 第5次 高等學校 敎育課程의 開發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개발

제 9 권 제 3 호(통권 48호)

1987. 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 9 권 제 3 호
(통권 48 호)

卷頭言 教育의 祕訣 ……郭 柄 善…… 3

論 壇 學校施設의 現代化……金 永 哲…… 5
效果的인 學校論……金 炳 聲……12
民主市民 教育과 經濟教育 ……崔 秉 模……18

特 輯 第5次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開發

高等學校 教育課程 改正에서 풀어야 할 前提들……郭 柄 善……24

一般系 高等學校 教育課程 總論案의 改正 ……許 敬 哲……29

・國民倫理科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文 龍 鱗……34
・國語科・漢文科 教育課程의 基本方向 ……盧 命 完……35
・數學科 教育課程의 基本方向 ……全 平 國……36
・社會科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崔 錫 珍……37
・科學科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權 致 純……38
・音樂科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黃 炳 勳……39
・體育科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金 用 煥……40
・美術科 教育課程의 基本方向 ……尹 亮 熙……41
・外國語科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崔 震 晃……42
・實業・家政科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尹 仁 卿……43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改善方向……張 錫 敏……44

・農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郭 相 萬……47

題字 孫 在 馨

・工業系 高等學校 敎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金 善 泰……50
・商業系 敎育의 性格과 敎育課程의 基本方向 ……李 南 昊……52
・高等技術學校 敎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金 泳 柱……56
・水產・海運系 高等學校 敎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呂 均 會……58
・家事 實業系 高等學校 敎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姜 大 求……60
特定目的 高等學校 敎育課程 開發의 原則과 限界……韓 鍾 河……62
・外國語學校 敎育課程의 基本方向 ……崔 震 晃……67
・科學高等學校의 敎育課程 構想의 基本方向……韓 鍾 河……69
・藝術高等學校 敎育課程의 基本方向 ……尹 亮 熙……71

研究報告 韓國 外國語敎育의 課題와 發展方案……崔 尙 根……73
敎育放送 活性化方案 硏究 ……金 承 華……78
敎授-學習資料 活用實態 및 敎授-學習方法에 관한 人類學的
國際比較硏究 ……李 容 淑……85

現場敎育 進路意識提高를 위한 體系的 指導方案……李 完 炯……91

敎育放送 日本의 放送敎育……宋 寅 德……97

敎育情報工學 LoGo의 敎育的 效果와 實施上의 問題點……李 相 珞… 105

海外敎育動向 未來 컴퓨터의 動向 ……李 萬 熙… 111

現場敎育相談 學習問題와 授業目標의 區別에 대하여 ……33

院內動靜 ……117

◘ 본원과 AIBD, 독일 Prix Jeunesse Int'l이 공동 주최한
어린이를 위한 TV 프로그램 세미나(본원 제1회의실)

◘ 벨지움 하원의장 Jean Defraigne씨 일행 내원 (본원 도서실)

卷頭言

教育의 祕訣

郭 柄 善
(教育課程研究部長・哲博)

최근 한국 교육 개발원은 교육 평가 분야에서 국제적 석학인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레위 (A. Lewy) 교수를 초청하여 이스라엘 교육 제도, 교육 과정 및 평가에 관한 몇 차례 강연회를 베풀었다.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이 분의 행적을 비교적 가까이 알 수 있게 된 필자로서는 이 분에게서 철저한 학자의 한 면모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언어와 습관이 달라 한국에서의 생활에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 개발원에 강의하러 나올 때, 우리가 자동차로 모시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육순의 노령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의 숙소인 동숭동 국제 회관에서 양재역까지 전철을 타고 오신다.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는 배려와 남으로부터 지나친 호의는 사양하겠다는 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관되게 엿보였다.

이 분이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한국에 대한 탐구 활동도 대단히 왕성하였다. 고궁, 민속촌, 올림픽 스타디움, 미술관, 책방, 극장을 두루 다니면서 한국의 예술, 문화, 전통 등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러한 가운데 이 분이 필자에게 한 가지를 진지하게 묻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국 경제 발전의 비결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으므로 만족할 만한 답을 할 수는 없었으나 필자 나름대로 그것은 아마도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한 덕분인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총명함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답은 서툴렀어도 그런 질문을 받는 기분은 유쾌하였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 성장을 그 노 교육학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이 노 교수 경우만이 아니더라도 경제에 관한 한 우리는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당연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한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필자의 좁은 경험 탓이긴 하겠지만 아직 한국 교육의 비결이 무엇이냐와 같은 즐거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수 년전에 한국을 다녀간 외국의 한 교육자가 공항에서 남겨 놓은 메모가 필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그 메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당신 나라 교육의 질 향상은 학급 규모를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아마도 도시 학교의 과밀 학급 현실을 보고 동정 어린 느낌을 가지게 된 듯 싶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 요건부터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온갖 교육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헛됨을 크게 암시하였다.

경제적 기적을 구가하는 한편에서 미래의 주인공들의 배움터인 교실 상황은 낙후할 대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국적 아이로니이다. 정책 당국자들이 경제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육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경제하는 사람들이 교육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가.

최근 학력에 관한 한 국제 비교 연구에서 우리 나라 고등 학생들의 과학 실력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국민 학교에서는 최상위권이었다가 중학교에서는 중위권으로 밀려나면서 고등 학교에서는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물론, 이 연구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나라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시사를 던지는 것 같다. 그것은 마치 주입식 일제 학습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것 같다. 특별히 고등 학교의 경우 우리 나라처럼 과학 과목을 인문·사회 과정이거나 자연 과정이거나 간에 구별 없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과목별로 골고루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나라도 없고, 또 밤 9시나 10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과학 실력에서 그렇게 하위권으로 밀려나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번 과학 학력 국제 비교에서 최상위를 차지한 영국의 경우를 볼 때 우리와 대조적인 점이 눈길을 끈다. 우선 영국의 학교에서는 시험 치는 방식이 완연히 다르다. 대부분 논문식으로 출제된다.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마다 학생이 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답안지 위에 다 쏟아 놓도록 한다. 우리의 경우 논문식 출제에서 채점의 객관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만약 답안지 위에 학생 하나 하나가 생각하는 바를 모두 쏟아 놓으라고 하면, 탁월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한 두 점의 점수가 아닌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학과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점수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사고를 전개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차 학업에 뜻을 둘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알고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에서 실제로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고등 학력 검사인 지씨이(GCE) 상급 수준에 응시하는 학생은 중등 학교 졸업자의 20% 미만에 속한다. 2~3 개의 시험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도록 되어 있는 지씨이 상급 시험에서는 과목마다 2시간 반~3 시간짜리 시험을 4회에 걸쳐 약 6~7 주 동안에 치르며, 과학 과목인 경우는 실험 설계와 실험실 활동이 중요하게 포함되게 되어 있다. 과학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과학적 실험 과정을 익히지 못한 학생이면 지씨이 상급 과학 과목을 치를 수 없게 되어 있다. 시험 과목으로서 과학 과목은 한 가지 종류만 마련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택한 교재에 따라서 교재별로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을 주관하는 여러 위원회 가운데서 한 곳을 골라 치를 수 있다.

다른 과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 학교에서는 학교 급별 공통 필수 과목이나 교과목별 내용의 수준이 교육 과정이라는 형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과학 과목에 있어서도 우리처럼 고교 인문·사회 과정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학 과목과 자연 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지역 사회 형편, 학교의 성격 등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가 스스로 학과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학생들에게 폭넓은 선택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에 따라서는 과학 과목을 전혀 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어느 과정을 택하든 그 과정에 대한 공부는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역설을 본다. 즉 교과목에 과학 과목을 다 집어넣어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좋은 성과를 못 내는 우리의 경우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입시 경쟁을 벌이지 않는데도 높은 교육의 성취를 내는 영국의 경우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역설을 잘 헤아려 본다면 분명히 거기에서 교육의 한 비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論　　壇 □

學校施設의 現代化

金　永　哲*

Ⅰ. 序

*教育施設*은 *教育理念*에 기초한 *教育目的*과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위한 제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 및 공간의 物理的 環境 내지는 形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學校施設은 學校教育의 목표에 따른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換言하면, 이것은 학교의 기능이 학교 시설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곤란하고, 학교 시설이 학교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교육 시설은 급격히 팽창해 온 교육 인구의 수용에 급급한 나머지 施設의 量的 擴充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 차원에서 落後되어 있는 施設의 改善과 현대화 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다. 즉, 教育施設費는 문교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으나(1986년의 경우, 문교 예산 2조 7,690억원의 19.4%에 해당하는 5,385억원이 *教育施設費*임). 그 내용을 보면 수용 시설 확충을 위한 보통 교실 위주의 학교신축과 보통교실을 증축하거나 노후교실을 개축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學級授業의 필수적인 基本施設이라고 볼 수 있는 보통 교실마저도 부족하여 국민 학교 일부 학년에서는 2部制 授業을 실시하는 학교가 상존하고 있고, 외국 같으면 20~30명선이 공부해야 적당할 20평(66m²)내외의 보통 교실에 60~7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콩나물 교실과 한 교정에 수천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매머드 학교가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학교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教育機能*은 과거와 비교해 볼때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나, 傳統的으로 학교의 주된 기능으로 인식되어 온 *教授-學習機能* 외에 최근에는 地域社會 센터로서의 學校의 役割과 機能이 크게 강조되고 있고, 교육 내용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학생 지도를 위한 새로운 *教授-學習方法*이 연구·개발되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教育工學*을 도입하여 활용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學校施設은 지난 반세기 동안 舊態依然한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學校施設의 종류와 규모 등이 커다란 변화와 발전 없이 예전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갖추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학생수의 증가 등으로 학생 1인당 사용 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거나 협소해지고 있으며, 그것도 많은 시설들은 노후화되어 있어 重修와 改築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學校施設의 모습을 학교 주변의 현대화되어 가는 公共施設이나 주택 등과 비교해 볼 때 學校施設의 낙후성을 절감하게 해 준다. 더우기 學校施設이 교원과 함께 學校教育의 質을 결정해 주는 주요 요소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教育施設* 現代化의 필요성을 더해 준다.

정부는 先進國의 創造라는 旗幟 아래 교육의 선진화라는 政策目標를 設定하고, 2,000년대를 대비한 教育改革 事業에 착수하고 있다. 教育改革審議會는 21세기를 주도할 韓國人像을 창조

* 教育發展研究部長·哲博

한다는 改革目標의 하나로서 비교육적이고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敎育環境의 人間化' 방향을 설정하였다. 敎育改革審議會는 교육 시설 환경의 문제를 '敎育改革의 基本方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1]

「過密學級·過大學校와 같은 학교 환경의 비교 육성과 문화적 환경의 빈약은 교육 환경의 인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能力과 소질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 접촉이 곤란하게 된다. 획일화된 교육에서 학생들의 소외 현상은 심각해지고, 우수아와 지진아는 다 같이 적절한 개인 지도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예술적·심미적 감각을 발전시키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의 빈약은 정서를 메마르게 하고 따뜻한 인간성과 전인적인 인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

현대적인 敎育施設의 부족과 비교육적인 학교 밖의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도서실, 실험실, 컴퓨터실, 실습실, 운동장, 체육관 등 敎育施設의 미비는 尖端的인 敎授工學의 응용을 필요로 하는 효율적인 敎育의 施設을 저해하고 있다. 화장실·식당·휴게실 등의 부족은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보다도 학교 환경이 열등 함으로써 학생들은 심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

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학교가 즐거운 장소가 되게 하고 全人敎育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인생을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생활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敎育改革에서 指向하는 全人的 敎育, 創意性 啓發敎育, 미래 대비 교육의 실현은 물론 敎育에서의 수월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의 개선과 물리적 교육 환경으로서의 學校施設의 現代化가 전제되어야 한다.

Ⅱ. 敎育的 施設로서의 學校施設

Form follows function.

—Louis Sullvan—

우수한 學校施設과 헌신적인 敎員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조건이 된다. 우수한 學校施設이란 학교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좋은 學校施設을 갖추기 위해서는 敎育的 施設로서의 學校施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敎授-學習活動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學校施設의 설계에는 敎授-學習活動에 관련된 변인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동시에 성장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Caudill은 학교 계획은 아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동으로 끝나야 한다고 하고, 학교 시설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2] 이와 함께 학교는 地域社會 센터로서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요구에 관련된 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敎育學者와 敎育施設 專門家들은 이러한 학교의 기능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의 특성 및 학교 시설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Lyman은 학교 시설이 갖추어야 할 8가지 기본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3]

(1) **適切性**(suitability): 학교 시설은 교육 프로그램에 적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效用性**(utility): 학교 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이용 가치를 지녀야 한다.

(3) **融通性**(flexibility): 학교 시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initial flexibility)과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적 성격의 변화가 생길 때, 施設構造를 改編할

1) 정 원식, 『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 정책연구 Ⅳ-1. (서울 : 교육 개혁 심의회, 1986). pp. 67~68.

2) Stephen J. Knezevich, *Administration of Public Education* 3r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1975). p. 563.

3) W. Lyman, 'Eight Y's of School Planning,' *The American School Board Journal*, Vol. 140, No. 1 (January, 1960). pp. 24~25.

수 있는 융통성(long-range flexibility)을 가져야 한다.

(4) **效率性**(efficiency): 학교 시설은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實用性**(serviceability): 학교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 학교 시설은 내구성과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

(6) **經濟性**(economy):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활용을 하는 것으로, 施設投資費用과 施設活用에 관련된다. 그러나 학교 시설비, 교육적 활용·효율성 및 유지 관리비 등에서 경제성을 동시에 강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7) **美觀性**(beauty): 학교 시설은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 시설로서 심미성을 지녀야 한다.

(8) **相補性**(Compatibility): 학교 시설은 주변의 지역 사회 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상보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Castaldi는 학교 시설 계획의 기본 개념으로 充分性·適切性·效率性·經濟性·安全性·健康性·便宜性(comfort, convenience)을 제시하고, 미래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와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의 확장 가능성(expansion), 축소 가능성(contraction), 적응성(adaptability), 융통성(flexibility)을 들고 있다.[4]

본고에서는 Castaldi가 제시한 학교 시설 계획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학교 시설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學校施設의 **充分性**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교 시설의 量的·質的 充足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시설 종류별 실수의 충분성, 규모의 충분성, 환경 조건의 충분성 등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시설 종류별 실수의 충분성은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실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육 사양[5]에 제시된 실수가 축소되면 교육 프로그램의 축소를 초래하게 된다. 시설 규모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필요한 시설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방법(rules of thumb)보다는 기능적 분석 방법(functional analysis technique)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환경 조건은 효과적인 학습 활동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습용 시설은 溫度·照明·音響 등이 조절되어야 한다.

學校施設의 **適切性**은 모양의 적절성·분위기의 적절성, 시설 관계의 적절성 등으로 세분된다. 모양의 적절성은 유형별 시설의 기능에 따라 그 모양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교실은 4각형이 바람직하고, 음악실은 좁거나 길어서는 안 되지만, 자료 보관실은 교사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좁고 길어도 좋다. 學校施設은 학생들의 심리적 속성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하는데, 시설의 색상·조화·모습·조명·창문·내부 시설 구성·비품 및 장식품 등이 學習施設의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시설 관계의 적절성은 시설 내의 모든 활동들이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내의 모든 시설이 적절한 관계에 따라 配置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관련된 시설들은 유사한 시설끼리 "施設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예 : 生物室, 化學室, 物理室 등의 科學室), 그리고 무관하거나 병존해서는 안 될 시설은 분리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음향상의 이유로, 音樂室·工作室·作業室 등은 도서실(관)

4) B. Castaldi, *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 Modernization and Management* 2nd edition. (Boston, Mass: Allyn and Bocon, 1982).

5) 교육 사양(educational specifications)은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시설 간에 연계를 맺어 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학교 시설의 요건과 기타 특정 시설 등에 관하여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 사양서는 교육 행정가(계획가)에 의해 작성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1. 교육적 기능의 기술
   - 교수 학습 활동 내용
   - 시설의 이용 측면
   - 시설의 배치 및 위치 측면
2. 바람직한 학교 시설의 요건 구체화
   - 시설의 종류와 실수
   - 시설 규모 및 크기
   - 시설간의 관계·배치 등
3. 특정 시설에 관한 기술
   - 모양·천장의 높이
   - 조명·습도 및 온도 조건
   - 색채 등

과 보통 교실 부근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 심리적 이유로, 상담실 출입구와 교장실 출입구는 분리되어야 하고, 경제적 이유로, 에어콘이 설치된 시설과 동력실이나 보일러실과는 격리되어야 한다. 여기서 학습용 시설이 분리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 요인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시설의 배치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위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學校施設 **效率性**은 授業效果를 증진하거나 시설 활용을 높이도록 한 건축 설계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는 기능의 효율성, 시설 유지 관리의 효율성, 자료 보관·취급상의 효율성, 통행의 효율성 등이 있다. 기능의 효율성은 학교 시설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여 設計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학교 시설 설계에 교육적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 사양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학교 시설은 維持管理 費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자료의 보관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학교 시설 내에서의 학생 통행 등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學校施設의 **經濟性**은 학교 시설 건축비와 유지 관리비에서 최대한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서 경제성이란 일정한 금액으로 敎育的 價値와 效用的 價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시설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이 추구되기 위해서는 시설 건축비의 축소가 교육 과정이나 학교의 교육적 효율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고, 시설 유지 관리비의 증대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

學校施設의 **安全性·健康性** 및 **便宜性**은 학교 시설의 사용자가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과 학생들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 시설 중 경사로(ramp), 계단, 복도 등은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危險物質과 인체에 해로운 化學物質이나 公害誘發 시설 등은 격리되어야 한다. 학교 시설이 안락감을 주기 위해서는 조명·온도와 습도·좌석·색상·환기 및 음향 등의 환경을 고려해야 하고, 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휴게실·자료실의 위치, 통행 방법, 유관 시설의 군집화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교 시설의 건강·위생성에 관련해서는 냉·난방 장치·환기 장치·조명 장치·음향 장치를 설치하고 위생적인 화장실과 세면장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불확실성을 가진 미래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은 **擴張可能性**을 지녀야 한다. 특히 도시화 추세에 따라 교육 인구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施設擴張의 可能性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설의 확장은 수직적 확장과 수평적 확장을 고려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평적 확장이 더 바람직하다.

미래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시설의 확장 가능성과는 반대로 施設의 **縮小可能性**도 고려되어야 한다. 시설의 축소 가능성은 최근까지 학교 시설 계획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도시간 인구 이동과 도시 내에서의 지역간 인구 이동이 심한 경우에는 시설의 축소 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농촌 지역에 이미 遊休敎室이 생기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江北地域에서는 학생 인구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 시설의 축소 가능성은 유휴 시설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예: 학교 시설의 교육 목적·공공 시설로의 전환·초·중등 학교의 통합 운영 등).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가능성[6]에 관련해서는 학교 시설의 **適應性**과 **融通性**을 가져야 한다. 學校施設의 適應性은 학교 시설이 敎授-學習方法, 學習集團 編成 등의 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어진 시설에 새로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學校施設의 融通性은 새로운 기능에 따라 학교 시설의 기본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일부 학습 시설의 규모와 모양 등을 개편할 수 있는 것이다.

6)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는 수업 방법에서의 변화 가능성, 교육 공학의 활용, 학습 집단 편성의 변화 및 학교 조직의 변화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

Ⅲ. 學校施設 現代化의 課題

Good Schools build
better communities.
—Basil Castaldi—

1. 敎育基本施設의 絕對量 確保

교육 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學生數나 學校規模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 시설을 해결하는 것은 교육 시설 현대화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당면 과제이다. 우리 나라의 校地校舍面積은 매우 협소하다. 그리고 보통 교실의 경우도 교실 면적이 협소하고, 학급당 학생수가 지나치게 너무 많으며, 다양한 敎科活動을 위한 보통 교실, 특별 교실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 등을 겪고 있어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저해하고 있다. 중학교 무시험 제도, 고교 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 중등 학교의 교육 시설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왔고, 의무 교육이 중학교까지 완전 실시된다면, 이러한 시설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학교 시설을 대폭 확충해 가야 할 것이다.

2. 學校施設 關係 基準의 改善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를 국민 학교는 60명 이하, 중학교는 70명 이하, 고등 학교는 5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규정은 타당한 근거에 의해 설정된 기준이라기보다는 제한된 학교 시설로 급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법 시행령의 학급당 학생수 규정은 좀더 타당하고 적절하게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의 현실화도 매우 시급하다. 현재 同令에 규정되어 있는 校舍敷地 기준 면적은 단순히 층수나 학생수에 상관없이 건물 최하층 면적의 2.5배로 규정하여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교실 면적의 경우 획일적으로 66m²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수에 따른 면적 확보를 무시하고 있고 그나마 교지 면적은 기준조차 없다. 그리고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提示되고 있는 기준 시설을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 시설 관계 법령 기준이 타당성 있게 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령에는 교육 시설의 충분성 외에 적절성과 융통성·건강성 등을 고려하여 改正되어야 한다.

3. 學校施設의 適應性과 融通性 提高

學校敎育은 점점 교수-학습력의 최대한의 증진을 도모하고, 단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高等精神能力을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볼 때 학교 시설도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적응성과 융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自律學習體制를 돕는 시설의 구비와 개별 학습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실 현장에서도 획일적인 교사의 강의에 의존하는 수업 방법을 쇄신하고 교육 내용과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보다 다양한 교수 방법 도입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시설이 刷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미래를 주도하는 인간 양성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교육 공학 기자재의 활용을 가능케 하기 위한 학교 시설도 필요하며, 컴퓨터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관련 시설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학교 교육 체제에서 예상되는 유급제의 강화, 보충 지도의 강조, 무학년제, 월반제 등의 도입에 대비하는 학교 시설의 적응성과 융통성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4. 學校施設 配置 適切性 提高

학교 시설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배치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똑같은 교육 시설이라 할지라도 교수-학습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施設을 配置한다면 學校施設은 그 만큼 더 효용 가치가

를 것이다.

학교 시설 배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교지 위치는 便宜性·活用性·適切性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즉 교지는 각종 공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할 것이며, 학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적절한 통학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주변의 淨化施設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편, 학교 내 시설 배치는 다기능성, 적절성, 개방성, 활용성, 편의성 등을 특히 고려하여 機能別 교육 시설의 群集配置, 건물의 연속성, 건물 형태의 다양화, 건물간의 거리와 층고의 조정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체육 시설과 놀이 시설, 급수 및 위락 시설 등도 적정 장소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학습 공간과 운동장 사이의 綠地도 造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학교 시설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한 배치는 기본적으로 교육 시설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융통성·다기능성·개방성·효율성 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5. 學校施設과 地域社會와의 連繫强化

학교 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공개되고 활용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시설은 지역 주민의 교육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 학교 시설 중 학교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에 관해서는 지역 주민의 보조하에 상호 출자를 통해 학교 시설의 현대화도 더욱 빨리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설은 地域社會의 공공 시설(운동장, 도서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學校施設과 지역 사회의 공공 시설과의 연계 강화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역 사회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機會를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改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높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學校施設計劃 및 管理의 合理性 提高

그 동안 학교 시설 건축 계획은 문교부의 標準設計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교육 사양서(educational specification)의 작성 과정은 생략되었고, 학교 시설 건축 설계 과정에 교육 전문가의 참여 기회가 없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시설간에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육 시설의 건축시 교육 사양서를 작성케 하여 學校施設이 고려해야 할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며, 그 작성 과정에서도 보다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敎育施設의 現代化를 위해서는 敎育施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학교 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經營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시설 단가와 시설 유지·관리비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시설의 건축을 곤란케 하였고, 시설의 유지 관리도 不實하였음은 물론 노후 시설의 개선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敎育施設에 대한 投資配分을 합리화하여 시설 건축 단가와 관리 유지비의 현실적 책정과 함께 시설 관리에 관련된 관련 기록의 정비, 정기적인 검진과 보수 등의 업무가 전산화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Ⅳ. 結

We shape our buildings
and then they shape us.

—Winston Churchill—

학교 시설은 교육의 外的 妥當性과 內的 效率性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창 성장·발달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의 물리적 환경은 교수-학습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교육적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遂行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 시설은 다른 어느

시설보다 고려되고 지켜져야 할 원칙이 많다. 예컨대 학교 시설은 교수-학습에 적절해야 하며, 수용할 학생과 교원의 특성에 適切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 인구 변동에 따른 확장·축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교수-학습 체제 변화에 따른 適應性과 融通性을 지녀야 한다. 또한, 교육 시설은 지역 사회에 개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학생의 便宜性, 安定性, 健康性을 고려해야 하고, 시설의 계획·관리 과정에서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 시설이 이와 같이 다양한 諸特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敎育財政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보다 나은 시설 건축을 위한 과학적인 설계와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 시설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시설 관련 행정가 및 학부모. 교사들의 敎育施設 현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야 한다.

인간이 건물을 만들고 環境을 조성하지만 일단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물과 환경은 다시 인간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깊이 認識하여 학교 시설 현대화에 관한 높은 국민적 關心이 必要할 때이다. ⊠

〈參考文獻〉

김 영식 외, 『학교 시설 지침서』, 서울 :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1972.

김 영철·공 은배, 『대학 시설 기준 연구』, 서울 : 한국 교육 개발원, 1981.

김 정환, 『학교의 물리적 환경 변인이 아동의 정의적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81.

남 정걸, 『학교 시설에 관한 연구』, 서울 : 대한 교육 연합회, 1986.

신 원식, 『시대 변천에 따른 국민 학교 교실 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86.

이 정복, 『국민 학교의 물리적 환경 분석 연구』, 서울 : 한국 교육 개발원, 1980.

조 대성, 『지역 및 학교 환경에 적합한 설계도 개발을 위한 연구』, 문교부 정책 연구 과제. 1983.

Castaldi, Basil, *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 Modernization, and Management*, third edition,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2.

DeRoche, Edward F., *An Administrator's Gaide for Evaluating Programs and Personnel*,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1.

Gardner, D., "Educational Facilitie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Oxford: Pergamon Press, 1985.

George, N. L., "Educational Specifications," *American School Board Journal*, Vol. 140, No. 1 (January 1960) pp. 30~31.

Knezevich, Stephen J., *Administration of Public Education*, thir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1975,

Knirk, Frederick G., *Designing Productive Learning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 J.: Education Technology Publications, 1979.

Lyman, William, "Eight Y's of School Planning," *American School Board Journal*, Vol. 140. No. 1 (January 1960). pp. 24~25

Smith, Ellison, et el., "Follow these nine steps to select the architectural firm that can design a new school according to your exact specifications." *American School Board Journal*, Vol. 171. No. 5(May 1984) pp. 36~37

□ 論　　壇 □

效果的인 學校論

金　　炳　　聲*

Ⅰ. 序

최근 10년간 미국을 비롯한 先進産業國家에서는 學校效果(school effectiveness)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연구들은 公教育制度로서 學校教育의 效果 여부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보다는 學校 자체의 조직적, 구조적, 집단적인 特性이 교육 효과 즉 학생의 學業成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學校教育에 있어서 人的인, 物的인, 投入要件(input variables)이 學生의 (얻게 되는) 知的, 非知的인 産出이나 結果(out put variables)에 주는 직선적인 관계의 규명보다는 投入要件과 産出 관계를 맺어주는 過程變因(process variables)으로서 學校의 內在的 資源, 力動的 關係, 組織構造的 여러 특성들이 어떻게 작용함으로써 教育效果의 폭을 크게 혹은 적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돌린 것이다. 時期的으로 볼 때 이러한 學校效果에 관한 연구는 Coleman 등 (1966)[1] Jencks 등 (1972)[2]의 연구가 학교 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결과를 제시한 이후부터 그 대칭적인 관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 효과에 대한 悲觀論的 견해는 미국뿐만 아니라 英國(Plowden 보고서, 1967)[3]과 프랑스(Boudon, 1973)[4] 社會 그리고 개발 도상국(Husen, 1967)을 배경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學校教育 效果에 대한 회의적, 비관적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바 그 기본 상정이나 접근 과정 그리고 결과 분석 방법 등에서 많은 비판점이 지적되지만 학교 교육 효과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投入—産出模型을 통한 결과 검증에서는 큰 무리 없이 일맥상통한 결론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학교 교육은 公教育體制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기대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의 효과는 학교의 內的 要因보다는 학교의 外的 要因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효과—학교의 시설 환경이 좋건 나쁘건, 教育課程이 어떻게 짜여졌건 教師의 자질이 어떠하건, 수업 지도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건, 이러한 제 요인이 教育結果 즉 학생의 학업 성취에 주는 영향력—는 학교 외적인 요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의 문화 환경, 부모의 교육적 열의 즉 子女進學觀 진학 수준, 관심도 등에 비하여 매우 미소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 教育發展研究部·比較教育研究室長·哲博

1) Coleman, J., Campbell, E., Hobson, C., McPartland, J., Mood, A., Weinfed, E., & Yourk, R.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2) Jencks, C., Smith, M., Acland, H., Bane, M., Cohen, D., Ginties, H., Heyns, B., & Michelson, S.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Basic Books, 1972.

3) Plowden Report. *Children and their primary schools*: 'A report of the central advisory council for education(England)'.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67.

4) Boudon, Raymond. *Education, opportunity, and social inequality.* New York:wiley, 1973.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學校가 성적 격차를 만든다(School can make a difference)」 또는 「敎師가 성적 차이를 만든다(Teacher can make a difference)」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학교 자체의 社會的 體制要因이나 特性이 학생의 타고난 능력이나 가정 배경 특성과는 독립적으로 學業成就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콜맨 연구 자료를 再分析한 수많은 연구자 중 Mayeske 등 (1969)은 학교를 최종 분석 단위 즉 학교의 평균 학업 성취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그 投入要因의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학교 자체의 집단적 특정 요인, 예컨대 人的構成, 敎育課程, 학생 집단 특성 등과 같은 요인이 성적에 주는 독립적 효과가 매우 큰 것을 밝혀냈으며, 또 유사한 분석 연구(Mosteller와 Moynihan, 1972)[5]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가정의 文化 환경이 빈약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영향이 크게 부각됨을 제시하였다.

콜맨 연구에 대칭되는 이러한 일련의 비판적 견해는 학교 특성 즉 교장의 지도력, 교사의 학생 학업 성취에 대한 높은 期待, 좋은 學校 學習風土, 잘 짜여진 授業計劃, 교수-학습 진행에 관한 周到한 점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效果的인 學校의 特性이란 어떤 것이며 이러한 요인은 학생의 學業成就(知的, 非知的인 成就를 뜻함)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따라서, 본고에서는 學校敎育 效果의 낙관론적 관점을 최근 10年間 수행된 연구 결과에 터하여 그 가능성을 논의하고, 보다 효과적인 學校改善模型構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學校效果의 關聯要因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연구 중에서 學校效果를 관가름해 주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교의 社會的 體制(school social structure)나 學校의 學究的 規範(academic norms) 등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크게는 학교 구성원들의 社會·心理的 특성, 집단적인 조직 구조 그리고 수업 실천 행위와도 밀접히 연관되어진다.

學校社會는 다른 사회 체제와 같이 복잡한 制度的 조직을 가진 하나의 社會體制이다. 학교 사회는 행정가, 교사, 학생 그리고 행정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구성원이 제도적 目標인 '교육하는 것'을 위하여 비교적 지속적인 틀 속에서 상호 작용하는 社會組織이라 할 수 있다. (박용헌, 1968)[6] 학교의 구성원들은 그 환경에 적응한 相互作用 관계의 유형을 발전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체제는 크게 구성원의 역할, 規範 그리고 價値의 세 가지 유형에서 비롯된다(Katz & Kahn, 1978)[7]. 역할은 조직 구성원에게 각 지위에 따른 확고한 형태의 행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며, 규범은 각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집단적인 기대로 간주된다. 그리고 가치는 조직 내의 一般化된 정당성이나 바램을 나타낸다.

조직 구성원은 각자의 지위에 따른 役割定義 또는 역할 기대에 따라 행동하며 규범과 가치는 조직 구성원의 과업 수행 행위를 조정하고 正當化해 주는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규범은 교육 체제에 넓게 산재하여 교육 효과에 긍정적·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의 사회적 체제는 학교의 사회·심리적 집단 규범을 중핵 요인으로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학교의 모든 敎育環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학교의 사회적 체제를 규정짓는 가치, 규범적 특성에 관하여 McDill과 Risby(1973)[8]는 敎師와 學生의 학구적 우수성, 知的인 風土知覺, 구성원의 응집력과 平等主義로의 지향성, 科學的

5) Mosteller, Frederick and Moynihan, Daniel P. eds. *On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New York: Vintage Books, Random House, 1972.

6) 박용헌, 『學校社會』, 서울 : 배영사, 1968, 73~74

7) Katz, D. & Kahn, R. L.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2nd ed). New York: Wiley 1978.

8) McDill, E. L., & Rigsby, L. C. *Structure and process in secondary schools*: 'The impact of educational climat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접근 방법, 人間的 탁월성 그리고 학구적 지향성 등의 6가지의 특성으로 要因分析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Brookover와 그의 동료들(1977)[9]에 의하면 학교의 사회적 체제는 학교의 學習風土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은 학교의 사회적 체제는 학교 학습 풍토에 의하여 규정지어지게 되며, 그 構成要素로는 학교의 사회·심리적 규범(the ideology of school), 학교 조직 구조(the organization of school) 그리고 수업 실천 행위(the instructional practices)의 3가지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학교의 사회·심리적 규범은 학교의 사회적 체제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로 학교 구성원의 학교 교육 효과에 대한 일반적 信念, 期待, 規範, 평가, 감정, 분위기 등으로 이러한 학교 특성은 학교의 역사적 전통 등에서 파생됨을 경험적 연구 결과가 제시하고 있다. 즉, 학생 모두가 잘 배울 수 있고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은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낳는 데 주요한 학습 환경 특성으로 간주된다. 학교 구성원의 이러한 신념, 학구적 규범 그리고 상호 기대 및 평가는 전체적으로 학교의 文化的 風土를 형성하게 된다. 이 문화적 풍토는 학교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관계 구조의 총체이며, 학습 효과의 성패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학교의 사회적 체제의 두번째 구성 요인으로는 學校組織構造 및 운영 형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크게는 학교의 行政策組織으로부터 작게는 학급 내 학습 집단 구성 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학교의 행정적 조직 체제나 운영 방식, 敎授-學習 프로그램의 조직과 分化 그리고 학급 내 사회적 관계 구조와 관련되기도 한다.

행정적 조직과 운영은 교직원의 역할 분담이나 사무 분장의 효율성과 적절성 그리고 그 細分化 정도 및 통합성 정도와 관련된다. 또 이것은 교직원의 역할 수행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를 통제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노력과도 관련된다. 교수-학습 과정의 조직은 주로 교사의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협동 체제 즉 수업 설계 및 평가 방법, 교사 연수를 위한 자체 조직이나 활동의 유무를 포함한다.

학교의 집단적 조직에는 학급 조직, 교직원 조직, 학생회 조직 등의 형식적 조직과 교직원의 친목 조직, 동창회 조직 등의 비형식적 조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 지도·평가를 위한 敎師協議體 構成 및 활동,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의사 소통 방식에 터한 형식적 조직도 있다. Rutter(1979:135~138)[10] 등의 연구에 의하면 수업 계획을 수립할 때 교사간의 協助體制가 잘 이루어지는 학교는 그렇지 못한 학교보다 학생들의 출석률은 높고 非行率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들에 대한 장학 지원과 수업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다 성공적인 敎育效果를 보이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보다 교사의 의사 결정의 參與程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사회 체제의 세번째 구성 요인은 학급 외 授業實踐行爲에 연관된다. 이것은 학급 내에서 個人 혹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意思疎通 방식, 行動强化, 보상 체제 수업상에서 규제나 통제 방식, 수업 자료 제공과 수업에 투입되는 時間量(time-on-task) 등이다.

효과적인 授業設計는 모든 학생에게 공통된 학습 목표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受容하게 하여 최대한의 학생이 주어진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수업 계획에 따른 수업 지도 행위가 바로 학교의 學究的 規範이나 敎育課程組織 및 운영 등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일관성 있게 표출되어 敎育效果를 좌우하게 된다. 즉, 교사의 학생 학업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나 공통된 학습 목표가 학교의 학구적 규범으로 파급된다면 학생과의 의사 소통

9) Brookover, W. B., & Lezotte, L. W. *Changes in school characteristics coincident with changes in student achievement* (Executive summary). East Lansing, Mich.: College of Urban Development,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7.

10) Rutter, M., Maughan, B., Mortimore, P., Ouston, J., with smith, A. *Fifteen thousand hours*: 'Secondary school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과정에서 질문, 힌트, 반응 기회, 행동 강화나 규제 등에서 학생간의 차이를 극소화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학생에게 베푸는 온정 정도, 자료 제시, 개별 지도 시간, 칭찬이나 격려의 빈도 등에서도 최대한의 公平性을 유지하여 學習效果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Persell, 1977 : 123~124).[11]

학교 사회의 社會心理的 機制(mechanism)에 따라 학생은 학교 내의 집단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학구적 규범, 학교의 조직 특성 그리고 수업 실천 행위 특성이 의식적, 무의적으로 파급되어 갖가지의 행동 유형 즉 역할, 규범, 가치 등을 배우며 이것은 또 교사와 행정가의 對人期待나 評價體制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학급 내 상호 작용 및 수업 행위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학교간 학업 성취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학교 효과를 판가름하는 요인이다.

Ⅲ. 效果的인 學校特性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을 찾아내기 위한 많은 연구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事例硏究 결과는 비슷한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Brookover 등, 1979;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977; Glenn, 1981; Levine and Stark, 1981; Rutter 등 1979)[12].

Brookover 등에 의하면 학생의 학업 성취, 자아 개념, 기타 정의적 학습 효과에 대한 영향은 학교의 社會的 體制 즉 학교 구성원의 역할 지각, 규범, 기대, 가치, 평가 등이 학교의 投入要因인 학생의 가정 배경이나 학교의 구조적 변인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을 찾기 위하여 학생의 가정 경제 배경이 높으나 성적이 낮은 학교와 반대로 가정 배경이 낮으나 학생 성적이 높은 학교를 표집하여 사례 분석을 한 결과 학교간의 성적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생의 가정 배경보다는 학생들이 授業에 실제 사용한 시간량, 교사의 기대, 行動强化 방법, 학습 집단 구성 방식, 학습놀이, 교장의 역할, 교직원의 협동 체제 등에서 연유되며, 이러한 학교 특성은 학업 성취의 50% 이상의 변량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위의 연구 결과에 효과적 학교는 1) 교장과 교사의 강한 지도력 2) 학생 학업 성취에 대한 교사의 높은 기대 3) 분명한 교수-학습 목표 4) 학교의 學究的 분위기와 그에 따른 교직원 연수 5) 학생 학업 진전도의 주기적 점검 등 5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 연구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리뷰한 연구(Purkey와 Smith, 1983)[13]에서 학교 효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교육의 過程變因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교육의 과정 변인은 크게 나누어 協同的 計劃과 關係유지, 학습 목표의 구체성과 높은 기대, 교내 질서와 訓育 등에 관련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학교의 문제를 제기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위주로 한 지도성 발휘 2) 授業指導의 책임자로서의 교장의 역할 3) 學習指導의 계속성과 교사의 안정성 4) 敎育課程 계획에서 수준, 목표, 조직의 치밀성 5)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지도 방법, 수업 행동, 태도 변화를 위한 교사 개발 프로그

11) Persell, C. H. *Education and inequality*: 'The roots and results of stratification in America's school. New York: The Free Press, 1977.

12) Brookover, W. B., Beady, C., Flood, P., Schweitzer, J., & Wisenbaker, J. (1979). *School social systems and student achievement*: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 New York: Praeger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977). *School effectiveness study*: 'The first year. Sacramento, CA:Office of Program Evaluation and Research.

Glenn, B. C. (1981) *What works? An examination of effective schools for poor black childre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Law and Education. Levine, D. U., & Stark. J. (1981, August). *Extended summary and conclusions: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arrangements and processes for improving academic achievement at inner city elementary schools. Kansas City*: University of Missouri, Center for the study of Metropolitan Problems in Education.

13) Purkey, S. C., & Smith, M. S. *Effective schools*: 'A review, Elementary School Journal', 83(4), 427-52, 1983.

램 적용 6) 학부모들에게 학교 업무에 관한 홍보를 통하여 지원과 협조를 얻는 것 7) 학교 학사 업무의 성공에 대한 대외적 홍보 8) 수업 시간의 효율화를 통한 학업 성취의 극대화 9) 지역 사회 교육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와 支援·關心의 획득 등에 관한 사항이다.

(Cohen, 1983)[14]에 의하면 위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학교의 特性要因들은 그 학교 학생의 學業成就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이 학교간의 성적 차이를 설명해 주는 데 70~90%의 변량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물론, 효과적인 학교 특성에 관련된 요인은 무수히 많겠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도 둘째, 학교 자체의 학습 프로그램의 組織과 運營 세째는 교직원과 학생이 갖고 있는 그 학교의 문화와 가치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學校效果를 규명하는 데는 학급 경영이나 수업 실천 행동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천 요인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효과는 특히 授業實踐과 관련된 학교의 제도적 조직적, 집단적 특성을 집합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 목적, 학년 및 학급 수준의 敎授目標, 수업 내용과 행동 그리고 학업 성취의 결과 등이 학교 구성원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로 나타나 결국 학교 효과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효과는 학교 학습 프로그램의 조직, 실천, 평가의 전 과정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장의 지도력이나, 교수-학습의 중학 과정, 안정되고 고무적인 학습 풍토, 모든 학생의 完全學習(mastery)에 대한 교사 기대, 학습 프로그램의 적절한 평가 등이 상호 연관되고 통합되어 나타나는 집합적 의미에서의 학교 교육의 효과로 간주되어져야 한다.

Ⅳ. 學校改善 硏究의 方向

효과적인 학교 특성[15]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개관해 볼 때 앞으로 학교 개선을 위한 연구 과제는 크게 학교장의 행정적 지도력, 기초 기능 숙달을 위한 수업 지도, 학교 풍토, 학습 진도의 평가, 교사의 기대 등에 관련된 개선 방향이다.

첫째, 학교 효과의 주도적 역할은 교장의 지도력과 밀접히 관련된다. 흔히 학교 사회는 매우 보수적, 관료적 집단으로 지칭된다. 따라서 학교장은 기존 체제나 학습 프로그램의 변혁이나 개혁보다는 安定性 유지에 치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으로 변화·촉진자로서의 교장의 역할이 강조된다. Hall(1983)[16] 연구에 의하면 교장이 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데 주도자로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管理者로서,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내버려두는 反應者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교장은 수업 지도의 총책임자로서 수업 개선과 변화의 主導者, 관리자, 반응자의 역할을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학교 정책과 지도성 유형에 관한 연구 결과는 가정 소득이 높은 학교나 낮은 가정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성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Stallings와 Mohlman, 1981)[17]

두번째, 학교 개선의 방향은 基礎技能의 숙달을 위한 지도 방법인데, 이것은 公敎育 目標의 가장 중책적인 과제이다. 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의도되는 바의 學習目標를 완전하게 도달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일차적인 과업은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기초

14) Cohen, M. (1983). *Instructional, management and social conditions in effective schools.* In A. O. webb and L. D. webb(Eds). *School finance and school improvement*: Linkages in the 1980's. Cambridge, MA: Ballinger.

15)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를 경험적인 자료에 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특성을 구축하기 위한 교직원 자체 연수 과정의 체계적인 제시는 金炳聲, 『효과적인 학교 학습 풍토』 서울 : 교육과학사, 1986 참조.

16) Hall, P. M. (1983). *A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Elementary School Journal, 84(2), 142~148.

17) Stallings, J., & Mohlman, G. (1981, September). *School policy, leadership style, teacher change and student behavior in eight schools* (Final report, Grant No. NIE-G-80-0010).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기능을 누구나 숙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교는 학생의 지도 목표의 구체화, 학습 시간 투여의 최대화(time-on-task), 주기적인 평가와 평가의 정확성 등을 위한 교직원의 협동 체제와 계획 수행의 집단적 노력과 관련된다. 지금까지 수행된 수많은 교육심리학적,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업 지도의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는 것은 학습의 個人差 요인이 강조될 뿐 교수-학습의 집단적 노력과 역동성에 관한 집단 구성, 학급 생태학, 상호 작용 효과 등에 관한 깊은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학교의 學習風土要因[18]이다. 학교 사회는 다른 사회 체제와는 구별되는 문화적·사회적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한 학교의 문화는 다른 학교의 문화와 구별되기도 한다. 人文學校와 實業學校, 公立과 私立, 都市學校와 地方學校 등이 이러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학교 풍토는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으로 학습 효과와 밀접히 관련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구성원들의 학습에 대한 기대, 지각, 평가, 규범, 신념과 직결되어진다. 이러한 學校風土는 學習風土와 같은 개념으로 규정되고 교장, 교사 그리고 學生風土로 구분되는데 이 학습 풍토 요인이 학습 효과에 주는 영향은 약 70%의 예언 변량을 나타낸다(Brookover, 1979). 따라서, 학교 학습 풍토와 교사의 수업 행동 기대, 평가, 보상 방법 등에 관한 실천적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사의 期待效果가 학교 개선에 주는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수업 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학생 성취에 대한 기대는 알게 모르게 학생에게 전달되며 일정 기간 후에 학습 결과를 평가하면 애초의 교사 기대는 自己充足豫言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교사가 표출하는 수업 지도의 외형적 행동보다 교사가 마음 속에 갖고 있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각이 학급 내 학생간의 성적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Rosenthal, 1974).[19]

따라서, 학급내 對人知覺의 차이에서 연유되는 학습 효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학교 개선을 위한 과제로 등장된다. 이러한 측면의 연구는 수업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으로 파생되는 질문, 힌트주기, 반응 온정과 냉담, 비언어적 행동 등에서 公平性 유지를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18) 학교 학습 풍토의 중요성과 학습 효과에 주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 결과는 金炳聲, 『학교 학습 풍토와 학업 성취』, 서울 : 교육 과학사, 1984 참조.

19) Rosenthal, R. *The pygmalion effect*: 'what you expect is what you get. psychology Today Library Cassette, 12. New York: Ziff-Davis, 1974.

◇ 論　壇 ◇

民主市民敎育과 經濟敎育

崔　秉　模*

Ⅰ. 序言

民主主義는 人類의 영원한 理想이요 동시에 生活哲學이며 生活方式이다. 그래서 民主主義는 한 국가의 理念으로 받아들여지고 國家는 이것을 敎育을 통해서 實現하려고 한다. 民主主義 實現의 주체는 국가 사회의 構成員이기 때문에 그 構成員으로 하여금 훌륭한 民主市民性을 갖출 수 있도록하는 敎育이 요청되는데, 이것이 바로 民主市民敎育인 것이다.

民主市民敎育의 양상은 國家社會가 놓여져 있는 처지와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內容의 차이는 물론, 方法도 서로 다르게 마련이다. 아직 先進産業社會의 대열에끼지 못한 나라들은 近代化를 제일가는 국가의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近代化는 물론 經濟發展을 위시해서 政治發展, 社會發展, 敎育·文化發展 등 綜合的인 발전을 의미 하지만 近代化를 先導하는 走者는 經濟發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도 이것의 例外는 아니다. 1960年代부터 經濟主導의 近代化戰略을 써왔고 따라서, 그만큼 큰 成果를 거두어 왔다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經濟發展의 궁극적인 목적은 自由民主主義에 있는 것이다. 經濟發展은 自由民主主義 실현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 조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같이 近代化의 先導的 지위요, 自由民主主義 실현의 필수 조건인 經濟發展은 국민들의 일차적인 요구이며 기대이다.

이러한 經濟發展은 이에 필요한 物的 資源과 함께 人的 資源이 요청되는 것이나 國民經濟의 주체인 국민들의 經濟意識構造에 따른 經濟行爲가 國民經濟發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經濟意識을 고취시켜 個人經濟나 國民經濟에 있어 合理的인 經濟行爲를 할 수 있도록 하는 經濟敎育은 經濟發展 및 民主市民敎育의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비약적인 經濟成長과 더불어 不平等한 經濟構造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意識化된 학생들의 資本主義에 대한 批判과 左傾意識化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市場經濟가 발달되고 先進經濟가 이룩될수록 각 經濟主體의 合理的인 選擇의 문제가 重要視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民間主導經濟 즉 市場經濟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2000年代의 사회에서 우리 나라가 高度産業社會로의 약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未來指向的인 관점에서, 특히 初·中·高等學生을 대상으로 하는 學校經濟敎育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에 初·中·高等學校에서의 經濟敎育은 社會科敎育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먼저 民主市民敎育과 社會科敎育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어 民主市民養成으로서의 經濟敎育, 未來指向的 관점에서의 學校經濟敎育의 方向 그리고, 現在 社會科敎科書에서의 經濟內容의 改編과 더불어 몇 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 敎育課程硏究部·硏究員

Ⅱ. 民主市民敎育과 社會科敎育

社會科敎育은 교과목의 領域에 신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內容이 다양한 것도 다른 敎科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다. 아마도 社會科는 敎科目의 內容과 그 학문적 배경이 서로 다른 唯一한 교과이기도 하다. 地理敎科나 歷史敎科가 지리학이나 역사학이라는 동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하여 社會科는 그 內容을 政治, 法, 經濟, 社會, 文化로 본다 할지라도 政治學, 法學, 經濟學, 社會學, 文化人類學 등의 다양한 社會科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社會科의 내부에서도 의견의 多樣性이나 방향 감각에 차이가 나는 것도 다른 어떤 교과목보다 심한 실정이다.

社會科의 영역이나 내용에 관한 이상과 같은 模糊性은 다양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교육의 근본적인 目標나 性格에 대해서는 매우 分明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社會科敎育이 「社會」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 즉 「市民」이나 「國民」을 양성하기 위한, 初·中·高等學校의 교과목이라는 점이다. 사람은 혼자서 살지 않고 반드시 사회나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共同體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幸福한 삶을 가져야 함은 물론 社會와 國家에 대해서도 공헌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學校의 모든 敎科目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社會科敎育은 인간과 인간, 집단의 相互關係, 정치와 경제 현상, 집단으로서의 사회 및 국가와 개인의 관계, 가정, 사회, 정부와 국가에 대한 態度, 인간과 세계 등에 관한 것을 직접적으로 교수의 目標나 內容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교과보다도 훨씬 더 긴밀하게 「市民의 資質」 형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社會科敎育의 본질은 그 생성 발전 과정을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각 국가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理念과 目標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社會科敎育이 社會와 國家의 구성원들이 훌륭한 市民이나 國民으로서의 자질을 갖도록 하려는 학교의 교과목이라는 점에는 아무런 異議가 없다는 점에 우리는 留意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社會科敎育이 훌륭한 民主市民을 양성하는 敎育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교과이고, 經濟敎育도 初·中·高等學校에서의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할 때 社會科敎育 그리고 經濟敎育은 民主市民의 양성 및 民主主義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교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社會科 敎育이 본래의 성격과 그 重要性에 비추어 그 인식이 크게 감퇴되어 가는 현실이다. 敎育課程 편제상 社會科의 시간이 점차 줄고 있으며, 해방 직후 그 무렵에 강조되었던 「民主市民敎育」이 최근에는 敎育에서 그리고 學校現場에서 뒷전으로 점차 밀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 실정과는 달리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民主市民敎育에 관하여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수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社會的 混亂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民主市民敎育으로서의 社會科敎育 그리고, 經濟敎育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Ⅲ. 民主市民 養成으로서의 經濟敎育

近代化를 서두르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經濟發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政治發展의 필수 요건 중의 하나가 經濟發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政治發展과 經濟發展은 발전 모형상 先後의 문제가 아니라 相互補完的이라 할 수 있다. 政治發展이나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이 양자의 상호 보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社會的, 敎育的 發展과의 균형적 구조 관계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즉 모두가 상호 관련을 가지게 되는 까닭에 어느 한 分野만의 독자적인 발전은 불가능한 것이다. 즉 政治, 經濟, 社會, 敎育의 均衡的 發展에 의해 近代化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民主市民의 養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의 內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이런 範

疇 안에서 市民敎育으로서의 經濟敎育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經濟敎育은 궁극적으로 自由民主主義 실현을 위한 敎育의 하나이다. 우리의 經濟體制는 資本主義의 經濟理論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다만 市場經濟의 무계획성 등 資本主義經濟의 결함을 정부의 계획성 있는 간섭으로 예방 혹은 완화함으로써 持續的인 안정적 성장을 꾀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近代化를 촉진시킨 것은 資本主義이고 民主社會의 기반인 市民社會의 형성도 産業資本主義이었다.

市民社會의 基本理念인 個人主義, 自由主義, 合理主義는 資本主義의 이념과 연계되고 동시에 民主主義의 이념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民主主義와 資本主義는 兩輪的 관계에 있다. 민주주의가 人間尊嚴을 기반으로 하는 個人主義라면 자본주의는 개인의 私有財産의 보장과 營利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個人主義이다. 人間尊重이 보다 일반화된 槪念이라면 사유 재산의 보장과 영리 추구의 보장은 일반적 개념을 만족시키는 下位槪念 중의 하나이다.

民主主義와 資本主義間에는 政治的 자유와 經濟的 자유라는 점에서 自由主義의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民主主義에서의 政治過程의 合理性과 資本主義에서의 經濟原則의 合理性에서 合理主義의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個人主義, 自由主義, 合理主義는 일찌기 성숙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市民革命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와 産業革命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 兩者는 특히 自由라는 관점에서 더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만(M. Friedman)은 말하기를 經濟體制는 自由社會를 발전시킴에 있어 二重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첫째는 經濟體制에 있어서의 自由 그 자체가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自由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經濟的 自由 그 자체가 目的이요 둘째는, 經濟的 自由는 정치적 자유의 달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수단이라고 하였다. 결국 經濟體制의 특색과 經濟發展의 정도에 따라 政治體制의 특색과 정치 발전의 정도가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民主市民敎育의 차원에서 볼 때 經濟敎育은 自由民主主義를 실현하기 위한 敎育이 되고 自由民主主義 社會를 위한 政治敎育은 經濟發展의 필수 조건이 된다.

시카고大學의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Frank Knight) 교수도 일찌기 지적했듯이, 한 사회의 政治構造나 經濟構造는 너무나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동일한 社會構造를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民主市民의 素養을 키우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民主主義 정치 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하듯이 經濟分野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市場經濟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이해함으로써 경제 주체로서의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經濟敎育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정부의 정책이 經濟問題와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民主市民으로서의 정책에 대한 健全한 批判과 投票로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이 꼭 필요했던 것이다.

資本主義經濟의 參與者로서 그리고 民主主義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적절한 경제적인 선택을 하며, 아울러서 市場經濟의 法則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理解가 필수적이다. 우리의 日常生活은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지 않더라도 수시로 經濟問題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즉 소득 불균형, 농촌 문제, 노사 관계 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절한 情報와 問題를 분석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권리나 정치적인 選擇, 힘 또는 투표권 등을 책임 있게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經濟敎育의 문제는 바로 民主主義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실시될 때, 資本主義 市場經濟와 民主主義 政治制度는 원만하게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나, 경제에 대한 無知나 誤解는 市場經濟의 발전을 저해하며 民主主義體制의 유지도 어렵게 한다. 한 국가의 政治的·經濟的 自由는 그 국민의 지식과 능력을 개발·활용함으로써 각자 個人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合理的인 判斷을 내리고 직장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효과적이고 責任感 있는 행동을 할 때에만 보장되는 것이다.

Ⅳ. 未來指向的 觀點에서의 經濟教育의 方向

經濟教育의 본질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많은 經濟問題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經濟問題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들에 대한 合理的인 接近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合理的인 方法으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經濟原理와 槪念을 알아야 한다. 또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洞察力을 가지고 실제 經濟問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經濟를 理解한다는 것은 경제 문제에 대한 訓練된 思考方式을 체득하는 것을 뜻한다. 가령, 단순한 事實들만 암기했다고 해서 곧 경제를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단편적인 事實이란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經濟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경제 문제를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方法으로 생각하는 能力을 갖춤으로써 각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가 일치하는 合理的 결론을 내려서 長·短期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내리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分析道具 또는 知的 道具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經濟學者 케인즈(J. M. Keynes)가 말했듯이 경제 이론이란 經濟政策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결론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經濟理論이란 이론이기 전에 생각하는 方法이며,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해주는 思考의 수단이다. 어떤 사람이 經濟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그가 경제 여건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로 판별할 수 있다. 가령 經濟與件이 변해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생소한 문제에 부딪쳤을 때 우리는 비록 그것을 예기치 못했더라도 狀況變化를 침착하게 觀察하고 分析해서 적절하게 對策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문제 및 관련된 여러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代案을 고려하여 각 대안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目標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合理的인 解決方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복잡한 經濟問題를 파악하여 論理的 결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經濟分析의 도구가 되는 基本槪念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活用하기 위해서는 비록 經濟專門家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 현상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理解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經濟教育의 目的은 經濟專門家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좀더 效果的으로 決定을 내리고 責任感 있는 行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經濟教育도 市場經濟의 주요 특성과 장점 및 문제점에 대한 國民들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市場經濟體制가 다른 체제와 비교하여 어떠하며 그것은 어떻게 運營되고 있고, 국민이 이러한 체제에서 個人的 集團的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企業이나 은행, 정부 등에서 바람직한 決定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組織의 기능은 무엇인가 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經濟教育은 또한 경제가 그 目的에 얼마나 부합되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評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대체로 어느 社會에서나 經濟의 목표는 成長과 安定 즉,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은 소득 증대와 높은 고용수준, 생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 所得分配의 平等, 經濟的 自由 등이다.

經濟問題의 관심이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選擇"과 "機會費用"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비록 경제의 목표를 쉽게 정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각계의 목적들을 서로 調和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通貨供給을 줄일 경우 經濟成長이 둔화되고 失業이 늘어나는 수도 있다. 또 成長 위주의 經濟政策을 추진하다 보면 所得分配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을 그 대신 어느 정도 희생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正確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편,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勞動과 職業에 충실하는 生活態度, 근검 절약, 公正한 競爭, 절

제와 克己 등의 價値觀은 經濟能率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경제 교육은 이러한 관점에서 經濟知識과 價値觀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價値의 측면에서 經濟敎育의 목표는 국민들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하며 복지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態度를 함양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資本主義社會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市場經濟에 대한 確信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경제 교육은 경제의 價値探究, 資本主義體制의 옹호, 共同體意識 그리고 經濟倫理의 確立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知識과 價値의 상충을 피하고 적절히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경제의 價値문제가 知識面을 압도하면 능률이 저하되고 經濟發展이 저하된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知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한 行動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교육의 의미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V. 結語 및 提言

'80年代에 들어오면서 經濟敎育의 중요성이 새삼 强調되고 있으며, 명실 상부하게 民間主導의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서 家計와 企業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요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高度産業社會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市民들의 경제 문제의 성격도 달라져서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市場經濟의 기본 원리를 자기들의 思考에 活用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本院이 중심이 되어 社會科敎科書에서의 經濟內容의 전면적인 改編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經濟內容의 改編方向을 몇 가지 提示하고자 한다.

첫째, 經濟敎育의 궁극적인 目的은 건전한 소양을 지닌 民主市民의 養成에 두어야 한다. 즉 自由市場經濟의 基本原理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제 현상에 대한 分析能力 및 合理的이고 責任感 있는 意思決定 능력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성숙한 경제 사회에 슬기롭게 적응하고 주도해 나갈 유능한 民主市民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經濟敎育의 基本方向과 內容體系를 잡아야겠다.

둘째, 학생들이 쉽게 理解할 수 있고 體系있는 經濟敎育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經濟學도 나름의 독특한 基本構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經濟敎育의 內容도 經濟學의 基本槪念과 이와 관련되는 下位槪念으로 선정·조직되어야 하며, 여러 개념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가운데 一般化 또는 理論을 이루는 그 經濟知識의 成立過程 또는 探究過程에 따라 서술되어야 하겠다.

세째, 학생들에게 興味 있고 實效性 있는 經濟敎育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生活 주변에서의 事例를 많이 들어 槪念을 유도하거나, 經濟問題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學生들의 內的 動機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經濟敎育에 探究模型을 도입하여 眞理發見의 희열을 느끼도록 하여야 하겠다.

네째, 학생들에게 均衡 있는 眼目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즉 市場經濟의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하되 그 부작용 또는 逆機能을 고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價格機能의 중요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市場失敗도 고려하도록 하고, 政府調整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政府失敗도 고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든 經濟槪念이나 現象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經濟體制에 대한 比較的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함으로써 市場經濟의 우월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사유 재산, 선택의 자유, 경쟁, 효율성 등의 自由競爭의 장점과 動機賦與의 중요성을 통하여 自由市場經濟의 우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市場經濟 체제와 計劃經濟 체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 및 계획 경제의 理論과 실제 運營上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서술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즉, 民主市民敎育으로서의 經濟敎育의 目的은 合理的인 思考力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先進社會를 지향하고 있는 이때 21世紀가 되면 국가간의 경쟁도 더욱 첨예화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이겨 내려면 創造的이고 合理的인 思考能力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

第5次 高等學校 敎育課程의 開發

韓國敎育開發院은 文敎部의 위촉을 받아 '86년도의 5次 初·中學校 敎育課程 改正作業에 이어, '87년도에는 5次 高等學校 敎育課程 改正作業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교육 개발원이 올해에 改正하는 敎育課程은 다음과 같은 11계열 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이다. 일반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체육계, 예술계, 과학계 고등 학교 및 외국어 학교, 고등 기술 학교.

각 계열 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은 '87년도에 시안이 硏究·開發되고, 文敎部의 심의를 거쳐, '87년도 3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새 교육 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가 연구·개발되어 실제로 새 敎育課程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90년도부터이다.

5次 高等學校 敎育課程 改正作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遂行되고 있다.

첫째, 각 계열별 고등 학교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성격 및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具現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정한다.

둘째, 학습 내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를 위하여 학생이 履修해야 하는 교과목 수와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縮小·調整한다.

세째, 학교와 학생이 필요와 능력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 選擇의 機會와 폭을 넓힌다.

네째, 현대와 미래 社會의 要求를 反映한다. 변화가 가속되고 情報産業社會가 도래하고 있는 현대와 미래 사회의 모습과 필요를 考慮하여 필요한 교과목이나 교육 내용을 신설, 이수토록 한다.

다섯째, 지·정·의·체의 조화로운 發達을 도모하기 위한 全人敎育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주지 교과와 관련된 학생의 학습 부담을 緩和하고 정의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强化한다.

여섯째, 학생의 기초 능력,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소양, 개성, 진로 발달을 최대한 伸張할 수 있는 敎育課程을 구성한다.

高等學校 教育課程 改正에서 풀어야 할 前提들

郭 柄 善*

한국 교육 개발원은 문교부의 위촉을 받아 1986년도에 수행한 유치원, 초·중학교 5차 교육 과정 시안 개발 과제에 이어 금년에 고등 학교 교육 과정 시안을 개발하고 있다. 문교부는 본원의 시안을 답신받아 심의 확정하여 1988년 초에 고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과용 도서를 개편하고, 교원 연수를 실시하여 1990년부터 새 교육 과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본 논의는 이러한 고등 학교 교육 과정 개정 시안 작업과 관련하여 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5차 교육 과정 개정 시안에서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성숙된 이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넓혀가면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이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새 시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을 비롯해서 고등 학교 교육 전반은 그 질적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1. 高等學校 教育의 性格에 대한 再照明

고등 학교 교육은 일반 보통 교육을 완성하는 단계의 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초·중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기초 소양 교육을 마감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대학을 비롯한 상급 학교 진학과 사회 직업 생활에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교육으로서 탐색적 전문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고등 학교 교육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이 기초 소양 교육과 탐색적 전문 교육을 다소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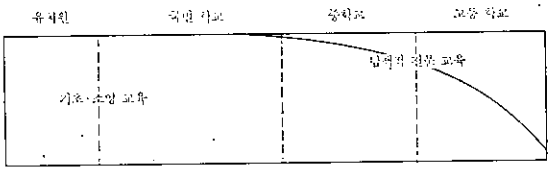
기초·소양 교육은 고등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다. 이 기본적 자질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의 대상은 기초 학습 능력에 관계된 것과 시민적 또는 국민적 기본 소양에 관계되는 것이다. 기초 학습 능력에 관계되는 내용은 장차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도구가 되는 내용이며, 시민적 기본 소양에 관계되는 내용은 한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신념, 가치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기초·소양 교육은 고등 학교 계열별 특수성에 관계없이 어느 학교 어느 학생에게나 공통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성격의 교육 내용이 된다.

탐색적 전문 교육은 고등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곧바로 사회에 나가 취업하거나 또는 각종 계속 교육 기관으로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등의 진로를 개척해 나감에 있어 필요한 개개인의 적성 및 자아 탐색 기회, 학생 개인별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수업이나 훈련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다. 탐색적 전문 교육을 위해서는 폭넓은 교과의 경험을 제공해 줘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특정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학습

* 教育課程研究部長·哲博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이율 배반적 필요성이 동시에 요청된다.

기초 소양 교육과 탐색적 전문 교육의 비중을 조정하는 문제가 교육 과정 편성에서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 학교 급별로 이 두 가지 교육의 비중에 대한 연계성을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도식이 가능할 수 있다.



유치원과 국민 학교에서는 기초·소양 교육에 집중하고, 중학교에서부터 탐색적 전문 교육이 위치를 차지하여 고등 학교에 올라오면 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된다. 이러한 관계는 유치원, 국민 학교에서 중·고등 학교로 옮아 가는 동안 교과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시사를 제공한다. 즉 기초·소양 교육으로서의 공통 필수 과목은 중학교까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고등 학교에서는 그 비중을 현격하게 줄여 탐색 전문 교육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 보통 교육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고등 학교 교육은 이 탐색적 전문 교육에 대한 배려를 세심하고 충분하게 해야 된다.

기초·소양 교육과 탐색적 전문 교육의 입장에서 교과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어느 교과가 기초·소양 교육 또는 탐색적 전문 교육에 가깝고 멀거나 하는 구분은 단순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적어도 실업계 고등 학교나 예술 고등 학교 등에서 제공되는 특수 전문 과목이(이 경우는 탐색적 전문 과목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닌 일반계 고등 학교의 일반 과목은 기초·소양 교육과 탐색적 전문 교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닐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민 윤리 과목은 도덕 교육 및 이념·사상 교육의 차원에서 공통 필수로 부과할 필요가 있는 기초·소양 교육에 직결된 과목이지만, 한편으로는 장차 종교, 교육, 철학, 윤리, 정치 사상 등의 인문·사회 분야에 뜻을 둔 학생들에게는 전문 분야의 대상으로 입문하는 데 안내가 되는 학습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탐색적 전문 교육 대상으로서의 국민 윤리 과목은 기초·소양 교육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보다 그 내용 체계의 성격과 수준을 달리 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초·중학교 단계에서 기초 도구 교과서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과목, 국민 일반 소양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된 국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으로 학교 교과목의 지위를 굳혀 온 분야들이 예외없이 고등 학교 교과목 구성에 있어서 공통 필수 과목으로 편입되어야겠다는 논리를 펴 올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여 그 정당성을 예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초·소양 교육의 필요로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탐색적 전문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인가?'이다. 만약 기초·소양 교육의 의미로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교과목을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성격의 것이며, 왜 그것이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가치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최소의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비대화시키는 만큼 개성과 적성을 신장시키는 탐색적 전문 교육의 가능성은 위축되기 때문이다. 만약 주장되는 교과목의 내용이 탐색적 전문 교육에 가까우면, 공통 필수로서의 편성은 무리한 것이다. 탐색의 필요로서 폭넓은 교과목의 경험은 바람직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모든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 탐색의 경험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한 탐색은 적어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실업계(이 분야는 다시 제 1, 2, 3, 4 차 산업 분야별로 세분될 수 있다) 등 어느 정도 광역화가 가능한 전문 분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탐색적 전문 교육의 측면에서, 제공되는 교과목들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서는 상급 수준의 내용을 학

습할 수 있도록 그 수준에 융통성을 두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고등 학교 교육은 기초·소양 교육과 동시에 탐색적 전문 교육을 제공해 줘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각 교과목의 위치가 조정되어야 한다. 기초·소양 교육의 성격을 갖는 교과목은 그 수준과 폭을 최소로 제한해야 하며, 탐색적 전문 교육을 위한 교과목에 커다란 비중을 내주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허용되는 교과목의 구성과 그러한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 현장의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뜻에서 현행 고등 학교 교육 과정상의 편제는 근본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왜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은 공통 수학을 이수한 뒤에도 별도의 수학 과목을 더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가? 자연 과정을 택하지 않는 그들이 꼭 그렇게 과학의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 모든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가? 고등 학교 교육의 성격을 기초·소양 교육과 탐색적 전문 교육의 입장에서 조명하여 보았을 때, 현행 교육 과정에 대하여 이러한 질문은 당연히 제기된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 과정 개정은 고등 학교 교육을 설정하는 우리들의 개념적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敎科專門家 主導의 中央集中式 決定이 갖는 飽食的 硬直性에 대한 理解

교육 과정은 여러 수준에서 결정된다. 제도적으로 우리 나라나 프랑스와 같이 중앙 집중식 결정을 하는 학교 교육이건 미국, 영국처럼 지방 분산식 결정을 하는 상황이건 간에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일방적 결정이나 풀뿌리 방식 일변도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 과정이 정부 문서로 고시되지만, 교단 교사는 수업의 실제에서 얼마든지 창의와 자발성으로 소신 있는 교과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형편은 어느 나라에서나 대체로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교사 수준의 결정이 미치지 못하는 교과목 편제 구성에 관한 것이다. 자유 선택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교과목 편제에 관한 한 어느 과목을 얼마나 가르칠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리의 형편에서 학교 수준 또는 교사 수준에서 이렇다 할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이것은 프랑스 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 교과목 편제에 관한 결정은 교과 전문가들의 발언권 우세 속에서 관료적 결정으로 귀착되는 중앙 집중식 결정을 제도적으로 답습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경험과 통찰, 그리고 교육 과정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서 교과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교육 과정 결정과 이것이 중앙식 결정과 결합해서 빚어내는 역기능에 대해서 다소 각성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로 교과 전문가 집단의 속성과 교과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교과는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 문화 요소를 분류 체계화하는 방식에 따라 성립되어 학교의 학과로 채택된 학문 또는 경험의 영역들이라 볼 수 있다. 교과 전문가들은 그러한 영역에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수하고,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등의 일을 맡아하는 사람들이다. 각 교과들이 최초에 어떻게 해서 학교 교육에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다만 교육 과정은 교과를 하나의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교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즉 교과 없이 교육 과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 과정 결정을 교과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야 되는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근 교육 과정 결정과 관련하여 교과 및 교과 전문가 집단의 속성에 대한 논의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치로운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교과는 그 교과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보호되고 있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교과를 둘러싸고 있는 교

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지위를 유지시켜 오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한번 교과로 등재되면, 그 교과는 여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제외되기 어려우며, 교육 과정에서 그 위치를 부단히 확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떠한 영역이 교과로 인정되면 그로 인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여러모로 득을 보며, 그 전문가들은 그 기존의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교과의 지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교과 전문가들은 교육 과정 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과 전문가들의 발언은 전체 교육 과정에 대한 득실보다 자기가 소속한 교과의 이익을 우선하는 편향된 입장을 취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리고, 교과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현장 교사가 참여하지 않은 교과 전문가 주도의 교육 과정은 일반적으로 그 수준이 학생들에게 어렵다는 것이 국내·외의 경험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교과 전문가들이 그들의 전문적 눈금을 기준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교과 전문가들이 교육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 학교 현장의 물리적 여건, 교사나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소홀히 한 채 자기 교과의 비중을 늘리고 그 내용의 수준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이 나타나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과를 매개로 기득권을 확장하려는 교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장되는 현상이다. 즉 가능한 한 필수 공동 과목으로서 가장 많은 수업 시간을 차지하려는 포식성향의 경향이 교과 전문가 집단에게는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앙 집중식 결정이 갖는 폐단 중 경직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여러 모로 분석될 수 있지만, 교과 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하게 주목되는 것은 기존의 결정이 가져오는 경직성 때문에 다음 주기의 개정시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들일 여유가 거의 생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교과목에 대한 결정이 한번 이루어지면 중앙 집중식인 경우, 이 결정에 대한 적용을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일제히 받고 있기 때문에 교과목별 교사가 교육 과정 편성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배치된다. 차기 교육 과정 때 어느 특정 교과목의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그것은 곧바로 교사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별히 시간을 줄일 경우 해당 과목 교사의 감축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 결정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하다. 첫째는 교과목 편제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교과 전문가들의 포식 성향에 지배를 받아 적어도 학교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과목이 공통 필수 과정으로 부과되도록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고등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그들 각자의 탐색적 전문 교육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이 실제로 있는가를 보면 현행 편제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제2 외국어, 실업 가정 과목 이외에는 다 필수 과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를 교과목에 해당하는 교사를 마련해 놓고 있는 마당에 이들 교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교과목 편제상의 개선은 거의 어렵게 되어 있다. 둘째 이유는 교육 과정의 개정이나 변화에 따라 교사도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제도의 미흡이다. 서구 선진국들 경우에는 한 교사가 두 과목 이상의 교원 자격증을 갖도록 장려하고 있고, 연수 과정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수의 변동, 새로운 교과목의 신설이나 통합 과목의 발생 등을 감안하여 교사가 교육 과정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와 능력을 교직 소양의 한 요소로 갖추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 나라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교원 수급의 애로 때문에 "차기 교육 과정 개정 때 고려하기로 하고"라는 조건 아래 뜯어고치지 못한 채 불합리한 교과목 편성을 답습해 온 분야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학교 및 일반 교교 직업·가정 교과목 안에 자리잡고 있는 산업 관련 과목이다.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는 엄청난 변모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공·상·수산·가사의 고식적 과목 분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통 필수 과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기술 과목과 이들 과목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가정 과목과 가사 과목은 그렇게 분리해 낼 수 있을 만큼 다른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여지는 많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70년대에 이러한 과목들을 정리했으나 우리는 교원 수급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해결을 아직 요원하게 보인다.

지금까지 고등 학교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고등 학교 교육의 성격과, 교과 전문가 주도의 중앙 집중식 결정이 갖고 있는 경직성의 문제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교육 과정의 개정은 우리가 희원하는 새로운 목표의 설정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 기술적 조작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교육 과정의 결심과 그 적용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예컨대 교과 전문가, 문교 관리, 교사, 학부모, 사회 지도자 등의 각성과 인간다움을 드높여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되풀이하여 새롭게 하려는 우리들의 점진적인 노력과 아주 드물게는 혁신적인 변화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

敎育放送 프로그램 複寫提供案內

1. 복사할 프로그램의 선정은 학기 초에 배부해드린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과목, 부제명, 방송 일자를 단위 테이프에 수록할 순위대로 구분·작성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단, 접수일 현재 방송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복사할 수 없읍니다.
2. 복사료는 TV 프로그램 1편당 (테이프 1개당이 아님) 1,400원, 라디오 10분 프로그램당 200원으로서 복사한 프로그램을 찾을 때 내시면 됩니다.
3. 복사에 소요되는 녹화용 테이프의 가격은 다음과 같읍니다. (복사용 테이프을 보내주실 경우에는 복사료만 내면 됩니다) 아울러 '87년도의 테이프 가격은 '86년도에 비해 10~15% 인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 형태	30분용	60분용	90분용	120분용
VHS	2,970원	3,190원	3,300원	3,850원
B-max	2,640원	2,970원	3,190원	3,410원

('87. 2. 1 인하된 가격)

4. 우편 또는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의 복사료 및 테이프 대금은 우체국 통상환 (지정 수취인으로 할 것)이나 다음의 온라인 계좌로 신청과 동시 송금하면 됩니다.
   서울 영동우체국 온라인 계좌번호 : 013086-0005848-11(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영식)
5. 신청시에는 테이프의 종류 (VHS 혹은 B-max) 및 몇분용 테이프을 사용하는지를 필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6. 접수 당시의 상황에 따라 작업 기간이 달라지오니 참고하기 바라며, 특정일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사유를 알려주시면 별도 작업 계획에 따라 복사해 드리겠읍니다.

보낼곳 : **13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방송본부 방송자료실
전 화 : (02) 572-2085(直) 572-5121, 572-5020

一般系 高等學校 教育課程 總論案의 改正

許 敬 哲*

Ⅰ. 序 論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고등 학교는 일반계 고등 학교, 실업계 고등 학교 그리고, 현 教育課程에는 "기타계"라고 불리어지는 특정 목적계 高等學校로 구분되어진다. 이 중 소위 인문계 고등 학교라고 항간에서 불리어지고 있는 일반계 고등 학교는 우리 나라 전체 고등 학교 수의 약 60%(974개교)를 차지하면서 우리 나라 고등 학교 유형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1986년도 문교 통계 연보). 이러한 일반계 고등 학교는 그 안에 人文·社會系列, 自然系列, 그리고 職業課程이라는 3개의 서로 다른 계열 혹은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 학교의 기본 성격과 교육의 목표가 실업계나 특정 목적계 고등 학교의 기본 성격이나 목적과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明確히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교육법 제 104 조는 "고등 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教育의 基礎 위에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고등 학교 교육의 전반적 목적을 陳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목표로서 105조에 1) 중견 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성능 함양 2) 국가 사회에 대한 이해와 비판력 함양 그리고 3) 민족 사명 각성, 체위 향상, 진로 결정, 일반 교양 함양 및 전문 기술 습득 등의 3개 항목이 기술되어 있다.

교육법 제 104 조와 105 조는 위와 같이 고등 학교의 基本性格과 目標를 고등 학교의 유형과는 관련 없이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一般系 高等學校에만 해당되는 교육의 목표나 성격을 찾아 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104조와 105조는 일반계 고등 학교 교유의 기본 성격과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는 充分히 提供하고 있다. 중견 시민 양성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 자아 완성에 필요한 인문 교양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학문 탐구에 필요한 학문 준비 교육 등이 일반계 고등 학교의 기본 性格이요 目標라고 상정해 볼 수 있다.

第5次 一般系 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을 改正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반계 고등 학교의 기본 성격과 목표에 비추어 현행 교육 과정의 問題點을 진단하고 주어진 가능한 조건의 範圍 내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을 緩和·改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지난 1月부터 5月까지 5개월 동안 연구자들이 문제로서 認識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개정의 대상 항목들, 그 문제들을 解決하는 데 동원된 원칙이나 방침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到達·合意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시안에 반영된 이러한 개정의 항목들은 교육 과정 최종 결정 기관인 文敎部의 여러 절차를 걸쳐 재수정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들임을 부언해 둔다.

* 教育課程研究部·教育課程研究室長·哲博

Ⅱ. 一般系 高等學校 敎育課程 總論改正의 內容

1. 敎科目數의 縮小調整

현행 일반계 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정열을 이끌어 간 問題意識은 현행의 고등 학교 교육이 위에서 진술한 일반계 고등 학교 교육의 기본 성격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차분하고 냉정한 이론적 분석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나라의 고등 학생들이 터무니 없이 過重한 授業의 질곡 아래 찌들어져 가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현장 교육자들의 절규에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 초·중등 학생들의 수업의 양이 과다하여 學習量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4차 개정시 개정의 원칙으로 채택되었을 뿐 아니라 끝번 제5차에서도 하나의 重要原則으로 선정된 방침이었다. 이 원칙은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내려와 그러면 어떤 과목들을 얼마나 縮小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언제나 유산되어 본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는, 지켜지기 어려운 원칙들 중의 하나였다.

학생들이 履修해야 하는 전체 단위수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수 과목 수 만을 축소하여 적은 과목수를 깊이 있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가르치는 것이 적은 단위수로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것보다 과연 학생들의 학습에의 心理的·精神的 부담을 감소시켜 주느냐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또한, 오늘의 학생들이 授業에 시달리는 것은 과목수와 시간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社會文化의 구조적 특이성에 기인한 入試制度 문제 때문이 아니냐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현행 교육 과정에 의해 학생들에게 賦課되는 과목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져야 한다는 要求는 현행 교사, 교육 행정가, 학생들 자신, 그리고 필자를 포함한 교육 연구가들의 共通된 意見이었다.

이수 과목수를 縮小 調整하는 방법으로는 특정 교과목을 삭제하거나, 혹은 둘 이상의 교과목을 단일 혹은 그보다 적은 교과목으로 통합하거나, 또는 교과목의 수에는 變動이 없으나 필수 교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개정 작업에서는 統合의 方法과 필수를 選擇으로서 전환 방법을 사용하여 현행 편제표상에 명시된 30개 교과목을 24개의 교과목으로 縮小 調整하였다.

사회 교과에서 '사회 Ⅰ', '사회 Ⅱ'를 '社會'로 '지리 Ⅰ' '지리 Ⅱ'를 '地理'로 통합함으로써 편제상으로는 4과목을 2과목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과학과에서 '물리 Ⅰ' '화학 Ⅰ' '생물 Ⅰ' '지구과학 Ⅰ'을 共通必須에서 인문·사회 계열만의 선택 필수로 전환시킴으로써 자연계열은 이 네 과목을 履修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 현재의 '물리 Ⅱ' '화학 Ⅱ' '생물 Ⅱ' '지구 과학 Ⅱ'에 해당되는 4개의 과목만을 이수하게 되어 4과목이 줄어든 셈이 되었다. 한편, 한문 교과도 종래의 '한문 Ⅰ' '한문 Ⅱ'를 '한문'으로 통합함으로써 편제상으로는 1과목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현행에는 완전히 자유 선택으로 되어 있는 '자유 선택'을 필수 선택으로 함으로써 1과목이 증가한 셈이므로 이러한 變化를 종합하면 결국 6개의 교과목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履修單位數의 縮小 調整

수업의 양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학습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두번째 방안은 각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축소하여 교과서 내용의 양을 줄이고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다. 여기에서 敎科書內容의 양이나 질의 문제는 각론에서 다룰 문제이고 각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調整하는 것은 총론의 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특정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적절하느냐를 決定하는 문제는 참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이다. 한마디로 모두가 首肯할만한 만족스런 객관적 준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간을 確保하려는 교과간의 세력 다툼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결과는 이수 단위수의 膨脹, 교과서 분량의 과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 난이도의 심화 趨勢 등으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를 촉진하기

보다는 저해하는 요인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敎育課程에 의하면 우리 나라 일반계 고등 학교 학생들은 주당 34~36시간에 해당하는 204~212단위를 3년간에 걸쳐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중학교 학생과 같은 水準이며, 이 기준에 위해서만 判斷한다면 외국에 비해서도 결코 많은 시간양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로 浮刻되고 있는 수업 시간수의 과다 문제는 교육 과정상에 나타난 이수 단위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敎育課程을 실천하는 데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勘案한다면 고등 학교의 총 이수 단위를 줄인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 과정상에 명시된 履修單位를 축소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수 단위의 축소보다는 교과서 양의 縮小와 難易度의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보다 유효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전체 이수 단위수가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시간의 양으로만 따진다면 본 개정 작업에서의 單位數 調整은 학생의 부담 경감을 지향하여 遂行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교과간의 균형 문제, 각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興味와 必要性 등에 대한 현행 교사, 교육 행정가, 교과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한 좁은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라는 편이 보다 적절하다. 개정의 내용은 우선 國語科와 數學科의 경우, 최대 단위수를 2단위씩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고등 학교 수준에서 國語, 數學에 시간이 많이 배당되었으며 의미없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학생들의 의견과 이러한 도구 과목의 시간을 減縮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완곡히 반영한 결과이다. 교련 교과의 경우에는 2단위를 縮小하여 현행 12단위에서 10단위로 조정하였다. 본 작업에서의 교련 교과의 축소 요구만큼 모든 사람들의 意見이 합치된 항목은 없었다. 단위수를 상향 조정한 교과는 社會, 體育, 保健 및 자유 교양이다. 사회 교과의 경우 일반 사회 과목을 인문·사회 계열 내에서 2단위, 세계사 과목을 자연 계열에서 2단위 그리고 체육·보건 과목이 2단위, 자유 교양을 2단위씩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일반 사회 과목을 2단위 상향 조정한 이유는 一般社會科目이 다루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현장에서는 현재 주어진 최대 단위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점, 그리고 현 國家施策으로 특히 강조되고 있는 經濟에 관한 교육을 교육 과정상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강하게 反映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 등을 최소로 고려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재 8~12로 되어있는 단위수를 10~12로 조정하여 최소 단위수를 2단위 증가시켰다. 世界史의 경우는 현재 자연 계열에 배당되어 있는 2단위로는 세계사의 基本槪念을 최소로 가르치는 데에도 절대적으로 시간이 모자란다는 현장 교사 및 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에 따라, 자연 계열에서 현행의 2단위를 4단위로 조정했다. 체육·보건의 경우는 배당된 단위수가 주요 외국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적고,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건전한 餘暇生活 및 健康生活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체육·보건 단위수 증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요구가 절실한 것은 아니므로 上向調整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

3. 學校水準에서의 敎育課程運營 自律性 範圍의 擴大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 과정에 관한 모든 결정이 거의 中央政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교육 행정 기구나 일선 학교는 상부의 결정 사항을 施行하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이러한 中央集中式 교육 과정 결정 방식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획일성, 경직성, 비자율성 등이라는 심각한 결점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敎育課程 결정 방식에서 지방 분권식을 採擇하고 있다. 정치에서의 지방 자치제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교육 과정 결정은 멀지않은 미래에 地方分權的 方式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모두 갖고 있다.

교육 과정 운영에서의 자율권은 궁극적으로는 학교 및 학생이 敎育課程 관련 사항 등을 얼마나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느냐의 정도에 달려 있다. 본 硏究事業 초기에 연구자들은 자율성 확대라는 이 원칙을 이수 과목수의 축소 조정이라는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改正의 原則으로 정하고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다양한 현실적 條件들은 敎育課程運營 자율의 가능성을 여러모로 제한하여 결국 시안에 제시된 자율의 항목들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制限된 여건에서나마 금번 개정에 반영된 몇 가지 自律擴大項目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육 과정에 의하면 각 학교는 실업·가정 교과의 選擇科目으로서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업, 가사·실업의 5과목 중 한 과목을 택하고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교과서 한권을 중심으로 하여 가르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現代 및 未來社會에서는 이렇게 분류된 실업·가정 교과의 과목 및 과목의 내용들이 그 타당성을 결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었다. 따라서, 실업·가정 교과 편제의 전면적 개편이 要求되었지만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연구의 제한 조건들 때문에 전면 개정은 保留하고 "실업·가정 교과의 선택 과목의 내용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실업계 고등 학교의 전문 교과의 내용으로 代置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수정·보완하였다. 이는 학교 수준에서의 과목 내용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自律性 擴大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업·가정 교과의 필수 선택 과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과목을 新設, 添加시킴으로써 학교(또는 학생)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대상이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현행에서는 기술과 가정, 두 과목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情報産業'이라는 새 과목을 첨가하여 기술과 가정과 정보산업의 3과목 중 한 과목을 選擇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세째, 각 교과의 교과서는 敎育課程 편제표에 급간 형식으로 표시된 이수 단위수 중에서 최소 단위에 맞추어 제작될 것을 명하고, 특정 학교가 어느 特定科目을 최대 단위로 가르칠때는 필요한 보조 학습 자료를 개발·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이다.

4. 編制表에서 共通必須欄의 除去

흔히들 문교부 고시로서의 「교육 과정」에서의 핵심은 편제표라고 한다. 이것은 편제표 그 자체로서 고유한 의미를 띄우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편제표 안에 가르쳐야 할 敎科目의 종류 및 이수 단위수 등 교육 현장에 가장 구체적으로 影響을 미치는 사항들이 결정되어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편제표의 내용이지 그 형식은 아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형식에 의해서 내용이 영향을 받으며, 형식 자체가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사실들을 종종 經驗한다. 본 개정 작업에서는 처음부터 현행 편제표의 형식에 문제를 느끼고 그 改善方向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왔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편제표에서 共通必須欄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공통 필수 과목의 일원화 문제였다. 이 문제는 일반계 고등 학교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나 實業系 및 特定目的系까지 고려할 때는 그대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문제였다. 일반계만을 고려할 때도 실업 및 특정계의 편제까지 일반계 편제와 한 표에 提示되어 있기 때문에 편제표 자체가 복잡하고 해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共通必須科目을 일원화하는 문제는 편제표를 간단 명료하게 하고 공통 필수과목의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짓는 일 등과 관련된 重要硏究問題였다.

그러나,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공통 필수 과목을 일원화하는 문제보다는 현행 편제표에서 공통 필수난을 削除하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공통 필수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槪念規定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어떤 교과가 공통 필수라는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의 다툼이 종식되었으며 편제표의 해독이 훨씬 용이해졌다. 뿐만 아니라

계열별로 계열의 특성에 보다 適切하도록 교과의 내용을 선정·조작하는 일이 可能해졌다. 따라서, 본 개정에서는 형식에 관한 항목으로 편제표에서 공통 필수단을 제거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개정의 내용으로 부각될만하다.

Ⅲ. 結 語

이상으로 제5차 고등 학교 교육 과정 개정 작업에서 일반계 고등 학교의 총론이 어떻게 改正될 것이며, 개정의 이유, 목적, 의의 또는 방침 등이 무엇이었는가를 간략히 記述하였다. 본고에 기술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필자의 글 앞에 게재된 다른 필자의 글의 내용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一般系 高等學校의 총론이 고등학교 전체 총론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부언할 점은 본고에 기술한 改正의 項目이나 內容들이 이 글을 쓰는 단계 이후에도 여전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韓國敎育開發院 수준에서 시안 개발 작성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완료되어 文敎部 主務部署에 제출된 시안의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變更·修正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現場敎育相談

學習問題와 授業目標의 區別에 대하여

(問) 學習問題(공부할 문제)와 授業目標를 학교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구별지을 것인가요?

(부산·하서 국민 학교 교감·김 주호)

(答) 학습 문제를 말 뜻대로 받아들여 '학습할 문제'라고 해석하고 문제에 집중하여 의문문 형태로까지 교실 칠판에 써주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學習問題는 '학습할 거리'와 같다고 보고, '……하기'로 제시하기도 한다. '문제'라는 용어의 다의성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데, 敎師의 입장에서 보아 정해진 40분의 시간을 학생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하며 보낼 것인가로 생각을 하면, 의문문 형태로만 또는 '……하기'로만 진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교사와 학생이 이 시간을 무엇을, 어떻게 하며 보낼 것인가를 분명히 해 두는 방식이면 된다.

學習目標라고 했을 때는 학습자 중심이 되고 授業目標라고 했을 때는 교사 주도 수업이 된다고 언어 연상에 의존한 해석은 삼가야 한다. 교사와 학생은 공존의 입장에서 공동 목표를 두고 授業活動이건 學習活動이건 간에 어떤 행동을 한다. 행동적 수업 목표 진술이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것은 교사도 최소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분명히 해 두려는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 때만 행동적 수업 목표를 '행동적 학습 목표'라고 불러도 된다. 단지, 일정 단위의 학습(교수) 활동이 끝난 뒤에 평가해 보는 '자기 반성'의 기회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평가를 위한 敎授-學習活動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학습 문제라고 했을 때도 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授業目標라고 했을 때도 형성 평가가 '자기 반성'의 기회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 도달의 기준 설정 때문에, 더우기 그것이 관찰 가능한, 따라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 때문에 음악, 미술, 도덕 그리고 다른 교과의 태도 변화 영역에서는 行動的 目標陳述을 조심해서 쓰고 있다.

요약컨대, 학습 문제와 수업 목표를 한데 묶어 '敎授-學習目標'로 하고 이 시간 40분을 어떤 내용(무엇)을, 어떻게 하며, 얼마 만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보낼까'를 교사와 학생이 확인할 수 있게 提示되면 된다. 물론 이런 진술은 교과마다, 또 한 교과에서도 단원의 성격과 차시별 계획에 따라 基準設定에서 다를 수가 있다.

(本院 首席硏究員·哲博 박 문태)

國民倫理科 敎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文 龍 鱗*

國民倫理科 敎育課程을 改正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考慮되어야 할 事項은 그간의 社會·文化的 狀況에서 발생했고 提起되었던 道德的·理念的 문제에 대한 검토일 것이다. 왜냐하면 敎育的 變化의 계기는 무엇보다도 그 동안의 敎育에서 누적된 문제점과 그로 인한 改善에 대한 열망에 의해 성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5차 國民倫理科 敎育課程 改正의 必要性은 國家·社會的 要求와 학계를 비롯한 교육 관계자, 그리고 학부형과 학생들의 요구 및 지금까지 현행(4차) 敎育課程과 敎科書를 운영한 결과로 나타난 諸般 문제점에 대한 改善要求로부터 도출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필요성(요구와 문제점)에 대한 부응이 바로 國民倫理科 敎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이라 하겠다.

國民倫理科 敎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을 要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자율화·개방화 추세 및 급변하는 未來産業社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時代的 要求를 반영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개방화와 자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는 자율 능력을 배양하고 産業化의 진전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가지 가치 문제, 葛藤要因(분배, 노사, 복지, 인권 등)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둔다.

둘째, 통일·안보 및 이념 교육을 내실화한다. 특히 전면적 긍정과 전면적 부정이라는 흑백 논리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사상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올바로 인식하여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한다.

세째, 교육 내용 선택의 다양화와 민주화를 통해 國民倫理敎科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용 영역 간의 水準과 量 등을 재조정하며 지도 내용의 체계화와 통합화를 시도한다. 아울러 지도 내용을 상세화한다.

다섯째, 효과적인 學業成就를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교육 방법의 효율성 문제는 어느 교과에서나 중요시하는 문제이나 특히 국민 윤리과(도덕과)의 경우에는 교과 특성상 내용과 교수 방법 간의 葛藤이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4차 改正時에 의도했던 내용과 방법간의 일관성 유지 문제는 5차 개정시에도 더욱 補充·探化되도록 하며,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評價方法이 제시되도록 한다.

이외에도 이번 5차 교육 과정 개정에서는 타 교과(특히 社會科, 敎練科)와의 내용 중복 문제, 中學校 道德敎育과 大學의 國民倫理敎育과의 연계성 문제, 反共關聯 내용의 배열 문제 등과 같은 제반 문제점들이 고려될 것이다. ——◈

* 敎育課程硏究部·道德敎育硏究室長·哲博

國語科·漢文科 敎育課程의 基本方向

盧 命 完*

현행 高等學校 國語科와 漢文科 교육 과정은 각각 Ⅰ과 Ⅱ로 구분, 구성되어 있다. 국어 Ⅰ은 국어과의 교육 과정 領域을 〈표현·이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으로 구분하고, 이 모든 영역을 "국어"라는 한 권의 敎科書에서 다루며, 국어 Ⅱ는 〈현대 문학〉, 〈작문〉, 〈고전 문학〉, 〈문법〉의 영역을 각각 별도의 교과서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漢文科는 한문 Ⅰ과 Ⅱ에서 고등 학교 한문 교육용 基礎漢字 900자를 중심으로 한자, 한자어, 한문을 지도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협의 과정을 거쳐 고등 학교 국어과 및 한문과 교육 과정 구성의 기본 방향이 確定되겠지만, 현행 교육 과정의 分析, 학교 현장에서 발견되는 교육 과정 실행상의 문제점, 그리고 전년도에 硏究·開發된 초·중학교에서의 국어과와 한문과 교육 과정을 고려하여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등학교 국어과 및 한문과 교육 과정의 개발·연구는 다음의 問題點들을 개선하는 데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國語科 및 漢文科 공히 Ⅰ과 Ⅱ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Ⅰ과 Ⅱ에서 다루어야 할 領域의 합리적인 구분, 다루어야 할 목표와 內容選定의 체계화 등을 포함한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Ⅰ과 Ⅱ 사이에 영역의 구분, 목표와 내용의 선정, 내용 수준의 위계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현행 교육 과정은 학교의 계열이나 전공 과정에 따라 Ⅰ과 Ⅱ의 이수 단위수 비율이 다르기는 하나 실제 學校現場에서는 국어과나 한문과의 Ⅱ는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Ⅰ과 Ⅱ 구분의 근본 취지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實踐되지 못하고 대학 입시의 비중에 맞추어 과행적으로 운용됨을 뜻한다. 大學入試에서의 문제점 개선과 함께 보통 교육으로서의 Ⅰ과 深化敎育으로서의 Ⅱ의 비중이 단위수의 적정 조정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무엇보다도 먼저 고등 학교에서의 국어과와 한문과의 교과 성격이 보다 분명히 규명되고 이에 따른 교육 과정의 개발이 要請된다. 이는,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강조되어 왔던 (국)어학적 및 (국)문학적 지식 개념, 원리 등 학문적 성격으로서의 국어 교과와 일상 생활에서의 意思交換 및 지적 능력 계발 등 언어 사용의 실용적 도구적 성격으로서의 국어 교과에 대한 分析을 뜻한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은 곧바로 국어과 교육의 목표 설정, 교재의 구성 방향 그리고 指導方法의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문과의 경우도 교과의 기본 성격이 보다 明確히 탐구되어야 한다.

네째, 國語科와 漢文科 모두 각 교과의 이차적 목표라 할 수 있는 태도 및 價値觀의 교육이 교육 과정 개발에서 함께 考究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어과 및 한문과 모두 지금까지 널리 認識되어온 "재미없고 딱딱한 입시 준비 교과"에서 모든 학생들이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교과로 그 印象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 과정, 교재, 교수-학습 방법에 變化가 요청된다.

* 敎育課程硏究部·國語敎育硏究室長·哲博

數學科 教育課程의 基本方向

全 平 國*

Ⅰ. 改正의 必要性

學校數學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認知發達에 알맞는 數學的 知識(mathematical knowledge)을 획득시키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수학적 지식이라 함은 수학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한 直接的인 知識(수학적 사실, 기능, 개념, 원리)과 數學的 思考를 통해 획득되는 間接的인 知識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戰略的 知識(strategic Knowledge)을말한다.

만약, 학교 수학이 수학의 直接的인 知識의 전달에만 강조를 둔다면 학생들은 수학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며, 배우는 대상 학생이 극히 제한되게 된다. 그러나 수학적 지식의 有用性이 학교 수학에서 강조될 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학생의 요구에 부합되며, 배우는 대상 학생이 제한되지 않는다. 사실 과학 기술 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수학적 지식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Ⅱ. 改正의 基本方向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제5차 교등 학교 수학과 교육 과정 개발은 현재의 교육 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考慮하여 修正,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1. 科學技術時代의 對備

昨今의 세계적인 추세는 학교 수학이 컴퓨터의 활용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豫見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에 대한 교과목이 별도로 신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 수학에서 computer literacy와 prgramming에 대한 기초적인 지도와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 방법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 수학에서 computer가 지도되고 활용될 때 확률과 통계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2. 多樣한 學生의 能力과 欲求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진로를 고려할 때 수학에 대한 욕구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욕구에 맞게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최소의 중핵적인 내용과 선택적인 내용(응용 수학면에서)으로 선정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3. 問題解決의 强調

戰略的 知識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이 지식의 획득이 강조가 되어야 하며, 또한 실 생활의 문제 해결에 轉移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大學入試의 影響 考慮

현실적인 문제로 대학 입시가 학교 수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습 분량과 수준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의 기초 기능이 획득될 수 있도록 충분한 指導時間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 教育課程研究部·數學教育研究室長

社會科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崔 錫 珍*

Ⅰ. 社會科 教育課程 改正의 必要性과 改正方向

우리 나라 高等學校 教育은 진학률의 증가로 國民教育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社會科教育의 급격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다양하게 대응하며, 참되고 책임 있는 民主市民으로서의 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資質을 갖게 한다는 目標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産業化, 都市化, 國際化의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 學界의 새로운 研究成果가 쌓이고, 國民들의 社會科 및 國史科에 대한 또 다른 要請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들 狀況을 反映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학문의 綜合的 내용과 學際的 接近(interdisciplinary approach) 성격을 가진 사회과가 여러 가지 事實 暗記中心의 教授-學習方式에서 탈피하여 특히 학생들의 思考力을 伸張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고등 학교 사회과 및 국사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社會의 時代的 要求에 부응하며, 未來社會의 主人公으로서의 새로운 人間像을 구현하는 데 주력한다. 교육 과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能動的인 創造者가 되도록 적절한 知識教育뿐만 아니라 價値觀 및 情意的 영역에 비중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종전의 지향 방향을 재정립하고, 體制上의 改善을 期한다. 특히 지난 4次 교육 과정 시행에서 나타난 교과목들의 명칭·지도 내용과 범위 및 조직, 다른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 문제 등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한다.

세째, 指導方法의 具體化를 시도한다. 지금까지 다양히 제시된 社會科 教授方法 改善努力이 實效性을 거두도록 교육 과정의 구성과 진술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Ⅱ. 論議 및 改正되어야 할 內容

社會科에서 특히 論議 및 改正되어야 할 점은 먼저, 履修 單位와 관련된 편제 부문이다. 그간의 교육 과정 改正過程에서는 우리 나라 특유의 國策科目과 必修科目을 지정하고 때로는 새로운 教科가 登場하면서 教育課程을 改編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사회과에 영향을 주어, 사회과 본래의 領域에 속했던 教科들이 편제상에서 分離·獨立되어 나가고, 나머지 사회과 教科目은 相對的으로 萎縮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점증하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포괄·수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各教科目制로 履修單位數의 적절한 확보와 經濟教育, 環境教育과 앞으로 展開될 地方化時代에 대비한 地域化의 强調 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이다.

그리고, 고등 학교 全系列의 學生들에게 國際化 時代에 대비해서도 강화해야 할 社會Ⅱ, 世界地理, 世界史 教育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改善해야 된다는 점이다. ——◈

* 教育課程研究部·社會科教育研究室長

科學科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權 致 純*

Ⅰ. 教育課程 改正의 必要性과 改正方向

우리는 현재 一般高等學校 教育에서 科學·技術의 振興이라는 國策 아래 科學教育의 內實을 기하기 위하여 科學教科目을 物理Ⅰ, 物理Ⅱ, 化學Ⅰ, 化學Ⅱ, 生物Ⅰ, 生物Ⅱ, 地球科學Ⅰ, 地球科學Ⅱ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人文·社會 과정은 4과목의 Ⅰ과정을, 그리고 自然 과정은 4과목의 Ⅰ·Ⅱ 과정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學校授業은 學力考査에서의 科學 과목의 경시, 과학 중 일부 과목의 편중된 선택 경향, Ⅰ·Ⅱ 과정의 구분의 이수 혼란, 學習內容의 過多, 實驗施設의 미비 등 여러 가지 교육 여건으로 인하여 원래의 目的과 趣旨에서 벗어나 강의 및 암기 위주의 科學授業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科學科 教育課程 運營에 많은 問題點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現行 高等學校 科學科 教育課程이 안고 있는 제반 問題點을 綜合的으로 진단하여 學生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科學文化의 보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 科學科 教育課程을 設計할 필요가 있다.

高等學校 科學科 教育課程의 改正方向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科學 教科目의 편제와 이수 단위를 조정하여 科學의 教養的인 면과 專攻 준비 과정을 內實化하도록 한다.

둘째, 個人的, 社會的 및 教育與件의 變化를 반영하여 學習內容의 水準과 分量을 알맞게 조정한다.

세째, 教授-學習方法, 教授-學習資料 및 評價의 指針 등을 보다 具體的으로 제시하여 科學的 探究學習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네째, 科學에 보다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科學史, 實生活에 관련된 問題, 첨단 과학 및 풍부한 정보와 자료를 제시한다.

Ⅱ. 論議되어야 할 內容

지금까지 現行 科學科 教育課程의 運營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학교 교사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교육 과정 개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과학 교과목은 인문 사회 과정에서 4과목, 자연 과정에서 8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科學教科의 편제는 적절한 것인가?

둘째, 현행 科學科 교육 과정의 내용 수준과 학습 분량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세째, 고등 학교 학생의 과학적 탐구 능력을 보다 더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네째, 학생들이 과학을 흥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밖에도 과학과 사회, 과학과 기술, 진로, 실생활 및 첨단 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있다.

* 教育課程研究部·科學教育研究室長·理博

音樂科 敎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黃 炳 勳*

Ⅰ. 敎育課程 改正의 必要性과 改正方向

사람들은 현대를 단절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기계화의 시대, 인간성 상실의 시대, 또는 물질 만능의 시대 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모두 科學技術의 급속한 발달에 밀려 인간이 그 본연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敎育界는 물론 범사회적으로 인간성의 보전과 회복을 熱望하기에 이르렀고 교육 현장은 個性的, 主體的, 創造的인 인격 형성을 그 최대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음악 교육은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役割을 遂行할 수 있다. 그것은 음악과 교육이 인간 형성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감성적, 지성적, 주체적, 개성적, 창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꾀하려는 努力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학교 음악 교육은 질적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전인 교육의 중대한 役割을 담당할 學校音樂敎育에 대해 사회적, 개인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또한 개개인의 음악 예술을 통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학교 음악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4 차례에 걸쳐 개정된 음악과 敎育課程은 개정될 때마다 그 시대의 사회적, 학문적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였다고 하겠다. 第5次 敎育課程 改正 작업에서도 현시대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함은 물론 질 높은 학교 음악 수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질 높은 음악과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基本方向을 두어야 하겠다.

Ⅱ. 論議되어야 할 內容들

第4次 音樂科 敎育課程에서는 영역 설정을 기본 능력(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 표현 능력(가창, 기악, 창작), 감상 능력으로 구분하여,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에서 기본 능력의 여러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統合하여 指導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통합의 방법이 무시된 채 오히려 細分化하여 지도. 평가함으로써 指導內容이 과다해지고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제5차 교육 과정에서는 영역을 통합 조정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 나라 전통 음악의 내용도 지도상의 유의점에 각 領域의 모든 학술 활동 속에서 충분히 다루도록 제시되어 있으나 현장 敎師들은 傳統音樂에 대한 내용 요소들을 교육 과정 내용에서 학교 급별 수준에 맞도록 보완하여 주길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과정의 목표, 내용, 평가 등의 진술 형태를 抽象的인 용어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 목표의 용어로 陳述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敎育課程硏究部 · 硏究員

體育科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金 用 煥*

Ⅰ. 教育課程 改正의 必要性과 方向

현대인은 정보 산업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生活環境의 오염, 文明利器의 위협, 人間性 喪失과 만성적 질병으로 건강(Well-Being)에 많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건강한 삶에 대한 개인적 욕구의 증대와 건강한 사회 건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건강을 실현시킬 수 있는 體育에 대한 價値認識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經濟發展에 따른 教育與件의 조성과 정치적 변화에 의한 地方自治制 실시 등은 새로운 教育課程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 체육 교육 과정은 전통적인 운동종목(Sport Unit)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國家·社會的 變化와 학문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1981년 12월에 공포된 제4차 교육 과정은 그 개정의 週期를 맞게 되었다.

어러한 개정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고등 학교 체육과 교육 과정 開發研究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평생 스포츠(Lifetime Sport)의 강화

지난 40년 동안 高等學校體育은 단체 경기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졸업 후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個人 및 對人競技의 프로그램을 提供해야 한다.

●건강과 관련된 체력 육성

일반 대중의 활력적인 삶을 위한 체력 육성에 대한 關心이 날로 고조되고 있어 조깅, 에어로빅 댄스, 조직적인 신체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개념적 접근(Conceptual Approaches)

학생은 교실에서 자신의 體育活動에 대한 정보를 얻어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이를 적용하고 실험을 해보고 체육을 왜, 무엇을, 어떻게하는 것인가를 이해하도록 教育課程을 구성한다.

○선택적 프로그램의 제공

지금까지의 교육 과정은 학생이 싫어하는 운동 종목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기간에 자신이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활동을 選擇하도록 한다.

Ⅱ. 論議되어야 할 問題

교육 과정의 개정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많으나 주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教育課程의 定義問題 Tyler(1949)의 "學習理論의 選定과 組織"이나 또는 Bruner(1960)의 "知識構造"라는 교육 과정 정의는 오늘날 교육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가?

둘째, 체육은 教育目標達成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신체 활동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세째, 체육의 知識構造는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는가?

네째, 체육은 어떻게 구성되어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教育的 體系問題.

다섯째, 현행 教育課程은 체육 외 教育情報 원천인가? 아니면 가르쳐져야 할 최소한의 것인가?

그 밖에도 많은 "?"가 연구자의 머리에 맴돈다.

* 教育課程研究部 · 研究員

特輯 第5次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開發

美術科 教育課程의 基本方向

尹 亮 熙*

高度로 발달된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사람의 制御를 벗어나 인간을 지배하고 단순화 또는 유형화시키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여, 自己疏外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인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人間性을 위협하는 要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知的인 교육보다는 情意的 영역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미술 교육은 사람들에게 삶과, 주변 환경을 새롭게 보는 방식을 가르쳐 주고 현실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 준다. 高度의 經濟成長과 더불어 문화적으로도 세계와의 간격이 좁혀짐에 따라 美術教育의 방향도 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미래 사회의 기계적이고 혼란하며 분해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화롭고 창의성이 뛰어난 人間의 育成을 미술 교육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미적 경험을 통하여 個人이나 民族의 主體性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나라 美術의 傳統性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계승함은 물론 새로운 美術思潮를 수용하여 民族美術을 暢達시켜야 할 것이다.

教育課程은 사회적, 학문적, 사상적, 제도적 要因의 변화에 의하여 항상 時宜性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술 교육 자체에 대한 변화 요인이 없다고 해도 최근 사회, 경제, 과학, 기술 기타 문화적으로 가속적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教育課程의 재검토를 통한 수정 또는 보완의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현행 美術科 教育課程이 1981년 개정 고시된 후 5년여의 적용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평가하여 개선·보완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5차 教育課程의 試案을 개발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教育課程의 정신을 유지·발전시키되 그 동안의 현장 적용에서 나타난 문제점, 효율성 등을 논의한다.

둘째, 교과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領域을 구분하는 문제
- 학습량의 조절
- 지도 내용의 수준
- 초·중학교와의 연계성 등

세째, 교육 과정의 陳述에서 用語의 適切性, 의미 전달의 모호성 등의 문제점을 분석 보완한다.

네째, 領域의 再配列을 통한 내용 구성 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일선 학교에서 현행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을 살려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實態調査를 통하여 개정의 자료로 삼는다.

여섯째, 미술과의 목표가 現代美術教育의 흐름에 부합되고 우리 나라의 교육 이념 구현에 적절한가 등을 분석한다.

일곱째, 우리 나라의 傳統文化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을 강화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 착안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진술의 교육 과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 教育課程研究部·研究員

特輯 第5次 高等學校 敎育課程의 開發

外國語科 敎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崔 震 晃*

Ⅰ. 敎育課程 改正의 必要性

세계가 科學文明의 발달로 하나의 마을로 변모해 감에 따라 外國語敎育의 필요성이 더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왔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들어 이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조기 영어 교육을 허용하게 되었다. 외국어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교사의 자질, 評價方向, 敎育環境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겠지만 본고에서는 교육 과정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방향을 探索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까지의 외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 구성이 문법적 교수 요목(grammatical syllabus), 상황적 교수 요목(situational syllabus) 의미 기능적 교수 요목(notional-functional syllabus)에 대한 연구의 미흡으로 이들의 좋은 점을 교육 과정에 다 반영시키지 못했다.

둘째, 교육 과정이 상세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교과서 執筆者들에게 집필의 방향 제시 및 지침이 되지 못했으며 現場敎師들에게도 학습 목표, 내용 구성, 지도 방법, 평가 및 학습 자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하나의 敎育課程을 기준으로 검인정 교과서를 쓸 경우 目標水準, 내용 및 방향에 있어 각각의 교과서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세째, 교육 과정에 제시된 자료에 기초 연구가 미흡한 감을 준다. 하나의 예로 '기본 어휘표'의 경우 기본 어휘를 결정하기 위해서

① 빈도(frequency), ② 발생 범위(range) ③ 가용성(availability) ④ 치환성(coverage) ⑤ 습득 용이성(learnability) 등에 대한 基礎硏究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외국어 교육의 2대 목표 중에 외국 문화 이해에 대한 큰 항목이 들어 있으나 내용 및 評價方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어 현장 수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Ⅱ. 改正方向 및 內容

첫째, 敎育課程의 內容構成을 상황적 교수 요목을 바탕으로 문법적 교수 요목과 개념, 기능적 교수 요목을 잘 절충시킴이 이상적이다.

둘째, 敎育課程을 현재보다는 조금 더 상세화시켜 교과서 집필자에게는 교과서 집필의 명확한 지침이 되게 하고 현장 교사들에게는 學習指導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세째, 敎育課程에 제시할 내용은 충분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네째, 外國文化 理解 및 우리 문화 소개에 대한 외국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內容選定 및 評價方法을 제시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외국어로 意思疎通을 할 수 있도록 목표 및 내용의 수준을 조정한다. ——◆

* 敎育課程硏究部・外國語敎育硏究室長

實業·家政科 敎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尹 仁 卿*

Ⅰ. 敎育課程 改正의 必要性

實業·家政科 敎育課程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改正되어 왔는데 現行 敎育課程(1981)에 의하면, 必須인 産業技術과 家政, 選擇인 農業, 工業, 商業, 水産業, 家事의 7개 科目으로 構成되었고, 實業과 家庭生活에 必要한 知識과 技術을 바탕으로 産業社會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能力을 갖도록 하는 것을 그 目標로 하고 있다. 즉 實業·家政科는 敎科의 性格上 産業과 技術을 中心으로 한 社會變化에 큰 影響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과 같이 科學·技術의 發展 속도가 빠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現行 敎育課程은 改正된 지 6년이 經過하였고 그 期間의 變化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에 現在의 敎育課程이 未來社會에도 有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된다. 뿐만아니라 入試 위주의 敎育, 時間配當에 비해 過重한 內容의 量이나 水準, 實習施設이나 學習資料의 빈곤, 學父母의 認識 부족 등의 要因들은 實業·家政科의 正常的인 運營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敎育課程 改正에서는 2000年代의 우리 나라 社會發展을 展望하면서 科學·技術의 發展에 따른 學問의 發展을 反映하고 職業探索의 要求, 건전한 消費者로서의 能力要求 등과 같은 未來 社會의 發展을 위한 새로운 要求를 受容하며, 發展된 敎育方法이나 資料들을 敎育現場에 導入하여 實業·家政科 敎育을 改善해 보려는 데에 그 必要性이 있다.

Ⅱ. 論議되어야 할 內容과 改正의 方向

實業·家政科는 지금까지 여러 要因들에 의해서 그 重要性이 認識되지 못한 채 가장 落後된 敎科로 存續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는 各科目의 性格, 類似科目의 統合이나 새로운 科目의 新設, 選擇科目의 實質化, 時間配當의 적절성, 運營上의 問題點 등에 대한 활발한 論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길 期待하면서 다음과 같은 方向에서 硏究을 進行시키고자 한다.

첫째, 새 敎育課程은 短期間內에 改正硏究를 完成해야 하므로 基礎硏究를 위한 時間的 제약과 갑작스런 改革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4次 敎育課程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둘째, 未來 高度産業社會에서 要求하는 고급두뇌의 開發과 선진 技術 개발에 필요한 基礎 知識과 技能, 광범위한 産業世界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國民學校의 實科, 中學校의 實業·家政科 敎育課程과 연계를 갖도록 한다.

세째, 進路敎育, 컴퓨터敎育, 經濟敎育, 消費者敎育 등과 關聯되는 內容을 최대한 反映함으로써 未來社會의 變化를 受容하고자 한다.

네째, 學生과 敎師, 學父母의 意見을 反映하여 指導內容의 量과 水準을 適正化시킴으로써 現實性 있는 敎育內容이 되게 한다.

다섯째, 各科目의 모든 영역에서 實驗·實習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實習施設이나 材料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敎育課程硏究部·責任硏究員·哲博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改善方向

張 錫 敏*

Ⅰ. 教育課程 改正의 必要性

우리 나라의 教育課程은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학문의 새로운 발전을 反映하고, 사회의 발전적 요구를 수용하고, 그리고 교육의 방법을 쇄신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육 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현행 教育課程은 1981년 개정되었다. 현재의 교육 과정 개정 연구는 1989년 이후에 적용할 5차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하여 進行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 과정 개정은 2000년대의 문턱에서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準備過程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綜合해 보면, 자유 민주 사회, 풍요한 고도 산업 사회, 균형된 복지 사회, 도의적 문화 사회, 평화로운 개방 사회 등으로 묘사된다. 2000년대의 전망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發展될 수 있으며, 그렇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의 教育課程 改正은 2000년 대의 사회 발전의 요구와 展望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의 과정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認識된다.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은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인력의 양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2000년대의 社會發展을 주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科學技術의 발전 정책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 정책은 技術人力의 양성면에서 많은 變化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 개정은 특히 重要性을 지닌다고 보겠다.

Ⅱ. 現行 教育課程의 問題點

1. 實業系 高等學校의 教育目標

지금까지 실업계 고등 학교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능 인력 養成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최일선 기능인의 訓練을 담당해 왔다. 산업 현장에 즉시 投入할 수 있는 기능인을 훈련하기 위하여 3차 教育課程에서는 실기 실습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였었다. 그러나, 현행의 4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론의 비중을 높여 실습과의 비율을 50% : 50%로 만들었다. 이는 技術의 變化에 대응하여 살아 남을 수 있는 技能人의 양성을 意圖한 것이었다. 단순공으로서의 약점을 補完하기 위하여 인접 분야의 기초 기능을 폭넓게 經驗시키고 동시에 이론적 무장을 시킴으로써 産業現場의 다양한 요구에 폭넓게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인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適應力이 높은 기능인을 길러내야 된다는 요구는 産業發展의 추세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職業訓練院의 단기 과정에서 양성되는 기능공들과의 구별을 위해서도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4차 교육 과정은 실업계 고등 학교의 教育目標를 정립하였다.

4차 교육 과정에 진술된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農業系 高等學校는 중견 영농인 및 농업 관

* 教育課程研究部・職業技術研究室長・哲博

련직 종사자 양성, 공업계 고등 학교는 공업의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工業技術人의 양성, 상업계 고등 학교는 상업 및 경영의 각 분야에 종사할 유능한 인재 양성, 水産系 高等學校는 수산업 또는 해운업의 각 분야에서 中樞的인 役割을 담당할 중견 기술인 양성, 가사, 실업계 고등 학교는 실무를 효율적으로 遂行할 수 있는 기술인 및 직업인 양성 등으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교육 과정은 中樞的인 役割을 담당할 기술인, 인재 양성 등으로 실업계 고등 학교의 敎育目標를 진술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실업계 고등 학교 출신의 기능인이 과연 그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擔當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담당한다는 뜻인가?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길러 주어야 할 資質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의 觀點에서 보면 현행 실업계 고등 학교의 敎育目標 문제점은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실업계 고등 학교의 敎育的 性格과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성격과 기능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가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단순공 중심에서 多能工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자는 의도인지, 중견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수준을 격상하자는 意圖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繼續敎育의 관점에서 실업계 고등 학교를 專門大學 및 技術大學으로 이어지는 선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술 교육을 提供하는 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도 등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 목표는 그 교육적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에 맞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2. 設置學科 및 科目

실업계 고등 학교는 就業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과 기술의 訓練만이 취업을 보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學科 및 科目의 설치는 산업체의 요구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적응되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技術變化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기술의 開發이 집중적 투자에 의하여 가속화됨에 따라 어떤 기술은 學校에서 배우고 있는 동안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되는 비운을 맞게 되기도 한다. 電子産業, 機電産業(mechatronics), 신소재산업, 유전공학 등 소위 尖端科學技術의 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기술직이 새롭게 출현하는가 하면, 傳統的 技術에 의존하는 직업들은 그 수요가 급속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科學技術의 발전과 社會變動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 변동에 따라 工業系 高等學校의 철도 운전과는 폐과될 운명을 맞게 되었고, 상업계 고등 학교의 경우는 현재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 처리과 등 4개 학과로 되어 있으나 학과의 통폐합을 검토하게 되었다. 水産海運系 고등 학교의 경우는 자영 수산과의 신설이 거론되게 되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현재 실업계 고등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學科나 科目들이 현실적 요구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科學技術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産業과 社會는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敎育課程이 수시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 과정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교육 과정 자체를 산업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학과명은 包括的이고 基本的인 이름으로 붙이고, 그 속에서 다양성과 신축성 있게 과목을 設置·運營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실업계 고등 학교 교육 과정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3. 學科實習 및 現場實習

실업계 고등 학교는 就業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실무를 잘 알아야 하고, 實務技術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실업계 고등 학교는 이론보다도 實務經驗을 쌓기 위한 학과목에서의 실습과, 산업체의 현장 실습을 중요시해 왔다. 그러나, 關聯知識의 이해 없이는 실습이 비효율적으로 되거나 고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습 후에도 응용력이 배양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효과의 지속성이 매우 약하게 된다. 현행, 교육 과정은 전문 과목 이수에 있어서 50%까지의 비율을 실습에 배당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이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는 교내 실습에 있어서나 産業體現場實習에 있어서 다같이 실습 내용과 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각학과별 실습에 있어서나, 産業體 現場實習에 있어서나, 현행 교육 과정은 실습 내용, 실습 방법, 실습 기간(또는 시간) 등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과 근거를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실업계 高等學校 教育課程은 문제점을 지닌다고 보여진다.

Ⅲ. 教育課程改正의 方向

이상에서 논의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教育課程을 검토해 보고 補完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투시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觀點을 제시하고 교육 과정상의 문제점 해결 방향을 檢討해 본다.

1. 産業發展에 對應하는 教育課程

실업계 고등 학교는 취업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산업체 및 사회가 요구하는 技術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나라도 勞動集約的 産業中心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産業發展의 단계가 옮겨지고 있다. 尖端科學技術의 발전은 政府政策에 의하여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산업 구조의 고도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技術人力의 要求와 함께 전통적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직업들은 급속히 사라질 展望이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자체가 融通性과 伸縮性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교육 과정은 교육의 질을 평균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규제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을 많이 띠어 왔다. 이러한 성격의 教育課程으로서는 변화 무쌍한 産業社會의 요구에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教育課程은 自律性과 融通性을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과의 설치 과목의 신설 및 통폐합 등이 일정한 基準에 의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향에서 教育課程의 改正이 고려된다면 그러한 교육 과정은 산업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을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適應力이 높은 技術人을 위한 教育課程

오늘날과 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技術을 받아들이거나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技術人이나 産業體는 공히 새로운 기술과 기능에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체나 기술자가 살아 남기 위해서 要請되는 것은 轉移力과 適應力이 높은 기술은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대안의 하나는 유사직종 간의 공통적 기능과 지식을 추출해서 가르칠 수 있는 教育課程을 구성하는 것이다.

3. 學生의 多樣한 要求에 副應하는 教育課程

실업계 고등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基礎學力은 일반적으로 낮으며, 학생들 간의 능력차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업계 고등 학교는 卒業 후 就業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졸업 후 즉시 또는 就業 후 계속해서 공부할 것을 희망한다. 이러한 다양한 要求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教育課程이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選擇과 必須의 이수 단위, 교재의 종류, 지도 방법 및 평가 방법 등에서 다양성이 허용되고 장려될 필요가 있다. 이번 교육 과정 개정에서는 실업계 고등 학교 학생들의 要求와 問題點이 다양하게 검토되어, 규제하고 통제한다는 시각을 벗어나서, 그들의 요구를 실현시켜 주고, 부족한 점을 메워준다는 관점에서 다양하고 融通性 있는 教育課程構成이 시도되기를 기대해 본다.

農業系 高等學校 敎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郭 相 萬*

Ⅰ. 改正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농업계 고등 학교의 현행 교육 과정은 1981년에 告示된 것으로, 이 교육 과정을 개발할 당시의 농업 기술의 양상 또는 농업 교육의 실정과 앞으로 개정되는 교육 과정이 적용될 시점인 1990년 사이에는 장구한 시일이 가로놓이게 된다.

이러한 장구한 시일이 아니더라도, 농업 기술은 급속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산업 사회의 양상도 나날이 변화해 가고 있으므로, 교육 과정은 이에 발맞추어 보완·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교육 과정 개정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의 농업 발전 전망에 맞는 것을 추출하고, 미래 산업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설정·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다.

(1) 농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맞는 지도 목표와 내용의 선정 보완

(2) 새로운 지식, 기술 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마련

(3) 일반계 고교 및 실업계 타계열 고교 교육과의 조화를 위한 교육 과정의 마련

교육 목표 부분은 전체 농업계의 목표 및 학과 목표, 교과목별 목표를 확고한 農業觀에 입각, 기르려는 人間像이 부각되도록 제시하고 교육 내용은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 조직·배열되어야 한다.

일반계 고교 및 他系列 고교와의 교육 과정 체계 조절 문제에는 共通必須 普通科目의 처리 문제, 系列別 「교육 과정 운영상의 유의점」에 있어서의 모순점 조절, 형식의 통일 문제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의되어야 할 내용 또는 문제점들」에서 詳論하기로 한다.

Ⅱ. 論議되어야 할 問題點들

「교육 목표」부분에 있어서는, 「中堅營農人을 양성」한다든지 「농업 관련직 종사자를 양성」한다는 목표의 내용 취지에는 별반 異論이 있을 수 없겠으나, 표현에 있어 「양성」이라는 어휘만은 「자질이나 능력 또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工業系나 水産·海洋系, 商業系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고등 학교가 기술자 「양성소」는 아니기 때문에 「학교」교육 목표로서 알맞은 표현으로 그 목표를 제시하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이다.

농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 목표는 自營農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관련직 종자」 또는 진학 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中堅營農人이 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목표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系列學校目標뿐만 아니라 學科目

* 敎育資料部長·首席硏究員

標나 敎科目의 目標도 이러한 방침 아래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교육 과정의 前文은 이러한 표현으로 제시될 수 있게 논의되고,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專門敎科의 편제 및 單位配當」에서는 旣存의 틀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흩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과 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촌 지도과」의 교육 과정 구성이라든지 그에 따른 교과 편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 필수와 전문 선택 과목의 학과별 배열 문제, 이수 단위수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의 교육 과정 구성 문제는 어느 系列 實業系高校에서건 간에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그것은 공업계 등에 있어 실제로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교육 과정에 표시되지 못하고 있는 학과도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며, 교육법 시행령에 나타나는 系列學科는 교육 과정 告示에 따라 조속히 조정되어야 한다.

전문 필수와 전문 선택의 학과별 배열 문제는 현행 교육 과정처럼 전문 필수는 학과별로 묶되 전문 선택은 터야 一線學校의 재량이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單位數의 배정도 교과별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一線學校의 요망이다.

그러나, 전체 履修單位 82~122 중 必須 36~76, 選擇 46~86單位의 比率問題는 系列別로 비슷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地域性이나 融通性을 고려하여 必須 쪽을 낮게, 選擇 쪽을 높게 배정하는 원칙은 고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농업계가 전문 필수 36~76, 전문 선택 46~86, 공업계가 전문 필수 28~40, 전문 선택 54~94, 상업계가 전문 필수 40~64, 전문 선택 42~82, 수산·해운계가 전문 필수 36~76, 전문 선택 46~82 단위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선택 쪽이 높게 배정은 되어 있으나 履修比率이나 이수폭은 별 의미 없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전문 필수와 전문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수는 학과별로 그 합계가 82~122로 되어 있어 3년간 총 이수 단위의 40~60%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비율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것이 일선 학교의 반응이기 때문에 현행의 틀을 계속 유지시키되 「교육 과정 운영상의 유의점」에서 제시하는 전문 과목별 이수 단위의 제한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농업계 각 학과의 중심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작물, 축산, 원예, 조림, 농업 가정, 경영 실습 등의 이수 단위는 18단위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데 반하여, 수산·해운계에 있어서는 항해, 수산 양식, 선박 기관은 40단위, 어업 수산 생물, 냉동 등은 30단위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어, 계열에 따라 비슷한 비중의 교과목 이수 단위에 너무 큰 폭으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모순은 시정되어야 한다.

系列別 實業高校 사이의 類似敎科目은 「실업계 고등 학교용」 또는 「고등 학교용」 교과서로 편찬한다는 전제 아래 그 교육 과정도 單一化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식품 위생」의 경우, 농업계, 공업계, 수산·해운계, 가사 실업계용이 각각 따로 되어 있으나 교육 과정상의 지도 목표나 지도 내용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또, 系列에 따라 그렇게 심한 특색이나 전문성이 있는 교과목도 아니다. 이러한 類似敎科目은 系列間 또는 같은 系列의 학과간에 상당히 많이 있다.

실습 교과목, 또는 실습 단위의 이수에 있어서는 우선 각과 기초 실습과 경영 실습, 기초 실습과 각 전문 교과목, 경영 실습과 농업 경영·임업 경영과의 중복 문제가 조정되어야 하고, 기초 실습 중에 나타나는 전공 영역 이외의 분야의 실습 문제를 어느 교사가 담당해야 할 것인지, 그 시설은 어느 학과의 것을 활용해야 할 것인지, 또 어느 시간에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해설과 안내가 있어야 하겠고, 교과서도 이에 따라 알맞게 편찬되어야 하겠다는 일선의 소리가 높다. 예컨대 원예과 실습의 경우, 대부분의 農高에서 실제 담당은 원예 또는 채소나

화훼를 담당하는 교사 한 사람이 그 내용 전체를 다루게 되므로, 그 안에 나타나는 각종 분야의 실습(생산 환경, 생산 자재, 농업 기계, 농업 공작, 채소 원예, 과수 원예, 화훼 등) 중 자기 전공 이외의 분야는 다루지를 않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교사는 차라리 農業機械면 농업 기계 교과 속에다 실습까지 완전히 포함시켜 농업 기계 교사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실습 지도를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전문 교과의 이수에 있어서 실습을 50% 이상 과해야 한다는, 「운영상의 유의점」에서의 제시는 농업계의 경우는 이를 각 교과 속에서 이론을 50% 이하, 실습을 50% 이상 과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공업계의 경우는 실습 과목의 단위수 배당이 전 과목수 단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그 해석이 상치되고 있다. 이러한 점도 계열간에 유사 학과가 많은 실업계 고교의 教育課程으로서는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하여 원활하고 합리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 습 자 료 개 발 안 내

자 료 명	정 가	공 급 처
국민학교 특활용 영어 배움책 (카세트테이프 5개 포함)	7,500	민족문화문고간행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245~3 (675—1981))
중학교 영어 말하기 배움 책		
1학년	1,750	
2학년	1,500	
3학년	1,500	
국민학교 진로교육 읽기자료 (전 9권)	23,100	
국민학교 컴퓨터 배움책	3,200	
중·고등학교 컴퓨터 배움책	3,900	
중학교 영어 듣기자료 (카세트테이프 10개 포함)		한 서 출 판 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90-5 (363-3603)
1학년	13,800	
2학년	14,000	
3학년	15,000	

工業系 高等學校 敎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金 善 泰*

Ⅰ. 敎育課程 改正의 必要性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에도 새로운 要請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의 要求를 반영하고 그간의 교육 과정 운영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을 改善하기 위하여 敎育課程 改正 硏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産業社會의 變化에 따라 교육과정도 다른 모습으로 재편성 조직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산업 사회 변화에 따른 敎育課程의 改正은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학교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공업 고등 학교 敎育課程 改正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한 科學技術의 발달로 산업 사회가 재편성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 인력(생명 공학, 첨단 컴퓨터,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한 요청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교육 현장과 산업 사회의 조화(유기적 산학 협동 체제)를 위해 공업 교육의 目標와 內容의 修正이 불가피하다.

세째, 학생들의 能力과 適性이 다양함에 따라 그들의 요구와 기대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는 敎育課程이 좀더 다양성 있게 구성되고 좀더 탄력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Ⅱ. 現行 敎育課程의 問題點 및 對策

공업 고등 학교의 교육 내용과 산업 사회에서 요구하는 知識과 기능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기본 지식과 적용력을 갖춘 기능공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고 교육은 산업체로부터 항상 불만족스러운 評價를 받고 있다. 産業體의 요구만을 수용할 수도 없고, 이들의 요구를 전혀 고려치 않을 수도 없는 공고 교육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취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 요구만을 수용하다 보면 공고는 職業訓練機關으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공업 고등 학교 敎育課程 중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問題點 및 對策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敎育目標

교육 목표는 교육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때 그 설정과 진술은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考慮되고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업의 각 분야에서 中樞的인 役割을 담당할 공업 기술인을 양성하여"라는 표현이 職業訓練所와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工業技術人이 될 수 있는 資質을 기른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 普通敎科와 專門敎科의 履修單位 比率

현행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이수 비율이

* 敎育課程硏究部・硏究員

60~40% : 40~60%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現場에서는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가 상당히 不足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 수를 높여 주기 위해 特殊目的 學校와 學科에서만 10% 범위 내에서 초과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일반 공고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檢討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교원 수급 등의 行政的인 제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專門敎科의 編制와 單位配當

1) 현행 교육법 시행령과 교육 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학과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과를 계통적으로 체계화시켜 주는 방안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2) 必須科目과 選擇科目의 제시 형태를 각 학과별로 공통 필수만 정해 주고 모든 전문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학과 구분 없이 제시하자는 意見도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敎育課程 運營上의 탄력성이 높아지나 학과의 특성 및 구분이 模糊해질 가능성도 있다.

3) 각 계열간의 유사 과목 및 공업계 내의 유사 과목 통폐합 및 신설 문제는

첫째, 반드시 統合이 필요한지

둘째, 교과서 집필시 중복된 내용을 피하면 되는지

세째, 신설이 필요한 과목이 있다면 그 내용을 類似한 과목에 삽입시키면 되는지 등과 같은 대책을 愼重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과목 명칭 변경도 그 내용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修正이 불가피한 명칭은 이번 機會에 고쳐져야 할 것이다.

4. 現場實習

산업체에 실습생의 과다 집중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함과 산업 교육 진흥법에 의거 현장 실습이 1~6개월(종전 1~3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정상적인 敎育課程 運營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現場實習이 오히려 공고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實習時期를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로 제한하는 방안 둘째, 5학기 내에 교육 과정 운영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 세째, 實習期間 중 지도 교사가 1회 이상 순회 지도를 하는 방안 네째, 現場實習學生들도 3학년 2학기 중간 고사와 기말 고사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 등을 檢討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Ⅲ. 敎育課程 改善方向

○인간의 내·외적 질서의 합일을 위한 敎育課程構成을 위해서 社會變化 및 기술적 성장에 상응한 職業人으로서의 자질, 직업 의식 및 산업 발전에 유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敎育內容의 삽입이 요망된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현대 산업 사회로부터 適應力이 높은 인력의 배출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基礎知識과 기능의 강조 및 원리 교육을 强化시킬 수 있는 敎育課程의 개편이 요망된다.

○생산 구조의 변화와 기계의 자동화로 새로운 기술 지식(전자, 컴퓨터, 자동 제어)의 삽입이 불가피하다.

○교과의 정상 운영을 沮害하는 교육 과정상의 지시문이나 조항 및 제한 사항에 대한 適切性을 評價하여 삭제토록 한다.

○地域社會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는 탄력성 있는 敎育課程 運營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재량권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敎育課程이 構成되어져야 한다.

商業系 敎育의 性格과 敎育課程의 基本方向

李 南 昊*

Ⅰ. 商業系敎育의 性格과 敎育課程 改正의 必要性 및 方向

1. 改正의 必要性

끊임없는 산업의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청과 학문적 발전을 수용함으로써 교육의 목표, 교과 및 교육 내용에 반영하여 현재만이 아니라 未來社會에 대비할 수 있도록 敎育課程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1) 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교육관 수용
(2) 산업 발전에 따른 교과 조정
(3) 산업 발전에 따른 교과 내용의 조정

2. 商業系 高等學校 敎育의 性格

고등 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사회 성원으로서의 役割을 수행하고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며, 자신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중견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목적을 전제로 상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상업계 교육은 급속한 科學文明의 발달에 따른 고도 산업 사회에 대응할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어야 하고, 經濟活動과 산업 구조가 고도로 다기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산업 사회 발전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직업인으로서의 자질 배양이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

특히, 평생 교육 지향의 발전적 추세에서는 상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이 專門職業인 육성을 위한 완성 교육 또는 종국 교육이라는 차원보다는 발전하는 산업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념과 긍지를 지닌 職業人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화된 전문 교육보다는 장래 분야별 진로에 대비하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직업 교육의 측면에서도 특정 직무 숙련을 목적으로 하는 技術訓練을 지양하고, 넓은 직업군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 교육 및 태도 함양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업 학교 교육은 어떤 직업 분야에 들어가든지 바로 직무에 따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轉移의 가치가 높은 기초 교육에 注力할 필요가 있다.

1) 消費者敎育의 面

상업에 관한 교육은 산업이나 직업과 같은 업무를 초월한 또 하나의 일반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원래 상업 교육은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좁은 의미의 상업 개념에서 점차 발전하여 각종 산업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직무 범위에 그치고 있었다. 즉 經濟生活 안에서 생산과 유통의 면에서만 필요한 교육으로 認識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소비의 면까지도 상업 교육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것이 최근에 활발해진 소비자 교육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소비자 商業敎育(Consumer Business Education)이다. 물론, 消費者敎育은 상업 교육만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과, 가정과, 과학계 교과 등 여러 교과에서 協力하여 다루어져야 할 광범위한

* 敎育課程硏究部·硏究員

문제를 안고 있으나 상업(Business)에 관한 한, 상업 교육의 그 주된 擔當者가 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모든 교육은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며, 상업 교육도 종래 생산과 유통면의 교육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생산이나 유통도 결국은 소비를 위한 것이므로 소비 면의 교육이 따르지 않고서는 國民生活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 모두에게 생산, 유통, 소비의 관련을 이해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적인 일(Business)들을 보편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국민 생활을 합리적·능률적으로 하게 하여 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국민 대중은 곧 소비자이므로 이 소비자의 觀點에서 하는 상업 교육은 특정 산업 또는 직업을 위한 교육의 領域을 벗어나 일반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2) 個人的 便益의 面

상업 교육의 일반 교육학 초래의 또 하나의 이유는 개인적 편익이란 점을 들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근래 미국에서 Personal Use Value of Education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서 가장 적합한 예로는 打字敎育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타자 교육은 직업적 타자원에게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널리 認識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타자 교육이 주산 교육과 함께 일반적으로 교육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주산도 결코 상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인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산이나 타자의 일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교육이 역시 商業敎育의 일환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적 편익의 관점에서 볼 때 주산, 타자 이외에도 부기나 상업 법규 등의 과목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상업 과목임에 틀림없다.

職業上의 목적을 위한 상업 교육과 이와 같은 개인적 편익을 위한 상업 교육과의 차이점은 오직 그것들에 관한 知識이나 기능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따름인 것이다.

3) 固有의 商業範圍와의 關係

이상은 상업 교육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좁혀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논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는 상업 교육의 범위의 重要性을 추호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상업 고유의 범위란 두말 할 것도 없이 산업 분류로서의 상업에 관한 면이다. 이것은 상업 종사자에 대한 職業敎育에 속하는 면으로서 상업 교육 본래의 領域인 것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 교양으로서의 商業敎育이 보급·발달한 기반 위에서 職業敎育으로서의 상업 교육도 더욱더 發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업 교육임을 말해 두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상업 교육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면을 包括的으로 표시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상업 교육)

판매 기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상업 교육	사무적 작업에 관한 상업 교육	경영 관리에 관한 상업 교육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상업 교육
일반 교육으로서의 상업 교육			

4) 商業敎育과 經濟敎育과의 關係

社會敎科에서의 경제 교육이 경제 현상의 원리를 지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한다면 상업 교육은 經濟敎育을 기초하여 실제 사회의 경제 현상을 理解하고 산업 사회에 적용 내지 응용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經濟敎育과 商業敎育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상업 교육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3. 商業系 高等學校 敎育課程 構成의 方向

1) 基本的 素養强調

변화하는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2) 專攻別 必須敎科의 强化

현행 4개 학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수 교과를 강화한다.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分科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화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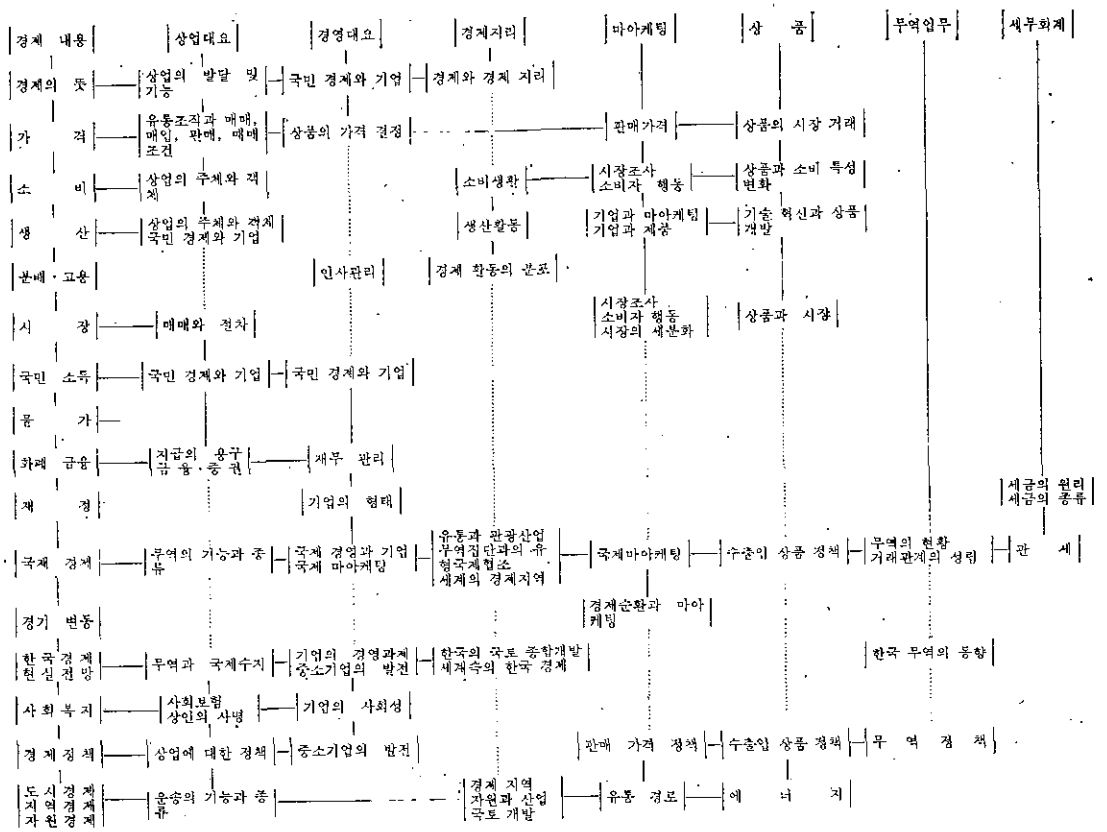
3) 職場女性敎育의 新設

상업 고등 학교는 남, 여로 구분되고 많은 여성 인력을 배출하면서도 교육 과정상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職業倫理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가져야 할 직장 예절을 指導할 수 있도록 한다.

4) 經濟敎育의 强化

이론으로 배운 경제의 제반 원리를 상업 교육을 통하여 실제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 교육과 상업 교육과의 연계



Ⅱ. 論議되어야 할 內容

1) 總論의 領域

1) 상업 교육의 목표는 유능한 인재의 양성으로 볼 것인가 자질의 양성으로 볼 것인가

2) 학과별 분류는 타당한가

3) 전문 교과는 적정한가

4) 학과별 필수 교과와 선택 과목의 분류가 적정한가

5) 전문 필수 (40~64)와 전문 선택의 이수 단위 (42~82)는 적정한가

6) 교육 과정 운영상의 유의점에서 전문 교과의 과목별 이수 단위의 상한선(10단위)은 타당한가

7) 교육 과정 운영상의 유의점에서 보통 교과의 8단위를 전문 교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은 적정한가

8) 학과별 목표는 적정한가

9) 산업 사회 발전 사회 현상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과를 신설 또는 폐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2. 各論의 內容構成

1) 새로운 學問·技術의 受容

변화하는 산업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이 등장하는 학문과 기존의 학문의 변화를 예견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한다.

2) 實用的인 內容選定

상업 교육의 이론 및 기능 교육을 산업 사회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한다.

3) 經濟敎育의 反映

경제 이론을 적용 및 응용하는 상업 교과 중 상업 대요, 경영 대요, 경제 지리, 마아케팅, 상품, 무역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를 터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4) 職業倫理의 强調

개인 및 기업인의 사회적 사명 의식을 고양시키고 職場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강조한다. —◈

교육금언

□ 널리 사랑하는 것, 이것을 仁이라 한다. 행하여 마땅한 것, 이것을 義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가는 것, 이것을 道라 한다. 자기에게서 만족하고 밖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을 德이라 한다. 이것이 仁義道德이다.

博愛 之謂仁 行而宜之 之謂義 由是而之焉 之謂道 足乎己 無待於外 之謂德

——韓愈 〈古文眞寶 : 原道〉

profile

한 유(韓愈; 768~824 중국의 盛唐期文人, 儒生. 柳宗元과 더불어 古文의 大家로 근세 文章의 始祖. 詩의 散文化에 공헌: 詩文集 〈昌黎先生集 40권〉에 〈毛穎傳〉 〈進學解〉 〈南山詩〉 〈秋懷詩〉 등이 수록됨.

高等技術學校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金 泳 柱*

Ⅰ. 必要性

1981年初, 中·高校의 教育課程이 전면적으로 改正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高等技術學校 教育課程은 1971年 制定된 教育課程으로 現在까지 施行되고 있어 教育課程 構成方向과 그 內容組織이 時代的 社會變化와 새로운 知識 및 技術發達에 對應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高等技術學校는 國民生活에 直接必要한 職業에 關한 知識과 技術을 연마하여 社會職業 技能人을 育成하는 學校로서 産業社會發展과 밀접한 關係가 있으며, 現代生活과 관련된 職業技術教育이 要求된다.

우리 나라는 70年代 이후 高度産業社會로 發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職業이 分化되고 産業社會 構造가 다양화, 고도화됨으로써 급변하는 社會에 適應할 수 있는 技術教育이 요청된다. 따라서, 이러한 時代的 要求에 따른 高等技術學校의 教育課程改正은 당연한 課題인 것이다.

Ⅱ. 現況과 問題點

高等技術學校는 一般的으로 가정 형편이나 學力不足 등으로 上級學校에 진학하지 못한 者의 就業을 위한 技術教育과 普通教育을 받은 者로서 就業, 轉職 또는 새로운 技術習得을 위한 再教育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技術教育을 實施하고 있는 學校이다.

技術年限은 1年以上 3年課程이 있으며, 설치 학과는 農, 工, 商, 水産, 家政 그리고 其他系列에 關한 學科가 있다. 또한 高等技術學校에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程度의 學力을 가진 者가 入學할 수 있는 專攻科의 修學年限은 1年以上이며,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課程은 1年制와 2年制가 있다.

이와같이 高等技術學校는 就學對象者, 修學年限 그리고 各種系列別 設置學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學校教育運營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몇 가지 문제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高等技術學校는 복합적이고 다양성에 따른 性格과 目標設定이 어렵다. 高等學校 課程의 1年制와 3年制 그리고 專門大學 課程의 1年制, 2年制에 따라 設置學科도 특수하다. 주로 1年~2年課程은 미용, 안경, 제과 등이고, 3年課程은 農, 工, 商 其他系列로서 단순 기능교육으로부터 전문 기능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 동일한 學科의 修學年限 1年과 3年課程에서 教育內容水準의 관계가 모호하다. 예를 들어, 1年制 전자과와 3年制 전자과에서 이수하여야 할 지도 내용 수준의 범위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세째로, 이수 시간 배당 기준이 이수해야 할 總時間數로 제시되어 있어 教科目別 이수 시간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高等學校 單位制와의 환산 적용 및 評價上의 불편이 뒤따른다. 現在 高等技術學校 중 實業系高校에 準하여 單位制로

* 教育課程研究部·責任研究員·哲博

운영되는 학교도 있다.

네째로, 高等技術學校의 特性에 맞추어 專門教科의 비율과 실험, 실습 시간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 特殊學科를 제외하고는 普通教科에 대한 專門教科의 비율이 기능 습득을 위해 충분하지 못한다.

다섯째로, 教育課程에 따른 教科目別 지도 내용이 새로운 學問과 技術을 습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여섯째로, 高等技術學校에서 準用할 教科書가 없으며, 정규 高等學校 教科書를 再構成하여 사용함으로써 內容水準의 선정, 지도가 어렵다. 特殊學科나 專攻科의 경우, 專門大學 教材나 기타 참고서를 축소·편성하여 교육하는 경향이다.

일곱번째로, 專攻科는 教育課程이 制定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學科別 자체 開發한 教育課程으로 운영하고 있다. 專攻科는 高校를 졸업한 者가 入學함으로써 이에 대한 教育內容이 專門大學水準이어서 教育課程이나 教科書 開發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Ⅲ. 改正方向

高等技術學校의 教育課程은 앞에서 제시한 現況과 여러 가지 問題點을 개선·보완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改正方向을 제시한다.

1) 學校教育目標는 系列別 設置學科의 다양성과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구현 가능한 目標로 제시되어야 한다.

職業訓練院 및 實業系學校 등의 教育目標와 연관하여 職業技術教育에 부합되는 目標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各 學年制別 이수 시간 배당 기준을 普通教科와 專門教科別로 제시하되, 기준은 高等學校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單位制로 나타내는 것도 연구할 과제이다.

3) 普通教科와 專門教科의 이수 시간(단위)비율은 技術系列·學科의 性格에 맞도록 실험, 실습을 강화하여 專門教科에 비중을 둔 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普通教科는 기본적인 소양에 필요한 공통적인 教科로 선정·조정해야 하며, 專門教科에서는 基礎原理 및 理論의 基本教科를 必須科目으로 하고 選擇教科目을 충분하게 제시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교과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이수 교과의 지도 내용과 범위는 학생 수준과 技術分野別 特性, 그리고 지역 사회 및 時代的 要求水準에 맞는 內容을 選定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6) 專攻科의 普通教科는 系列別學科에 공통되는 基本教科로 선정하여야 하며, 專門教科는 해당 學科別 特性에 따라 정하되, 지역 사회와 학교 및 학생 요구에 따라 이수할 수 있도록 選擇教科의 폭을 주어 편성해야 한다.

7) 專攻科의 教科 지도 내용은 高等學校 深化課程 내지 專門大學課程의 수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8) 1年~3年制의 技術教育課程과 專攻科 1年~2年制의 教育課程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유의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水産·海運系 高等學校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呂 均 會*

現行 教育課程은 第4次 教育課程 改正에 의하여 作成된 것으로 1981年 文教部 告示 第422號로 公布되어 高等學校에서는 1983年부터 適用하기 始作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한 國家의 教育課程의 性格이나 內容에 의해 左右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重要視되고 있다.

우리 나라 教育課程은 解放後 지금에 이르는 동안 複雜한 社會構造의 變化, 産業의 發達 및 文化의 發展, 人間의 思考方式의 變貌 등에 依한 學問內容과 學習方法 및 教育哲學의 變化와 其外 內·外的인 諸要因과 必要에 따라 數次에 걸쳐 改善에 改善을 거듭하여 왔다.

教育課程이 制定된 初期에는 물론, 그 後 상당한 期間 동안은 教育課程의 重要性과 必要役割에 관해 關心을 갖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教育課程에 관한 關心度는 教育專門家뿐만 아니라 一線學校教員을 비롯하여 教育에 直接參與하고 있지 않는 社會 各分野의 一般市民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 教育課程에 대해 나름대로의 教育觀을 披瀝하면서 教育課程을 批判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教育發展에 매우 希望的이고 鼓舞的이라 아니할 수 없다.

第4次 教育課程 改正時에 多數의 教育專門家를 비롯하여 各級學校 教員, 學父母, 在學生과 卒業生, 各界各層의 人士에 直·間接으로 參與할 機會를 賦與하여 教育課程 改正에 必要한 諸要求를 最大限으로 收斂하면서 극히 民主的이고 未來指向的이며 愼重하게 推進하면서도 매우 革新的인 內容으로 大幅 改正을 하였다. 그러나 第5次 教育課程을 改正하는 데는 現行 教育課程의 基本原則을 全面的으로 否定하거나 全面改正하는 것이 아니고 未洽한 部分에 대한 補完을 비롯하여 內容修正이 不可避한 部分에 한한 部分改正을 한다는 點을 前提하고 持續性의 原則, 漸進性의 原則, 各級學校間의 連繫性의 原則을 固守하면서 改正必要 部分에 對한 意見을 收斂, 分析, 檢討하여 妥當性을 찾아 無理 없이 改正할 것을 基本原則으로 하고 改正의 必要性과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 教育課程 改正의 必要性

우선 教育課程을 改正해야 할 必要性을 세 가지 側面에서 檢討해 보면

1. 社會 變化에 副應할 教育課程 改正의 必要性

社會, 經濟, 文化, 産業의 全分野가 하루가 다르게 變化하듯이 水産·海運業 亦是 急進的으로 發展, 變貌하고 있다.

第4次 教育課程이 80年代의 教育發展에 絶對的인 役割을 堪當한 데 비해 第5次 教育課程은 90年代 教育의 骨格形成과 2,000年代 水産·海運業 發展과 未來社會로의 指向, 適應을 위한 人間教育의 基盤을 造成한다는 점에서 매우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게 되는 것이다. 즉, 單純한 未來社會에 適應, 對處가 아니라 엄청난 發展을

* 仁川水産高等學校·校長

위한 敎育課程의 開發이 要求되기에 時代相에 符合될 敎育課程의 改正이 必要하다.

2. 敎育課程의 周期的 改正의 必要性

우리 나라 敎育課程의 變遷過程은 꼭 一定한 年限을 周期로 改正된 것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10年을 周期로 하여 改正되었으며 그 사이에 部分的인 改正도 있었다.

時間的인 變化에 따라 社會가 要求하는 人間像 및 知識과 技能의 內容이 달라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敎育의 內容, 學習 方法, 敎育目標의 變化가 必然的으로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事項에 適宜 適應될 수 있는 人力養成을 위해서는 敎育課程의 改正이 잇달아 뒷받침되어야 한다. 第4次 敎育課程 改正當時만 해도 最善策을 講究하면서 完璧을 기한다고 努力하였으나 7年이 經過한 現在 時代性에 맞지 않는 낡은 것으로 退色되었거나 곧 그렇게 될 部分이 露出되고 있다. 今次 改正의 範圍는 充分한 意見 및 資料의 蒐集과 正確한 判斷 및 協議에 依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現行 敎育課程이 가지고 있는 諸問題點 解決을 위한 改正의 必要性

現行 敎育課程은 많은 人力資源과 各種資料의 活用을 통해 어느 改正 때보다 努力과 誠意의 集約的인 投入으로 만들어진 産物이었다.

學校系列間의 特性을 考慮하고 各種 目標를 비롯하여 敎科의 統·廢合, 調整 및 內容의 精選과 必須·選擇 科目 및 單位配當의 調整, 指導上의 留意點 등 전반적인 事項에 관하여 大幅 改正을 斷行하여 革新을 기하였다. 그러나, 7年이 經過하는 동안 敎育外的인 事項이 너무나 急進的인 大變化를 가져와 現行敎育課程으로써는 앞으로의 敎育을 堪當하기에 많은 問題點이 排出되어 이에 대한 改正이 必要하게 되었다.

Ⅱ. 現行 敎育課程의 問題點

一線學校敎員, 敎育專門家 및 有關産業體의 關係者를 通하여 現行 敎育課程이 안고 있는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對하여 分析해 본 結果 다음과 같은 內容이 改正되어야 할 問題點으로 集約되었다. 여기서는 紙面活用의 制限上 주로 問題點만을 提示하는 것으로 한다.

첫째, ① 敎育目標에서 "中堅技術人"이란 表現이 高等學校의 目標로서 妥當性의 有無가 改正 때마다 論議되고 있을 뿐 아니라 實業系高等學校 중 農, 工, 商, 水産·海運, 家事 實業系學校目標의 不一致와 "養成"이라는 表現을 다르게 할 必要性 提案

② 敎科書의 大單元마다 單元目標 設定

둘째, 學科의 新設, 統·廢合, 學科名稱 變更

自營水産科의 新設, 通信料, 水産加工科의 科名 變更과 水産增殖科의 敎育法施行令上의 名稱과 敎育課程上의 名稱의 不一致

세째, ① 專門必須科目과 專門選擇科目의 調整과 科別 均衡維持

② 專門必須科目과 專門選擇科目의 履修單位 配定의 調整

네째, 科目에 대한 單位配當의 調整

① 科目의 上限單位의 撤廢

② 科目마다 上·下限單位의 設定

③ 綜合實習의 下限單位 撤廢

④ 現行 科目別 單位配定의 不合理

다섯째, 專門必須 및 選擇科目 區分의 無意味(學校의 實情, 地域社會學校로서의 役割에 障碍要因)

여섯째, 敎科目 및 敎科書의 新設 및 統·廢合

① 乘船實習 敎科書의 開發

② 類似한 內容의 敎科書 統合(他系列 및 同一系列 중)

③ 敎科書 중 "Ⅰ", "Ⅱ"의 合本 내지 完全 分離로 敎科書의 뚜렷한 性格發揮

④ 敎科目의 지나친 分化와 敎科書의 卷數過多

일곱째, 敎科書의 內容이 어렵고 分量이 많음

여덟째, 全無한 敎師用 指導書의 開發

아홉째, 50% 以上의 實驗·實習은 敎科의 性格上 可能한 것과 不可能한 것이 있고 現實과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 比率은 좀더 科學的이고 合理性에 의해 再調整되어야 한다. ——◈

家事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 改正의 基本方向

姜 大 求*

Ⅰ. 教育課程 改正의 必要性

現在 우리 나라에는 獨自的인 家事 實業系 高等學校가 設立되어 있지 않으나 여자 실업 고등학교와 산업체 부설 학교에 家事 實業系 學科가 設置·運營되고 있으며 이들 학교가 家事 實業系 教育課程의 適用對象이 된다.

현재 이들 學校에 適用되고 있는 教育課程은, 과거 4次 教育課程 改正時의 狀況과는 달라진 産業社會의 與件과 그에 따른 學科設置 등의 要求와 增大된 학생 自身들의 自己發展 및 就業要求들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어서 家事 實業系 高等學校의 性格을 살리면서 産業社會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 方向으로 教育課程 改正의 必要性이 提起되고 있다.

Ⅱ. 教育課程 改正에 있어서의 考慮할 點과 改正方向

教育課程 改正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과 設問調査와 面接調査 등에 의하여 나타난 교육 과정 개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은 크게 다음 몇 가지로 要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教育課程 명칭상의 문제인데, 현재의 교육법 시행령 제111조 3항의 內容에 나타난 "家事·實業에 관한 學科"라는 명칭과, "가사 실업계"라는 教育課程上의 명칭간에 意味上의 差異가 存在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家事 實業科란 家事 關聯科를 의미함이라면, 家事·實業科란 家事 關聯科와 其他 實業系學科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둘 중의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學科編制와 教科目內容에 있어서 큰 差異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둘째로는 現在의 家事 實業系科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家政科인데, 이 學科만으로는 점차 多樣化되어 가는 人間의 社會活動 參與要求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相對的으로 就業希望 정도가 과거보다 더 높아져 가고 있는 實情下에서는 현존 학과들 외에 社會的 要求가 있는 學科들의 新設이나 現存學科의 명칭 변경 등이 必要한 實情에 있으며, 그러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 地域社會의 사정을 考慮하여 特定學校에서 設置한 學科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실업계 학교가 직업인 양성이라는 目標를 가지고 있고, 家事 實業系 역시 實業系에 포함되므로 家事 實業分野의 職業人養成이라는 目標를 考慮하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세째로는 산업체 부설 학교의 家事 實業系 學科의 총 이수 단위 수 문제인데 이들 학교에서는 정규 학교에서 이수하는 단위수의 1/3을 제외한 138 단위 정도를 이수하는데, 이정도의 단위수로는 정해진 보통 교과의 단위수를 먼저 채우고 나면 68~70 단위 정도가 남게 되고 그에 따라 전문 필수나 선택의 단위수를 최저치로 선택하게 되어 전공 과목의 충분한 제공이 곤란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총 이수 단위 수의 1/3 정도를

* 教育課程研究部·研究員

工場實務라는 명칭으로 現場勤務를 대체하기보다는 충분한 이수 단위 수를 확보하는 方向으로의 論議가 必要한 실정이다.

네째로는, 현행 전문 교과목 중에 4개학과 모두에 必須教科로 편성되어 있는 家政教科의 중복 편성 문제이다. 현재 家政科目은 보통 교과에도 編成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교과에 편성된 과목을 굳이 전문 선택도 아닌 전문 필수 교과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실제로 각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정 과목의 교과서도 일반계 고등 학교용 교과서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家政科目의 內容은 보통 교과의 性格을 지니는 것인데 그와 같은 科目을 중복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實業系 高等學校의 教育目標가 추구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교양적 성격의 科目이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가 必要하다.

다섯째로 現行 專門教科目의 性格問題인데, 현행 교육 과정에 나열되어 있는 專門選擇科目은 기타 과목을 제외한 25개 과목 중 13개 과목이 4개 학과의 전문 필수 교과로 제시되었던 것이며, 그 외 12개 과목이 독자적인 선택 과목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선택 과목이 각 學科에서 提示하고 있는 必須科目의 深化性格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各學科의 深化보다 多樣한 他分野內容의 선택 기회 提供의 役割이 우선하는 것을 현재의 교육 과정 구성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좀더 많은 선택 과목의 제시를 고려해 볼 것을 논의할 必要가 있다. 직업인 양성의 目標를 强調하려고 한다면 그 性格은 더욱 重要하다.

여섯째는 가사 실업 계열의 教育目標에 대한 認識問題인데, 일선 현장에서는 家事 實業系目標를 기능인 및 직업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가정 관리자 양성에도 많은 意見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 實業系 高等學校의 目標上 關聯職 從事者의 觀點이 더욱 强調되어야 하므로 앞의 사항에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 履修單位數에 어느 정도의 폭을 준 것이나, 專門必須와 選擇教科間의 比率 등은 현재가 適當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은 改正에서도 그대로 둠이 適當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論議에서 結論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교육 과정 개정의 方向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즉 현행 교육 과정에서 몇 개의 學科編制를 新設하는 문제의 토론과 現行 學科名稱의 一部 變更問題의 論議이며, 系列名稱 등의 論議이다. 또한 各教科目의 構成問題일 것이며, 산업체 부설 가사 계열 학과의 이수 단위 수 조정 문제일 것이다. 그 외에 운영상의 융통성을 준 점 등은 계속 반영함이 必要할 것이다.

교육금언

☐ 眞實은 그 자체의 特別한 時間이 없다.
진실의 시간은 항상—지금이다.

—A. 시바이쩌 〈나의 생활과 思想 밖에서〉

☐ Truth has no specialtime of its own.
Its hour is day now-always

—schweitzer, Albert—

profile

시바이쩌(Schweitzer, Albert; 1875~1965) : 독일 태생의 프랑스 神學者, 思想家, 醫師, 音樂學者, 아프리카에서 흑인 구제에 헌신, 1953年 노벨 평화상 수상.

特定目的 高等學校 教育課程 開發의 原則과 限界

韓 鍾 河*

Ⅰ. 序 言

우리 나라서에는 특정 목적 고등 학교(特目高校)는 5개 系列로 분류될 수 있다. 즉 實業系, 體育系, 藝能系, 言語系(外國語系), 科學이다. 이 중 실업계와 체육계는 이미 일반계 고등 학교와는 별도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특정 목적 학교로서의 目標를 具現하는 데 필요한 체계는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후자(예능계, 외국어계, 과학계 등)는 지금까지 별도의 교육 과정이 없이 일반 고교의 교육 과정과 실업계를 準用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제5차 교육 과정 改正에서는 이 점을 좀더 보완하기 위하여 이들 特目高校의 교육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特目系 高校의 教育課程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근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중의 하나가 특정 목적계 고교의 性格과 法的 地位 문제이다. 특히 법적 지위 문제는 여러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교육 과정 구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입학 자격(教育對象), 졸업 후 進路(就業 또는 進學), 교원의 구성(자격 문제)에 관한 규정은 교육 과정의 性格과 理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決定要因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결정 요인이 教育法上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과학 고교는 교육법 시행령에서조차도 명확한 언급이 없어 성격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특목계 고교의 교육 과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육 과정을 가지고 특목계 고등 학교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 밖에 교육법에 명시된 전문 교과의 범위와 내용이 特目系 高校의 性格을 규정하는 주요 要因으로 간주할 수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消極的인 暗示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명쾌한 입장은 되지 못한다. 본고는 이러한 제한성을 염두에 두면서 교육 과정 개발상의 유의점과 원칙을 검토하여 보겠다.

Ⅱ. 特目系 高校의 性格과 教育課程의 關係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實業系 특정 목적 고교에 관한 성격은 教育法과 그 施行令에서 자세하게 明文規定을 하고 있으나 그 밖에 학교 즉 藝能系, 外國語系, 科學系 등에 관하여는 明文化된 規程은 없다. 그러나, 교육법과 그 시행령 가운데에는 이들 特目高의 性格을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條文이 별도의 교육 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대상 학생의 選拔方法(教育法의 入學 方法에 관한 것 : 第107條의 第1項3號), 名稱使用(教育法 第156條), 教育法 施行令의 教科에 관한 法(第111條) 등은 特目系 學校의 性格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간접적이긴 하나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 本院 研究委員・哲博

수 있다.*

이러한 暗示的 根據와 아울러 특수 목적 교등 학교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교육법 제105조 3항 즉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體位向上을 도모하며 個性에 맞는 장래의 進路를 결정케 하며 일반 교양을 높이고, **전문 기술**을 기른다."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特目 高校의 設置를 가능하게 하고 特目高校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方法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실질적으로 특수 목적 교교를 결정하는 明文規程은 特目高校의 別途教育課程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暗示的 條文만으로는 特目高校의 發展을 돕는 데는 限界가 있다. 특히 實業系와 體育系를 제외한 外國語, 科學, 藝能系 등은 學校設置 및 性格에 대한 明文規程이 없을 경우, 교육 과정 만으로 학교를 운영할 때 여러 가지 發展沮害要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Ⅲ. 特目高校의 教育目的과 目標 設定上 留意點

현 特目高校는 適性中心으로 4가지 領域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즉 認知領域(과학 고교 및 외국어 고교가 여기에 속함), 實業技能領域(각종 실업계 고교), 藝能領域(예술 고교), 體能領域(體育高校) 등이다.

이 중 실업 영역의 고교는 교육법상 교육 목적, 교육 과정, 대상 학생의 성격 등을 明文으로 規定되어 있기 때문에 目標 設定에 별다른 異論이 있을 수가 없다. 體能領域의 高校 역시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비교적 明文化된 法的 根據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이념 및 목표 설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本稿에서는 論外로 하겠다.

그러나, 그 밖에 特目高校는 명확한 根據가 없기 때문에 教育課程의 理念과 目標를 設定하는 데 있어서 論難의 餘地가 있다. 특히 認知的 領域에 속하는 과학 고등 학교와 외국어 고등 학

脚註 : 1) **第107條의 2** (高等學校入學方法) ① 高等學校의 入學은 사울特別市·直轄市·道別로 施行하는 選拔考査에 의하거나, 內申成績과 選拔考査를 併合한 銓衡에 의하되, 그 入學의 方法과 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選拔考査 또는 內申成績과 選拔考査를 併合한 銓衡에 의하지 아니하고 入學시킬 수 있다. ……

3. 特殊目的을 위하여 設立된 實業系高等學校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學校에 入學하는 者

②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學校를 제외한 **實業系高等學校와 藝能·體育系高等學校 등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學校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拔考査 또는 內申成績과 選拔考査를 併合한 銓衡에 의하는 외에 그 入學의 方法과 節次 등에 관하여 特例를 정할수 있다.** 〈全改 81. 2. 13〉

2) **第156條** (名稱使用) ①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 중에서 **全敎科의 30퍼센트 이상을 實業科目으로 하는 學校는 實業系學校임을 나타내는 名稱을 사용할 수 있으며 全敎科의 30퍼센트 이상을 體育科目으로 하는 學校는 體育中學校 또는 體育高等學校의 名稱을 사용할 수 있다.** ……

3) 교육법 시행령 : **第111條** (學科) ① 고등학교의 학과는 보통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와 전문교육을 주로하는 학과로 나눈다.

② 보통교육을 주로하는 학과는 보통과로 한다.

③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과는 다음과 같다.** 〈개정 72.2. 28, 77. 2. 8, 79. 6. 19, 81.11.25〉

1. 농업에 관한 학과
   농업과·임업과·잠업과·원예과·축산과·농업토목과·농산제조과·농업 기계과·농촌 지도과·농업가정과·자영농과
2. 공업에 관한 학과
   기계과·건축과·토목과·전기과·통신과·전자과·화학공업과·방직과·염색과……
   ……
7. 외국어에 관한 학과
8. 예술에 관한 학과
   음악과·미술과
9. 기타 전문교육을 실시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교는 몇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立場과 槪念的 規定이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성은 최근 特目高校를 운영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서 분명한 성격 규명이 있어야만 교육 과정의 이념과 목표 설정에 혼란을 피할 수가 있다.

첫째, 학생 집단의 성격 문제이다. 요컨대 대상 학생이 特殊能力集團이냐 아니면 一般能力集團(보통 수준의 학생집단)이냐 이다. 그 집단의 성격에 따라 교육 과정의 理念과 目標는 달라질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뛰어난 能力을 가진 英才兒集團이라면, 理論上으로보아, 교육 과정의 내용과 범위는 물론 수준도 일반 고교의 교육 과정과는 달라야 한다. 그만큼 英才의 心理的 特性은 여러 면에서 일반 학생과는 다른 점을 보인다. 예컨대, 學習速度, 創意性, 執着力, 自我槪念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 과정은 일반 학교의 그것과 같을 수가 없다(Barbe & RenzuLLi, 1981).

1983년 경기도 수원에서 발족한 과학 고등 학교는 그 학교 설립 취지에서 밝혔듯이 과학 분야에 뛰어난 適性을 보이는 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다(경기 과학 고교, 1985). 1984년도에 설립된 다른 3개 과학 고교도 같은 성격의 이념과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취지, 즉, 과학 영재의 교육을 기본 목표로 삼는다면,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은 그 대상 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맞도록 設定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 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 등은 英才들의 秀越性 追求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裝置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 집단이 藝能分野에서 뛰어난 適性의 所有者를 대상으로 한다면, 앞서 언급한 認知的 英才兒 집단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뛰어난 審美性, 音樂에 대한 특별한 才能(器樂 또는 聲樂) 등은 認知的 英才性과는 다른 領域에 속하는 能力(talentedness)이므로 교육 과정의 이념과 목표는 그 特殊才能의 啓發에 최대한의 力點을 두어야 한다.

둘째, 敎育法上에 明文化된 普通敎科와 專門敎科의 均衡問題이다. 실제로 特目高校의 性格을 규정하는 것은 專門敎科이다. 그 전문 교과의 내용과 범위가 특목 고교의 특성을 결정한다. 예컨대, 과학 고교의 성격은 전문 교과인 과학 분야의 내용이 과학 고교의 성격을 결정하는 要因이다. 藝術 高校와 外國語 高校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법상으로는 高等學校 卒業에 필요한 總履修單位 중 30% 이상의 전문 교과를 課하였을 때 特目系 高等學校로 認定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1987년 改正案에 의하면 총 이수 단위가 204~216單位이다(한국 교육 개발원, 1987, 5). 이 중 30% 이상이면, 최소한 62單位에서 그 이상 單位의 전문 교과를 과할 수가 있다. 실제로 실업계 고교, 예술계 고교, 체육계 고교에서는 40~60%까지 專門敎科를 課하고 있다(한국 교육 개발원, 1987. 3).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전문 교과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것이며, 보통 교과를 어느 수준에서 調整할 것이냐이다. 이런 문제는 特定目的 高校가 指向할 理念 및 目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藝能高校의 指向目標는 단순한 지식인이나 實業系 人力養成이 아닐 것이다. 그 학교의 목표는 藝能系의 潛在力을 최대한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基本素養을 기르는 데 있다. 그렇다면 보통 교과의 범위와 단위수는 그 학교 이념 구현이 부합하는 方向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論理로 과학 고교도 과학 분야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그 분야의 知的 指導者로 성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길러 주는 데 그 目的과 理念을 두고 있다. 그러한 立場이 분명하다면, 보통 교과의 내용과 범위는 그 이념 구현에 필요한 것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그 분야의 知的 發達에 기초가 되는 數學, 語學(국어, 외국어 등)등 보통 교과는 오히려 강조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여서는 안 될 점은 全人的 人格 形成에 필요한 보통 교과의 중요성이다. 예컨대, 과학계의 수월성과는 다소 무관하다 할지라도 審美的, 藝術的 價値觀 형성에 필요한 교과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Ⅳ. 教育課程 設計에서 考慮해야 할 몇 가지 原則

특수 목적 고등 학교를 설치하는 취지는 教育法上 明文化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 대상자의 특수한 要求와 사회적인 必要性에 따라 多樣한 教育目標와 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러한 特殊目的을 위한 것이라면, 特目高校의 教育課程은 다음 원칙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特目高校의 理念追求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 구성과 운영의 최대한의 自律權(또는 裁量權)이 학교에 주어져야 한다. 그 자율권 혹은 재량권을 최대한으로 구사하기 위하여 明文教育課程(文教部 告示用)은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하는 일이다. 예컨대, 보통 교과의 단위수를 單一數値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最小單位만을 제시하고 上限値는 學校에 맡기는 방안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의 教科目 選擇權이 최대한 保障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必須選擇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選擇의 幅을 넓히는 일이다. 예컨대, 普通教科는 물론 專門教科에서도 필수 과목을 최소화하고 모두 선택 과목으로 設定하는 일이다.

세째, 特目高校의 專門教科는 理論과 實驗을 명확히 區分하고 그 分量의 均衡原則을 지켜야 한다. 理論에 치우치거나 實技에 치우치는 教育課程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의 혼란을 막는 방안은 理論과 實技를 標榜할 수 있는 教科目을 設定하는 일이다. 예컨대 과학 고교의 化學教科는 理論化學 教科目과 實驗實習을 표방하는 化學實驗 教科目의 設定이다.

네째, 教育課程은 特目高校 학생들의 '秀越性追求'와 함께 多樣性 探索을 도울 수 있도록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伸縮性 있게 구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專門教科의 細分化와 內容上의 位階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特目系의 領域에 따라 細分化의 정도와 內容間 位階를 설정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이 원칙이 지켜져야만 特目高의 性格이 분명하게 된다.

다섯째, 特目高校 學生들의 다양한 素質과 才能開發은 물론 그들의 多樣한 個性伸張을 위하여 特別活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教育課程 構成에서 허용된 特活의 單位時間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特活프로그램을 세분화 및 다양화하여야 한다.

특히 단위 시간의 확대를 위하여 正規時間 이외, 放課後活動, 週末活動, 放學中 活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어디까지 학생들의 自生的 動機와 必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特目系 高校는 進路 및 進學의 要求와 必要性을 充足시킬 수 있는 教育課程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4개의 特目高校의 學生이 希望하는 進路方向을 대체로 上級學校 進學이 壓倒的이다. 특히, 과학 고교와 외국어 고교의 졸업생을 大學進學이 92~100%이다(한국 교육 개발원, 1987. 3).

따라서, 이들 학교의 교육 과정을 대학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실은 상급학교 진학문제는 特目高校의 교육 과정 구성은 물론 운영상에 적지않은 障碍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大入學力考査 준비라는 名目 때문에 特目高校의 特性을 살리지 못하는 예가 많다. 예컨대 과학 고교는 대입 학력 고사 준비 때문에 과학 전문 교과 과정 운영이 때로는 正常軌道를 벗어나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한국 교육 개발원, 1987. 3).

이러한 大入試制와 같은 外的 影響을 극소화

하기 위하여서는 上級 學校 進學을 위한 制度的 連繫方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V. 結 言

제5차 特定(特殊) 目的 高等學校의 교육 과정은 실업을 포함하여 2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특히, 外國語系, 藝能系, 科學系의 特目高校 教育課程은 이번에 新設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明文으로 定義한 것이었기 때문에 各 特目高의 性格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한국 교육 개발원이 제안한 제5차 교육 과정(안)에서 모든 特目高의 교육 과정을 開發함으로써 그 性格을 다소나마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앞 章에서 記述한 교육 과정 개발에 고려한 몇 가지 유의 사항과 원칙을 감안함으로써 特目高의 性格과 教育目標는 개념적으로도 분명히 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未盡한 점이 있었다면, 반복하거니와 法的 根據의 不分明이다. 특히 各 特目高 學生의 性格(英才集團 및 特殊 才能集團), 進路, 進學에 관한 制度的 裝置가 別途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特目高의 理想的 模型의 교육 과정을 제시하는 데 限界가 있었다. 이 점은 앞으로 特目高의 教育課程이 극복해야 할 課題라고 볼 수가 있다. ◆

〈참고문헌〉

경기 과학 고교, 「학교 운영 계획서」, 『과학 고교』 1985.

문교부 『고등 학교 교육 과정』 1981. 12. 31. (문교 고시 제 442 호)

문교법전 편찬회, 『문교법전』 교학사, 1986. 4. 20

한국 교육 개발원, 「고등 학교 교육 과정(안)」, 1985. 5. (프린트물), 「제 5 차 고등 학교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세미나」, 1987. 3. 6.

Barbe, W. B. & J. S. Renzulli, *Psychology and Education of the Gifted* (3rd ed.), New York, Irvington Publishers, Inc, 1981.

◇ 원고 공모 ◇

『교육개발』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내용 : 논단, 연구보고, 연구동향, 현장교육연구 및 사례, 교육정보에 관한 원고 등
2. 매수 : 45매 내외 (200자 원고지)
3. 원고 접수 : 수시 접수
4. 고료 : 매당 2,000원 (채택된 원고에 한함)
5. 제출처 : 우편번호 135
   서울시 강남구 우면동 산20-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부 출판실
   (전화 572-5021)
6. 제출된 원고는 본원 出版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

外國語學校 教育課程의 基本方向

崔 震 晃*

Ⅰ. 教育課程 制定의 必要性과 改正方向

현재까지 외국어 학교로 設立認可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학교는 서울 2개교, 부산, 인천, 경기도, 전남에 각각 1개교씩으로 모두 6개교다. 이들 학교들은 아직까지 정규 고등 학교로 인가되지 않고 특수계 고등 학교의 성격을 띤 각종 학교로서 문교부로부터 학력 인정을 받는 外國語學校이기 때문에 정식 교육 과정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업계 교육 과정에 준해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어 학교의 경우 학교의 성격이나 설립 목적, 사회적 여건, 학생, 학부모의 현실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실업계 교육 과정에 준해서 教育課程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基礎研究結果로 알 수 있었다. 외국어 학교에 맞는 목표, 전문 교과의 편제, 운영상의 유의점도 없이 教育課程을 운영하는 것은 설계도 없이 特殊目的用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외국어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보며, 制定方向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全人教育을 경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外國語教育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어 학교라고 해서 中等普通教育目標를 무시하고 전공 교과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知識, 情報 등 이론 중심을 배제하고 외국어에 대한 기능을 길러 意思疎通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3) 전공 과목 수와 선택의 폭을 넓혀 학생의 必要 및 要求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계속 교육과 완성 교육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이 制定되어야 한다.

Ⅱ. 論議되어야 할 內容 및 問題들

1) 外國語學校의 性格

첫째, 계속 교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1) 우리 나라의 社會的·經濟的 構造가 외국어 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직업 전선이나 국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외국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외국어 기능을 쌓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또 외국어 기능을 필요로 하는 職場을 점원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수준의 일반 교양과 인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국어 학교 학생들이 일반교양 외국어에 대한 상당한 기능이 있더라도 각 직장에서 이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2) 외국어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就業을 목표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에 대한 기능을 조기에 습득함으로써 大學進學 또는 졸업 후에 학문 연구나 사회 역활에서 도움을 얻고자 진학한다는 사실이다. 외국어 학교의 성격을 完成教育으로 보아 초보적인 외

* 教育課程研究部·外國語教育研究室長

국어 기능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高等學校 課程에서 익힌 외국어 기능과 국제 감각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고급 기술과 학문을 연마한 뒤에 국제 사회로 진출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는 견해다.

둘째, 外國語學校의 성격을 완성 교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다.

1) 외국어 학교 설립 認可시 교육 과정 편제 및 운영을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에 준하도록 한 것은 고급 인력은 국내 대학이나 외국의 대학에서 길러내고 간단한 관광 안내 및 점원 등과 같은 현재에 많이 부족한 초보적인 외국어 기능 인력을 養成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符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3년 동안에 초보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좋은 시설에서 외국인 교사를 많이 채용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 어느 정도의 기능을 확보할 경우 國家機關에 우선적으로 취업시킨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세째, 외국어 학교의 성격을 完成敎育과 繼續敎育의 중간으로 보자는 견해다. 현대의 교육은 평생 교육의 이념 아래 양면을 살릴 수 있도록 되어져 가는 추세이며, 이 양 기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敎育課程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계속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반계 고교도 진학률이 54% 정도에 불가하며 완성 교육을 목표로 하는 실업계도 진학률이 13%에 달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强調點의 차이는 두되 양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다.

2) 普通敎科와 專門敎科의 比率

첫째,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비율을 70%:30%로 하자는 견해다.

외국어 학교의 성격을 계속 교육과 완성 교육의 중간으로 볼 때, 外國語學校의 학생들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업계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의 최저 비율인 40%를 따르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교육법 15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문 교과 履修單位의 최저 비율을 3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예·체능계의 경우는 전공 과목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大學入試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실업계의 경우도 전공 과목을 많이하여 일정한 기능만 확보하면,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外國語學校의 경우 회화, 작문 능력이 좋다고 해서 대학 입시 성적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수계 및 실업계 고등 학교와 구별하여야 한다는 견해다.

둘째, 전문 교과를 최저 40%선 또는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다. 만약 전문 교과의 최저 비율을 30%선까지 하향 조정할 경우, 인문계 고등 학교와 구별이 묘연하게 되며, 이 학교에 입학할 경우 대학도 갈 수 있고 외국어를 인문계 고등 학교보다 좀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利點때문에 과거의 일류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3) 專門學科間의 比率

첫째, 전문 학과의 비율에서 영어의 비율을 높이고 독어, 불어 등 제2 외국어의 비율을 낮추자는 견해다.

우선, 현재 사회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영어 학과에 대한 人力을 양성한 다음에 차차 제2 외국어에 대한 비율을 높여 나가자는 견해다.

둘째, 英語와 제2 외국어 학과의 비율을 50%:50%로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다. 미래 사회는 영어 사용권 국가에만 依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論議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상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基礎硏究 및 각계 전문가들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社會가 외국어 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미래의 국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을 길러야 할 것인가를 正確히 판단하여 이에 맞는 敎育課程을 제정할 것이다.

科學高等學校의 教育課程 構想의 基本方向

韓 鍾 河*

1983년 경기 과학 고교를 효시로 1984년에는 大田, 全南, 慶南 등 3개의 科學高가 設立되었다. 이들 學校의 設立趣旨가 科學英才 教育을 標榜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特殊目的 學校로서의 別途 教育課程은 갖지 못하고 實業系 高校의 교육 과정 운영 세칙을 援用하여 일반계 고교 교육 과정을 準用하였다. 이러한 교육 과정의 운영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예컨대, 科學 英才의 心理的 特性을 充足시키는 데 있어서 일반 고교의 교육 과정은 限界가 있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科學高等學校는 一般 및 實業系 高等學校와는 달리 基礎科學 分野의 人材를 早期에 發掘, 養成한다는 特殊教育 目的을 가지며, 學生集團도 一般 및 實業系 高等學校 學生과는 다른 素質, 興味, 다양하고 심화된 學習意慾 및 빠른 學習速度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교육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科學高等學校 學生의 成長發達을 促進시킬 수 있는 教育課程의 構成과 運營을 보장하는 法的인 根據가 없어 4개 科學高等學校는 일반 高等學校에 準하여 자체적으로 教科目의 名稱 및 內容을 구성한 다음 文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학교 나름대로 운영하였다.

실은, 科學高等學校 教育課程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動機, 進路 등에 부합되는 教育內容을 그들의 學習樣式, 知的 水準 및 情意的 特性에 맞게 제시할 수 있도록 設計되고 構成되어야 한다.

科學高等學校 教育課程開發의 基本立場을 "科學英才들의 넓고 깊은 興味, 빠른 學習速度(특히 數學 및 科學)를 充足시킬 수 있는 科學高等學校의 별도 教育課程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또, 科學高等學校가 科學英才 教育機關으로서의 機能과 役割을 다하기 위해서는 教育課程이 학생들의 特性에 부합되고, 그들의 認知的, 情意的 成長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다음과 같은 開發原則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다.

첫째, 個人의 全人的인 成長發達을 圖謀할 수 있는 教育課程이 되어야 한다. 教科活動과 特別活動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教科活動 내에서도 知識 教科와 藝體能 教科의 조화있는 편성·운영으로 知的인 면뿐만 아니라 情意的, 身體的 發達을 균형 있게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또 教養教育과 專門教育, 그리고 生活教育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책임감과 봉사 정신을 길러 주고, 학생들의 趣味와 嗜好를 위해 特別活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둘째, 學習者의 選擇의 폭이 넓어지도록 다양하게 설계한다. 科學高等學校 學生들은 興味, 學習方法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개인의 選擇이 제한되지 않고, 學年에 제한됨이 없이 다양한 學習活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科學高等學校에서는 학교의 특수 여건에 따라 專門教科目의 이수 단위수를 총이수 단위수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공통 필수 교과목의 경우 학교 사정에 따라 교과목당 2단위의 범위 내에서 이수 단위수를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

* 本院 研究委員·哲博

통 필수 교과목의 이수 단위수에 구애됨이 없이 전문 교과의 선택 과목을 보다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一般系 高等學校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실험 코스(물리 실험, 화학 실험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 내용을 다루는 코스(수학 Ⅲ, 고급 물리, 물리 특강 등), 컴퓨터 과학, 전자 과학 등의 코스가 포함되도록 한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제 연구(project method) 중심의 개인 연구 코스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세째, 敎育課程은 문제 중심으로 탐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즉 학생들의 自律的인 學習態度, 꾸준한 探究心, 자유롭고 참신한 着想 등을 주축으로 하는 問題解決 중심의 탐구활동을 많이 경험하도록 한다. PSSC 물리 과정이나 BSCS 생물 과정을 물리 Ⅲ이나 생물 Ⅲ에서 활용하도록 제시한 점, 학생 스스로 간단한 실험 기구를 고안·제작하는 워크숍 코스, 전자 부품을 이용하는 전자과학 코스, 개인 연구 Ⅰ 코스 등은 이러한 개발 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개인 연구 Ⅱ 코스를 통해 특정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 대해 보다 깊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네째, 科學高等學校의 敎育課程은 학생의 能力과 適性에 따라 그들 스스로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이 學年이나 學級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뛰어난 學習能力과 學習速度에 따라 深化 또는 速進學習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개방적 敎育課程 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보통 교과의 이수 단위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한 점, 專門敎科의 編制에서 學問의 知識構造와 系統을 고려하여 물리Ⅱ, 물리Ⅲ, 물리 특강 등을 개인별 또는 소집단 활동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각 개인의 포부와 嗜好에 따라 스스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특히 개인 연구Ⅱ(물리 특강, 화학 특강 등) 코스는 개인 학생의 흥미, 적성 및 진로에 따라 아주 발전된 특정 분야의 과학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것이다.

다섯째, 敎育課程 運營의 融通性이 보장되도록 한다. 科學高等學校는 가능한 한 최상의 교육 환경과 과학 교육 여건을 갖추고 기존 관련 법규와 체제 내에서나마 敎育課程의 編成과 運營의 융통성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科學高等學校의 교육을 內實化하고 보다 質 높은 교육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는 최초의 敎育課程이 오히려 學校의 自律性을 침해하고 敎育課程 運營의 융통성을 좁혀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수 단위수, 교과의 편제와 운영, 교재의 선택과 활용, 평가 등의 모든 측면에서 학교의 융통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전문 교과의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최소 이수 단위수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시한 점, 선택 과목별 이수 단위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敎育課程의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科學高等學校 敎師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이 되도록 한다. 앞에서 열거한 교육 과정 개발 방향을 충실히 따르되, 科學英才敎育의 방향 정립과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교사들에게 학습 지도의 구체적인 指針을 주는 敎育課程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교육 과정 운영상의 기본 원칙, 교과 내용과 편제, 학습 지도, 특별 활동, 교과서와 학습 자료, 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분하여 운영상의 유의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상에서 열거한 基本方向은 어디까지나 案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혹은 보다 나은 方向이 제안되면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

藝術高等學校 教育課程의 基本方向

尹 亮 熙*

1. 制定의 必要性과 方向

예술 교육은 생활 감정의 표현 또는 感情體驗의 구성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주변 즉 자연의 어디에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美의 世界를 탄생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예술 교육은 創造性의 계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감성적으로 미를 느끼고 나타내는 작용은 表現의 主體로서 개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예술의 표현은 우선 美的 感性을 가지고 대상의 본질을 응시하고 포착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대상과의 새로운 접촉 즉 체험에서 얻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예술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경제와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나라의 藝術英才들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였다. 서울 藝術高等學校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을 시초로 현재 10여 개의 예술 고등 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예술 고등 학교의 설립이 우리 나라 예술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設立目的에 따른 예술 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준비가 뒤따르지 못했다.

文敎部가 예술 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운영은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에 준거하여 작성·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서 예술 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 일본 등의 예를 보더라도 국가가 예술 고등 학교에 부여하는 교육 과정이나 기준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 과정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준거는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이나 미국〈뉴욕주〉의 경우, 예술 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은 없으나 관련 규정이나 교육 과정 자료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 : 예술(東京 : 文部省, 1979) 편을 근거로 학교 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뉴욕주)의 경우는 주에서 제시하는 교육 과정 지침에 예술 교과를 두어 中等學校에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高等學校에서는 장르별로 자세한 지도서를 교육 과정 자료로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주 수준에서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基準을 제시하는 것은 學校敎育이 공통성을 지니면서 特性을 살려 운영할 수 있는 基礎를 제공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술 고등 학교의 基本性格을 바르게 규정하고 이에 따라 目標를 설정하며, 내용의 골격을 제시하여 예술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제시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예술 교육은 時代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美學的 接近의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 19세기부터 금세기 초까지의 예술 교육은

* 敎育課程硏究部·硏究員

작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機能을 강조하는 교육, 個性 및 創意性 尊重을 위한 교육, 美的 感覺 및 知性을 重視하는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의 예술 교육은 미학적 접근이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음에 비추어 Davis(1975)는 다음과 같이 예술 교육의 사조를 정리하고 있다.

첫째, 20世紀는 예술품 또는 제품의 生産技術 악기의 연주 기능 등이 강조되었다.

둘째, 今世紀 전반까지는 손의 기능 발달과 예술의 문화적 성격을 강조하여 知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째, 今世紀 중반 이후부터는 學生의 興味, 個性, 創意性 등을 강조하여 크게 보급되었다.

네째, 1960年代 이후에는 특히 音樂的 思考, 視覺的 思考 등 예술에서의 知性 및 創意性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고, 70年代 이후 지각, 미적 감수성, 미학적 탐구력, 감상 능력 등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70年代 이후 音樂, 美術, 演劇, 舞踊 등 예술 교육은 장르별로 특정의 기술이나 지식에 국한되기보다는 좀더 근원적인 미적 감성과 지성을 강조하려는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들이 우리 나라 예술 고등 학교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시사하는 것은 예술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근원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예술 교육은 기초·보통 교육의 성격이 확실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예술 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다른 학문과는 달리 그 내용과 방법에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예술의 본질적 성격은 지식, 개념, 기술을 가르치는 교과와 다르기 때문에 目標, 內容, 指導方法 등을 알맞게 구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이 인간의 삶에 근원적인 것이라면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의 장르는 좀더 폭넓게 뭉칠 수 있는 통합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술 영역끼리의 상관과 통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영역과의 통합적 성격이 내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은 예술계 고등 학교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을 표방하는 편협된 개념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예술 고등 학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예술적 재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학과 및 교과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藝術의 基礎的 能力을 伸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大學의 進學 등을 통한 예술 교육의 연계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2. 論議되어야 할 內容

• 藝術高等學校의 性格 및 目標

지금까지 예술 고등 학교의 운영은 자체 개발된 교육 과정에 의한 것이어서 학교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는 하나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 普通敎科와 專門敎科의 運營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專門敎科의 編制

학교의 特性이나 학생의 素質을 고려한 선택의 폭을 넓힌다.

• 類似學科와 專攻의 設置

• 指導內容의 組織化

• 施設 및 敎科用 圖書의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研究報告 ◇

韓國 外國語教育의 課題와 發展方案*

—國民海外進出의 活性化를 위하여—

崔 尙 根**

Ⅰ. 研究의 背景

해방 이후 우리 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러한 國家發展政策이 교육에 미친 영향 또한 심대하였다. 특히 이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은 교육에 대한 기대로서 경제 분야에 종사할 적합한 人力의 供給을 크게 요청하였으며, 따라서 교육 체계에서는 그 주된 目標方向으로서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게 되었고 체제 및 과정 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또한 이러한 政策에 힘입어 국가 발전이 거듭되어 왔으며, 따라서 국가 간의 관계가 증대하고 복잡해져 갔고,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해외 진출은 幾何級數的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즉, 海外就業, 貿易, 商業, 移民, 留學, 觀光 등 각종의 해외 방문자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해외 방문 목적에 적합한 실용적 외국어 능력의 질 높은 수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외국어 교육은 그와 같은 상황 변화와 필요에 상응하는 체제와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대체로 실패하였다고 보고 있다.

과거 왕조시대에도 외국어는 존재하였지만 국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中國語와 日本語에 한하여 소수 관리를 양성하는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으며, 국민적 차원에서의 교육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한편, 개항기 이후 西歐世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소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나 日帝에 의해 크게 실효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영향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전쟁을 끝내고 난 우리 나라는 심대한 戰禍 속에서도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점차로 체제를 定立해 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매우 높은 敎育熱과 그 동안 억눌렸던 교육권의 회복으로 인하여 비좁은 학교 교육 기회를 잡기 위하여 극심한 入試競爭이 유발되었고, 따라서 하급 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준비 교육으로 일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外國語敎育은 문법, 지식 암기 위주의 인지 기능 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과대 과밀 학급 상황 속에서 새로운 敎授法의 開發·活用도 곤란하게 되었고 담당 교원 역시 양성 기관에서 학습한 방법 및 내용이 인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기자재는 당시 우리 나라 재정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교원의 現職硏修 또한 미비하였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이 入試制度, 學級狀況, 敎育施設 및

* 이 글은 裵天雄, 崔尙根이 연구한 연구보고 「RR 86-5」를 요약한 것임

** 敎育發展硏究部 · 硏究員

環境, 교원의 자질과 그 향상 대책 등 외국어 교육의 모든 체제가 인지 기능 교육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던 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외국어 교육은 대체로 언어 교육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교육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단적으로 말해서 벙어리 교육이었다고 평가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의 발전 정책으로서 지향하고 있는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이 교육 체계에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각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배양해 주고, 또한 언어 교육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의미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쟁점이다. 다시 말해서 보다 表現技能教育이 강화되는 방향을 지향하면서 우리 나라의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Ⅱ. 研究의 目的

이상과 같은 교육내적, 외적 배경에 터해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인력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극적인 인력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外國語 驅使能力의 향상을 위한 교육의 강화 방안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즉, 본 연구는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외국어 활용 인력의 증대→국민 해외 진출 촉진 및 증대→국가 발전'이라는 개념 도식하에서 외국어 교육을 活性化할 수 있는 갖가지 방안들을 탐색하였다.

Ⅲ. 研究의 方法 및 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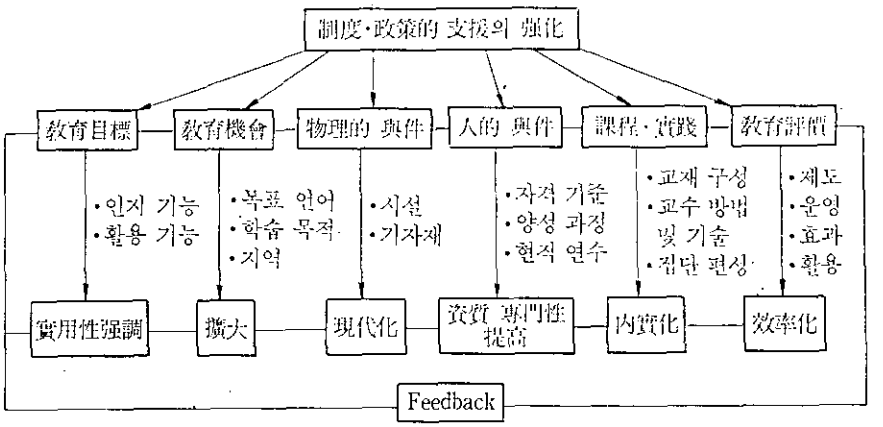
우리 나라 外國語教育 活性化方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 본 연구는 1985~1986년에 걸쳐 2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 연도별 연구 목적과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연도의 주요 연구 목적은 社會教育機關에서의 외국어 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헌 연구, 전문가 협의회 개최, 조사 연구, 사례 연구 등이 동원되었다. 조사 연구에 있어서 대상 기관은 사회 교육 기관에 포함되는 私設外國語學院, 大學附設外國語研修院, 企業體附設研修院, 公共研修院 등 네 가지 기관 유형에서 124기관의 운영자와 1700명의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社會教育機關에서의 외국어 교육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 조사 연구에서 미비된 교육 실천 과정과 운영의 실제 측면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2차 연도(1986년)의 사업 추진 목적은 1차 연도의 연구 결과와, 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외국어 교육 전반에 걸친 活性化方案을 수립·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文獻研究와 專門家協議會가 주요 연구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정규 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물, 유관 학술 잡지 및 논평 기사 등을 분석하였다. 1차 연도에서 나타난 사회 교육 기관의 외국어 교육 실태와 금년도에 파악된 정규 학교 외국어 교육 실태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외국어 교육 활성화 방향을 논의·수립하였으며, 이 수립된 활성화 방향에 터하여 수립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차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에서 수정·보완·제시하였다.

Ⅳ. 外國語教育의 活性化 方向

과거 왕조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대강의 외국어 교육 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 正規學校 및 社會教育機關에서의 외국어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진단, 최근 국내외 외국어 교육의 이론적 洞察, 檢討 등의 결과에 터해서 교육의 목표, 교육 기회, 교육 여건, 교원, 교육 과정 및 실천, 교육 평가, 지원 체제 등 일곱 분야에서의 활성화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 일곱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사용된 기본적인 준거 등을 모아 다음 페이지의 〔圖-1〕로 提示하였다.



〔圖 1〕 外國語敎育 發展模型

V. 外國語敎育의 活性化方案

1. 外國語 敎育目標의 改善

외국어 교육 목표 부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외국어 표현 기능 교육은 그 자체로서 교육 목표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과 같이 문화 교육의 수단 또는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목표는 외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言語敎育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각 영역별 달성 목표가 분명하게 提示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 교육 기관은 당해 기관과 대상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명백한 교육 목표를 수립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 교육 기관이 상호 보완적으로 외국의 교육 목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學生集團이 사회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에 참여할 수 없는 현 제도하에서는 사회 교육 기관이 대체로 외국어를 이미 수년간 학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敎習시키고 있고, 또한 그 學習目的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교육 목표 수립 및 그 활동에 있어서 사회 교육적 기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外國語 敎育機會의 擴大

외국어 교육 기회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은 우선 그 학습 기회가 현재보다 增大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조기 외국어 교육 이론과 초등 학교 외국어 교육 실시 운동(FLES movement)에 힘입어 국민 학교에서부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보다 학습 기간을 늘려서 국민 학교 4학년부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제2외국어 교육도 보다 학습 시기를 앞당겨 중학교 2학년부터 실시함으로써 그 기간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 기회는 일

반적인 외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특수한 학습 목적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기회도 증대해야 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외국어 교육은 주로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에만 注力해 왔기 때문에 직업 전선에 나아가 거기서 필요한 외국어를 시급하게 새로이 학습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직업적 직무 수행이 遲延되는 결과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수준까지 특수한 學習目的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강화가 크게 요청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우선, 각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 목적을 교육 대상에 收斂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진해에 海洋, 부산, 인천에 商業 내지는 貿易, 제주와 경주에 觀光 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지역적 특수성이라 할 때 이들 지역에 이와 관련한 외국어 교육 전문 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人文高를 제외한 特殊目的高, 實業高, 專門大 등에 그 학교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분야에서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도 첨언될 수 있겠다.

또한 초·중·고 외국어 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정규 학교 외국어 교육의 마무리를 짓는 단계로서 대학의 외국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교양 과정에 외국어 과목을 필수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는 교육 기관과 학습 목적 등의 측면에서 機會擴大方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學習場所의 提供이라는 측면에서의 기회 확대 방안으로서 언어 마을(language town)의 設立·運營을 제시하였다. 외국어 교육은 그 외국어를 말하는 원어인과의 직접 경험 학습을 통해서 학습될 때 가장 효과적이며, 또한 그 외국어가 말해지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습될 때 보다 원숙한 意思傳達과 疎通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험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정부 당국, 기업체, 외국 공관 등이 협동하여 언어 마을을 건설 운영한다면 국민에게 보다 많은 직접적인 학습 기회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국민들의 외국어 학습 의욕을 크게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교육 기관에서의 기회 확대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다. 즉, 우선 각 대학은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부설 외국어 연수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봉사 기능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며, 敎育放送局은 社會一般人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 방송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외국어 학습 기회의 증대를 위해서 외국 공관의 역할 분담이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은 계속 늘어나는 해외 근무 후 귀국자 자녀 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이들 자녀가 해외에서 학습한 외국어 능력을 유지 신장시키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外國語 敎育與件의 現代化

외국어 교육의 중요 시설의 하나인 言語實習室이 법·제도적으로 권장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크게 외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 밖의 외국어 교육 관련 교구 및 시청각 기자재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시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 계속하여 개발되고 있는 현대적인 기자재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여건은 교원의 교수법 활용과 밀접히 관련되어서 교육 성취에 이어지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대체로 교육 재정 확보 및 투자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문교 예산 결정권자와 교육 정책 입안자 등의 외국어 교육 여건의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外國語敎員의 資質과 專化性 提高

敎員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집단이다. 따라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提高시켜 나가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어 교원은 타교원과는 달리 외국의 문화 교육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異質感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교육관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직 외국어 교원의 연수 교육이 강화되고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연수 교육은 외국어 교원의 교육관을 바로잡는 정신 교육뿐만 아니라, 보다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공 연수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職前敎育과 거의 유사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외국어 교원 연수 과정을 개선하여 학급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인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 職前敎育의 과정도 그 교육 내용 구성을 개선하여 보다 전문적인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여 교원 양성 기관의 담당 교수의 전공별 적정 교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어 교원 연수 과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指示·命令 위주의 장학직 운용을 지양하고, 자율과 협동을 근간으로 하는 장학직 운용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 교육 기관의 외국어 교원을 위한 자질 향상 대책이 전혀 없는 관계로 그 敎育力을 보다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社會敎育機關의 외국어 교원을 위한 재교육 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정규 학교 및 사회·교육 기관의 외국어 교원을 위한 방송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새로 교원이 되고자 하는 교원 후보자들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고, 그 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 수여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고시 제도로 전환·운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5. 外國語 敎育課程 및 實踐의 內實化

교과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가능한 외국어 교육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그 학습 참여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正規學校에서든, 사회 교육 기관에서든 외국어 실습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법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개인 및 집단 외국어 활동의 다양한 방법과 교실 밖 수업 형태들을 대안적으로 제시하였다.

6. 外國語敎育 評價의 效率化

평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평가는 교육 목표를 잘 반영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 목표에서 구분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의 각 영역별로 습득된 능력 수준을 등급화하여 평가하는 외국어 공인 검정 제도를 수립·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것은 國家考試制로 시행하여야 보다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이 외국어 공인 검정 제도에서의 평가 방식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을 포함하여 사회 일반인이 일정 수준을 취득하였을 때 이에 상응하는 資格證을 발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 제도의 결과를 입학 시험, 취업 및 승진 시험 등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계속 협조해 나감으로써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7. 支援의 强化

이상에서 언급한 갖가지 方案들은 어느 한 사람 또는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노력으로는 그 기대 효과를 모으기가 어렵다. 政府 各部處 有關機關, 그리고 외국어 교육 담당자들의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 나타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외국어 교육을 하나의 교과 교육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극단적인 민족주의에서 비롯되는 외국어 교육의 경시 관념에서 벗어나 앞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가 國家發展에 직결되고, 개인의 발전과 文化生活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적극적이고, 범세계적이며, 발전적인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보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의식이며, 이러한 價値意識을 밑바탕으로 하여 외국어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었을 때 외국어 교육 효과가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 研究報告 ◇

教育放送 活性化 方案 研究*

金 承 華**

Ⅰ.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그 동안 우리는 국가 발전의 지름길이 교육에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教育力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教育의 量的인 成長에 質的인 向上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60年代초부터 사회가 급변하면서 學校教育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의 향상을 기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學校教育의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時代的 狀況의 變化는 보다 새로운 教育體制의 확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70年代에 들어오면서 大衆文化를 이끌어 가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광범위한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이 학교 교육은 물론 사회 교육 또는 계속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하나로서 期待를 모으게 되었다. 특히, 지나친 入試競爭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비정상적 운영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되면서 放送을 교육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地域間 教育隔差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육 전용 방송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教育放送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社會教育 또는 繼續教育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초보적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放送制度 및 제반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6년은 過熱課外의 해소를 至上課題로 3TV가 개설된 지 만 5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3TV가 教育手段 내지는 教育專用放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제도, 정책, 수용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왔다. 이를테면, 運營制度面에서 급히 放送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설비와 영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채널의 책임을 일원화할 수 있는 합리적 運營體制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放送時間과 編成內容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수신 범위가 좁은 UHF라는 전파 방식을 비롯한 기술상의 문제, 학교 현장의 수용 설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教育放送의 발전과 활성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안목에서 教育放送의 목표를 再定立하고, 制度의 개선 방안과 편성, 그리고 기획은 물론 시청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2. 研究問題

본 연구는 教育放送의 목적과 역할을 물론

* 이 글은 김 학천, 김 승화, 신 영숙, 김 갑주가 연구한 연구보고 「RR-86-13」을 요약한 것임.

** 教育放送本部 · 放送教育研究 Ⅰ室長

制度와 운영, 편성과 내용, 수용 환경의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研究問題를 설정하였다.

(1) 教育放送의 개념과 역할은 무엇인가?

(2) 教育放送의 발전 과정과 발전의 沮害要因은 무엇인가?

(3) 현재의 教育放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4) 외국의 教育放送 운영 사례에서 教育放送 활성화를 위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5) 教育放送 活性化를 위한 基本方向과 대책은 무엇인가?

3. 研究方法

1) 文獻 및 關聯資料分析

教育放送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통하여 교육 방송의 성격과 기능을 규명하는 한편 교육 방송의 발전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발전 저해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교육 방송 활성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요약함으로써 현재의 교육 방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대책을 정리하였으며, 외국의 교육 방송 운영 사례를 통하여 우리 교육 방송의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을 얻었다.

2) 質問紙調査

(1) 교육 방송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기능 역할 측면에서 본 교육 방송에 대한 평가, 제도·운영 측면에서 본 교육 방송의 문제점, 교육 방송에 대한 요구 등을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 대상을 放送言論界, 教育界, 學界, 放送行政界, 一般視聽者로 분류·선정하고 각계 70명씩 350명으로 하였다. 질문지의 회수율은 약 60%이었다.

(3) 자료는 백분율로 처리하여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3) 協議會 運營

院內·外 專門家 및 教育改革審議會 專門委員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하여 연구 계획의 보완 및 연구 방향을 위한 자문, 질문 내용의 검토, 교육 방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Ⅱ. 教育放送의 槪念과 役割

1. 教育放送의 槪念

放送媒體는 印刷媒體에 비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장벽을 초월하여 모든 수용자들로 하여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교육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TV는 언어와 함께 각종 영상적 부호를 사용하여 情報의 傳達은 물론 시청자의 지적·정의적 학습에 영향을 주고 사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교육적 기능을 가진 매체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放送媒體의 교육적 기능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방송은 불특정 대상의 기호나 상업적 경영과 기업의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으로써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와 함께 반교육적 효과도 내포하고 있다. 즉 상업적 경영으로 인한 소비 풍조의 조장은 물론 오락 위주, 폭력 등의 放送內容이 정신적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비교육적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教育的 機能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본래 의도적이며 가치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적 활동이므로, 방송이 교육적으로 활용되어질 때에만 그 교육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반 방송의 교육적 효과와 교육 방송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되어져야 한다.

教育放送이란 인간의 정신적 작업인 교육과 여기에 바탕을 둔 기계·기술적 작업인 방송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개념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작용 (최정호, 1980)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특정한 교육 목표와 대상에게 미리 계획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정의 教育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방송(홍기선·박기성, 1983)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教育放送은 교육을 위한 방송, 또는 방송을 통한 교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교육의 의미를 보다 광의로 해석한다면 學校教育을 중심으로 의도된 教育課程에 의하여 非營利的으로 운영되는 學校教育 放送과 사회의 교육적 필

요에 의해서 광고 없이 행하는 모든 非營利的·非商業的 放送인 社會敎育放送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2. 敎育放送의 役割

1) 平生敎育的 側面

최근 전세계적으로 學校敎育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平生敎育體制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학교가 그 나름대로 교육적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사회의 모든 교육적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敎育의 槪念, 敎育의 機會, 敎育의 機能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교육은 특정한 기간이나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바로 放送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평생 교육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평생 교육 체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파 매체는 수신기만 준비되면 무한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社會敎育的 側面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새로운 生活情報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생활 무대가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에 高度의 知識과 技術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직업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職業敎育, 外國語敎育, 職業情報, 生活情報는 물론, 敎養敎育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成人敎育 외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바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靑少年 善導와 幼兒敎育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절실하고도 학교와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 과제를 방송이 교육적으로 수용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사회 교육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學校敎育的 側面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가 허다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에 절실한 문제는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敎授-學習資料의 계속적인 공급과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敎育放送 자료는 學校敎育의 質을 개선하고 敎育課程의 운영을 풍부화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설비와 방법만 강구한다면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들의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Ⅲ. 敎育放送의 發展過程에서 본 問題點

우리 나라의 교육 방송은 약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특징적으로 구분하자면 라디오에 의해 학교 교육 방송을 실시하던 시기와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敎育放送이 태동되고 탄생한 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특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구분하면 라디오 학교 방송 전기(1951~1962년), 라디오 학교 방송 후기(1963~1971년), 교육 전문 방송 태동기(1972~1981년), 교육 전문 방송 정초기(1982~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 방송 전기는 6·25 전란으로 인한 피난수도 부산에서 시작된 '라디오 학교'가 효시가 되어 수복 후 1962년 이 방송이 중단되기까지의 기간으로써 주로 교사를 위한 정보를 放送內容으로 시작하여 환도 후에는 점차 敎科敎育放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로 학교 교육에 치중되었고 送出을 KBS가 맡았고 編成과 制作을 '한국교육방송협회', '서울시교위' 등이 맡는 등 운영 기관의 변동으로 인한 일관성 있는 운영이 되지 못하였고 豫算의 不實을 겪어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더우기 학교 현장의 수용 설비의 부족도 發展을 沮害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학교 방송 후기는 중단되었던 라디오 학교 방송이 재개된 1963년부터 1973년 油類波動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른 방송 시간의 단축과 함께 이를 중단한 시기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보다 학교 교육 내용과 직결되는 교과 내용 방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방송위원회'를 조직하고 企劃·編成·制作을 담당하고 KBS가 送出을 맡았으나 여전히 制作 및 送出의 二元化에서 발생되는 갖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왔으며 양적·질적으로는 확대·발전되는 면이 있었으나 학교 현장의 수용 태세의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교육 전문 방송 태동기는 1972년 한국 교육 개발원이 설립되면서부터 1981년 제 3TV의 개설 이전까지의 기간으로서 한국 교육 개발원 육성법(법률 제 216 호)이 制定되어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위한 라디오 및 TV 방송과 송신 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무선국 허가까지 얻게 되었다. 특히 TV 방송을 천연색으로 하고 기구에 의한 송출 방식을 채택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추진되었으나, 기술적 실패로 인하여 이의 추진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끝내 교육 전용 방송국의 설치를 바라던 교육계의 염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말았으며 현실적 여건에 맞추어 制作과 送出을 二元化하는 체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 7월 30일 교육 개혁 조치에 따라學校教育을 위한 TV 방송을 실시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도 教育放送의 役割과 機能에 대한 政策立案者들의 인식의 결여와 기술적 검토는 물론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던 것이 오늘의 문제를 잉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전용 방송 정초기는 KBS 제 3 TV(UHF)와 교육라디오(FM)를 교육 전용 방송망으로 설정하고 송출을 시작한 1981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개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幼兒 및 學校教育을 위한 프로그램을 KEDI가, 成人教育을 위한 프로그램을 KBS가 분담 제작하는 한편, 송출은 KBS가 맡는 이른바 制作과 送出의 二元化體制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二元體制하에서도 그 동안 나름대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채널의 운영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不分明하고 編成·企劃상의 마찰과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어서 教育放送의 發展과 定着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교육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효과적인 國民教育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방송 운영 제도와 방송 내용은 물론 전반적 운영 체제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며, 교육방송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육방송 정책과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Ⅳ. 外國 教育放送 運營의 特徵的 事例

규모나 목적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마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教育放送 制度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몇 개 나라의 교육방송 운영 사례를 기능과 역할, 제도와 운영 방식, 그리고 수용 형태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機能·役割 側面

(1) 학령전 어린이의 지능 개발과 사회화의 촉진
(2) 각급 학교 교육의 보충
(3) 독자적인 학교 교육의 수행
(4) 특수 기능이나 예술 분야의 보급
(5) 사회 교양의 제공

2. 制度·運營의 側面

1) 管理面

가. 일원화된 교육방송을 국가가 관리함
나. 비정치적, 비영리적 공영 기관이 운영하고 국가가 감독권을 행사함
다. 비영리적 민간 방송이 운영—국가가 전파를 관리하고 재정에 관한 원칙만 제시하고 감독함
라. 민간 상업 방송에 의한 운영—스폰서가 재정을 지원하고 국가는 방송 기획 및 스폰서와의 관계를 규정함

2) 財政面

가. 일체의 재정을 국가가 부담
나. 수상기 등록세
다. 국가의 지원과 민간 단체의 기부금
라. 스폰서의 협찬
마. 교재 및 제작물의 출판 수익
바. 수상기 등록세 및 광고료

3. 受容 形態 側面

(1) 보조 자료와 지도자의 도움없이 시청
(2) 교재 및 보조물을 보면서 시청
(3)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시청
(4) 교육 자료와 평가를 받으며 시청

V. 우리 敎育放送의 現況과 課題

교육방송의 목적과 기능, 조직과 운영 주체 및 재원·송출 수용 환경에 대하여 수용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目的·役割 側面

현행 교육방송의 최우선 과제였던 過熱課外 해소의 효과에 대하여 70% 이상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의 지역간 격차의 해소에는 50% 이상이 肯定的으로 보고 있으며 학습의 흥미를 높여 주고 있다는 반응도 50%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교육 기능에 대하여도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밖에도 靑少年敎育에 주는 도움이나 子女敎育을 위한 정보 제공 효과에 대하여도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 교육의 대상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반응이 70%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전문성과 체계가 없다는 반응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文化暢達을 위한 포괄적 사회 교육 기능의 강화와 학교 수업 보조 기능 및 통신 교육 기능 그리고 청소년 계도 기능을 보다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는 수용자들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체로 교육방송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수용은 되고 있으나 國民敎育을 위한 차원에서의 교육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2. 運營·制度 側面

敎育放送運營의 다원화 현상에 대하여 수용자의 70% 정도가 비능률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KBS에 의한 단독 운영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KEDI에의 단독 운영에 90% 이상, 독립된 제3의 기구에 의한 운영에 70%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運營財源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KBS가 징수하고 있는 시청료나 광고 수입을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고 있으며, 국고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고 있어서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財源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財政支援과 시청료 및 광고료의 배분을 통한 교육 방송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送出方式에 있어서는 현재의 UHF 방식에 의한 가시청권이 학교비 54%, 학급비 59.5%, 학생비 60.1%로 나타나고 있어서 가시청 범위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72% 정도의 시청자가 VHF 방식으로의 송출 전파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3. 編成·프로그램 內容 側面

編成內容面에서 학교 대상 프로그램은 初等學校와 幼兒 및 中學校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사회 교육 분야에서도 청소년 교육과 일반 교양 및 생활 교육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領域別 專門知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學校敎育放送에서는 입시 위주의 프로가 지양되기를 바라는 반응이 75%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學校나 家庭에서 이용될 수 있는 보충 자료성격이 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60%를 넘고 있는 것은 視聽者들의 學習放送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 교육 방송의 대상과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하고

내용이 보다 체계화되기를 바라는 요구도 70%를 넘고 있었다.

또 학교 교육을 위한 방송의 일반 방송과의 경쟁을 피하고 시청자의 접촉도를 높이기 위하여 낮방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65%에 이르고 있었다.

4. 受容環境 側面

현재의 UHF 방송의 가시청권이 인구 대비 60%를 상회하고 있으나 40% 정도가 시청권 밖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용의 한계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學校敎育에서의 수용 실태를 보면 86년 현재 칼러 TV 보유율이 국민 학교 79.9%, 중학교 85.7%, 고등 학교 94.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학급별 TV 보유율을 보면 국민 학교가 20.4%, 중학교 21.5%, 고등 학교 25.9%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수용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녹화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에서 VTR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국민 학교 70.4%, 중학교 70.9%, 고등 학교 82.9%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유 대수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미비된 수용 조건에서의 活用率을 보면 가시청권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는 국민 학교 61.4%, 중학교 46.3% 고등 학교 52.8%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시청권 내 가정에서의 시청율을 보면 더욱 저조하여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시청 설비를 위한 行·財政的, 支援은 물론 가시청권의 확대를 위한 투자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파악될 수 있으며, 교육방송의 시청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Ⅵ. 敎育放送 活性化를 위한 對策

1. 基本方向

교육방송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을 계도하는 하나의 公益事業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방송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 운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1) 平生敎育의 기회 확대
(2) 學校敎育의 질적 개선에의 기여
(3) 효율적인 運營體制의 정립
(4) 敎育發展을 위한 주도적 역할 담당

2. 活性化 對策

(1) 교육방송의 目的 및 機能을 國民敎育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재정립한다.

평생교육 이념의 구현, 사회 교육 기능의 강화,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 등을 포함한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교육방송의 목표와 기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2) 텔레비전을 통한 通信敎育體制를 강화한다.

放送通信高等學校의 텔레비전 講座를 신설하고 방송 통신 대학의 텔레비전 강좌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3) 다양한 계층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방송의 내용을 확대한다.

職業技術敎育, 進路敎育을 위한 방송 내용을 강화하여야 하며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國民經濟敎育, 特殊敎育, 父母敎育, 老人問題, 生活敎育, 海外僑胞敎育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4) 학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敎育-學習資料의 성격을 강화한다.

입시 수험 준비 위주의 방송을 지양하고 中等學校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대신 초등과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며, 중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靑少年啓導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모든 교과 프로그램은 지식 위주에서 학습 보조 자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야 한다.

(5) 學校에서의 敎育放送 活用體制를 整備·强化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낮 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의 수신 및 활용 설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 또는 示範學校를 확대 운영하는 동시에 각 市·道教育委員會에 교육방송 담당 장학사를 두도록 하고 각 市·道 教育研究院은 프로그램의 복사 및 보급 체제를 보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용 방송 기자재를 免稅로 구입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6) 무선국 허가를 가진 교육 전용 방송 기관으로 운영을 일원화한다

· **제 1 안** : KEDI로의 運營 一元化

① KBS의 교양 및 사회 교육 방송을 KEDI로 통합

② 방송 통신 대학 교육방송을 KEDI로 흡수

· **제 2 안** : KBS로의 運營 一元化

① KEDI의 학교 교육 방송을 KBS로 흡수

② KBS 내에서의 교육 방송 운영권의 독립

· **제 3 안** : 제 3 의 教育專擔 獨立放送局을 設立

① 국무총리실의 조정 아래 문교부와 문공부의 협의체 구성

② 교육 방송 위원회와 자문 위원회의 구성

③ 법률적 기반 마련

—교육 개발원 육성법의 개정

—한국 방송 공사법의 개정

—한국 교육 방송국(가칭) 설치법 및 동시 행령의 제정

—한국 교육 방송국(가칭)의 정관 제정

(7) 교육방송의 운영 재원을 확충한다.

기본적 운영 재원은 政府의 出捐金으로 계속 지원하되, 프로그램의 制作 및 施設設備의 영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廣告料 및 視聽料를 방송 시간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광고료를 教育放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방송 공사 규정 제 4 조 3 항에 '교육방송'을 삽입 改正하여야 하며, 교육방송의 전파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교육 방송 시청권을 擴大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현재의 교육방송 송출 방식인 UHF를 VHF로 전환하는 동시에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投資가 있어야 한다.

Ⅶ. 期待效果

1. 教育的 側面

(1)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
(2) 교육의 지역간 격차의 해소
(3) 사회 교육 기능의 강화
(4) 교육의 경제성, 효율성 제고
(5) 방송의 역기능으로부터 보호
(6) 평생 교육 체제에의 기여
(7) 방송 통신 교육의 효율성 제고

2. 經濟的 側面

(1) 운영 일원화로 인한 경비의 절감
(2) 교육 투자의 효용성 제고
(3) 재교육을 통한 인력의 고급화
(4) 건전한 국민 경제 생활의 유도
(5) 생산품의 품질 향상

3. 社會的 側面

(1) 국가 및 사회의 교육 풍토 개선
(2) 공동체 의식의 고취
(3) 전 사회의 교실화 가능
(4) 문화 시민의 자질 향상
(5) 지역간 문화·교육 환경의 격차 해소

◇ 研究報告 ◇

教授-學習資料 活用實態 및 教授-學習方法에 관한 人類學的 國際比較研究*

李 容 淑**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국민 학교 1개교와 서울에 所在하고 있는 5개 외국인(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국민 학교의 3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教授-學習資料 活用實態 및 教授-學習方法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각 학교당 20일 정도(전 수업시간)의 참여 관찰을 토대로 작성한 參與觀察 기록지의 분석(시간—계획 분석 포함)이며, 이 외에 교과용 도서(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학습서 및 학습지)의 체제 분석(분류 체계 분석) 및 교장, 교감, 교사, 학생, 부모와의 심층 면담도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에 터해서 6개 학교의 教授-學習方法을 비교하는 한편, 각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이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수-학습 자료의 체제 및 내용(교과용 도서의 경우), 그리고 종류에 의해 어떻게 影響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수-학습 자료 및 방법이 성적이 다른 학생들의 授業時間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分析·比較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나라의 교수-학습 자료 및 방법의 다양화와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과목별로 분석이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여기에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길기 때문에 다음에는 본 연구의 示唆點(결론) 중에서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수업 운영 방법에 관한 것만 拔萃하여 소개한다.

1. 國語

외국인 학교들과 비교할 때 「서울 한국학교」(가칭)의 국어 수업에서 특히 부족한 것은 읽기와 작문 교육으로, 학교에서 읽는 책의 분량은 미국·영국 학교의 10%도 안 될 것이다. 이를 是正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만하다.

1) 국어를 읽기와 국어(언어), 자유 독서 시간으로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적어도 읽기와 언어는 分離되어야 모든 단원을 시시콜콜하게 다루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읽기 교과서 또는 읽기 자료의 개발이 시급하다. 즉 현재와 같은 교과서 이외에 재미있는 내용으로 된 읽기용 자료와 이해를 돕는 질문 및 토론만으로 이루어진 教科書를 따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1] 또한 미국에서 개발되어 영국·프랑스에서도 사용되는 S.R.A 읽기 카드 상자와 같은 읽기 자료를 개발한다면, 학생들이 授業 중 남는 시간에 부담없이 한 두 개씩 꺼내어 읽을 수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수업 시간 이용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2) 독서 교육은 훨씬 더 큰 比重을 두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서울 영국 학교에서 사용하는 개인 독서 카드 제도는 학생 개인간의 能力과 興味의 차이를 인정하는 효과적인 독서 지도 방법으로, 이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하나의 주제에

* 이 글은 이 용숙, 김 영준, 백 은순, 이 근님, 조 덕주, 김 소연이 연구한 연구 보고 「RR-39」를 요약한 것이다.

**教育發展研究部·責任研究員·人類學博士

1) 문교부에서는 1987년부터 국민 학교용 읽기 자료와 쓰기 자료를 단계별로 개발할 예정이다.

대한 몇 권의 책을 읽고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숙제(개인별 또는 그룹별)를 정기적으로 내주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겠다.[2]

3)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반드시 교조적이거나 딱딱한 내용만으로 構成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환상적인 혹은 창조적인 내용들을 재미있게 꾸며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한다면, 言語能力 또한 더욱 쉽게 배양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 방송의 경우, 미국의 「Reading Rainbow」와 같이, 특정 교훈 및 학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내용을 방영하는 것도 考慮해 볼 만하다. 내용 속에 녹아 있는 교훈을 흥미 위주로 가르치는 것이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도덕 교육적인 효과도 높을 것이다.

5) 작문 교수 방법을 多樣化시킬 필요가 있겠다. 자유 작문 이외에도 협동적인 그룹 작문, 정확하면서도 독창적인 표현력을 길러 주는 영국 학교식의 문장력 강화 훈련, 작문에 대한 평가, 글의 변형 등의 수업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작문에 대해 敎師가 논평을 해주고, 이를 修正할 기회를 주는 것은 정확한 문장력과 작문 능력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작문 교육에서 너무 勸善懲惡的인 짓기 주제에 置重하는 것을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 좀 더 독창적이며 자유로운 표현력을 키워 주는 작문 주제는 학생들 자신의 흥미에 따라 스스로 選定한 것이 될 것 같다.

이외에 우리 나라 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나 지도서를 개발할 때 모든 단원을 劃一的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단원의 특성에 따라 어떤 단원은 문단 나누기, 문단의 뜻 알기 등을 하고 지나가고, 어떤 단원은 읽고 理解만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3] 또한 모든 단원을 化學分析하듯이 세밀하게 다루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만 상세히 다루고 남는 시간은 좀더 많은 새로운 내용을 다루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誘發하는 동시에 좀더 많은 내용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敎授方法이라 생각된다.

(2) 서울 한국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학습지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서울 한국 학교 3학년은 학습지 하나를 오려서 공책에 붙이는 데 5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책자로 만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지에 제시되는 질문도 교과서의 내용에만 限定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3) 학생들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책 뒤의 부록에 사전식의 단어 목록을 붙이거나, 각 단원마다 어려운 단어를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4) 교과서를 개발할 때 교과서의 활자의 크기와 모양, 삽화의 종류, 교과서 여백의 사용 등을 다양하게 한다면, 시각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理解度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5)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와 학습서(지)에는 반드시 교과서의 내용 이해 파악 여부를 묻는 질문뿐 아니라 학생의 想像力을 동원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나 학생들의 추론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사들이 취사 선택하여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이 수업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더 많아진 것으로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즉 두꺼워진 敎科書나 敎師用 指導書는 교사들에게 수업 운영의 자율성 및 융통성을 보장하는 것이라야지, 더 많은 부담을 지워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서울 한국 학교의 고학년에서는 여름 방학 중에 또는 교사에 따라서는 학기 중에라도 이런 보고서 숙제를 내주므로 학생들은 부근에 있는 공립 도서관에 자주 출입한다고 한다.

3) 수업 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Braskamp, 1980; Hamachek, 1975; Rosenshine, 1979; Peterson, 1979; Soar and Soar, 1979)은 교수 방법의 다양성이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데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6) 교사용 지도서에 심화 학습이나 복습을 위한 지도 지침을 별도로 제시한다면, 교사들이 각 단원 또는 소단원에 대한 마무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심화 학습이나 복습용의 괘도·학습서·학습지까지 개발된다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특히 다양한 학습서(지)의 개발은 授業效果를 높여주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일제 수업의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육 상황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學習資料를 개발하여, 우수한 학생이 수업 시간을 낭비하거나, 부진한 학생이 이해가 안 된 채 다음 진도를 나가게 될 可能性을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8) 현재와 같이 월반·낙제가 거의 없는 敎育制度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학생들이 앞의 내용을 배워야 다음 진도의 내용 이해가 가능한 과목(예 : 산수)의 경우에는(또는 같은 과목 내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능력별 그룹 수업의 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능력별 그룹은 학년의 경계를 초월할 수도 있을 것이다.[4]

(9) 敎師用 指導書에 교과서를 그대로 싣고 다른 색으로 각 부분에 대한 지도 지침을 제시한다면,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 한 권만 가지고도 더욱 손쉽게 授業指導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0) 3학년의 국어 수업에 있어서 문법의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檢討해 볼 필요가 있겠다.

2. 數學

1) 서울 한국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 문제를 빨리 풀고 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할 일이 없다. 이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問題를 반복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심화 학습 자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5]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차라리 산수는 아니지만 S.R.A. 읽기 카드 같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2) 서울 프랑스 학교에서는 문제를 풀 때 교사는 학생들을 거들어 주기만 할 뿐 스스로 생각해서 풀게 하는 데 좋은 방법같다.

3) 서울 미국 학교처럼 매 단원별로 診斷評價(pre-test)와 형성평가(post-test)를 미리 제작하여 놓고(교사용 지도서에) 교사가 사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4) 외국인 학교에서는 계산 문제의 경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傾向이 발견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5) 효율적인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로서, 다양한 수준의 학습서나 학습지의 개발이 時急하다 하겠다. 이 외에 빨리 맞추기 게임용 카드, 수학 능력 개발 퍼즐 등의 사용도 고려해 봄 직하다.

6)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실물(서울 일본인 학교) 또는 모조 화폐(영국·프랑스 학교)와 같은 多樣한 자료를 사용하여, 지루하기 쉬운 산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방안을 模索할 필요가 있다.

7) 교과서의 각 문제 앞에 문제의 성격별로 (예 : 예시 문제, 과정 문제, 연습 문제, 응용 문제, 심화 학습 문제 등) 다양한 기호를 提示하여, 시각적으로 문제의 성격 구분이 가능하게 한다면 授業指導에 편리할 것이다.

8) 교과서의 각 단원 마지막에 또는 敎師用 指導書에 다음 단원을 위한 준비 문제를 실어, 새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도입 과정을 미리(수업의 시작 부분에서가 아니라) 거치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예습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9) 산수 수업만 능력별 그룹 수업으로 運營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10) 학생들이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고 난 후에 때로는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한 설명까지도

4) 서울 한국 학교에서도 4~6학년 대상의 특활 교육에서는 학년의 경계를 초월한 능력별 수업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활 영어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학년 구분 없이 능력에 맞는 반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5) 심화 학습 자료는 학습서, 학습지 등의 형태로 별도로 개발할 수도 있겠고, 교과서 자체에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제시해 일부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남는 학생들만 풀도록 할 수도 있겠다.

竝行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이 문제의 답뿐 아니라 풀이 과정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 다른 학생들이 반대 의견이나 다른 풀이 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면 학생들 사이의 토론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발표 능력도 높일 수 있겠다. 또한 교사가(또는 학생들이) 문제를 푼 학생에게 풀이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법도 비슷한 效果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

3. 社會

1) 서울 한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생 발표 중심 수업 방법은 제대로 운영만 되면 敎育效果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즉 교사가 미리 학습 과제와 조사해 올 문제 3~5 가지를 내주고 다음 시간에 학생의 발표→학생 질문 및 답변→다른 학생의 보충 발표→이에 대한 質問 및 答辯 등으로 이어지는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때 교사의 役割은 매우 중요하다. 즉 주요 발표 내용의 정리, 발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질문, 틀린 답변에 대한 修正, 학생들 간의 이견을 發展的으로 조정해 주기, 발표가 안된 주요 내용의 보충 등을 교사가 해주어야 학생 발표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하면서도 주요 내용을 빠짐없이 주지시키는 효율적인 授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표를 잘 안 하는 얌전한 학생들이 발표에 많이 參與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공평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발표 중심 수업의 성공에 있어 이와 같은 수업 운영상의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주는 「학습 과제」와 「조사해 볼 문제」라고 하겠다. 이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調査해 오도록 한다면 형식만 갖추어지고 내용은 없는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사용 지도서에 학생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발전적인 학습 과제와 調査해 볼 문제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교사들이 수업의 필요에 따라 選擇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2) 서울 영국 학교와 서울 프랑스 학교의 경우에는 주제별로 역사·현대 사회·지리·과학 지식을 망라하여 흥미 있고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서울 영국 학교의 경우에는 實生活에 필요한 지식을 많이 제공해 주며, 역사를 다룰 때에도 귀족 사회와 서민 사회를 대비시키는 등 학생들이 社會問題意識을 갖도록 해준다. 또한 서울 일본인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學習目標를 달성하면서도, 소재로 일본 대신 학생들이 거주하므로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또한 다루는 내용이 공해 문제 등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公衆道德 精神과 사회 문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많다.

우리 교과서의 내용은 이와는 달리 학생들의 지역 사회와 동떨어진 피상적인 것이 많고, 사실의 기술에 그치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낙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공공사회에서의 市民情神과 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비판 정신을 길러 주는 데에는 소홀한 것 같다.

3) 사회 수업에서는 가치관, 시민 정신, 공중도덕, 민주 정신, 협동 정신 등 암기보다는 올바른 理解가 필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소신을 뚜렷이 가져야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처럼 많지 않은 사실적인 지식과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정답만이 제시되어 암기를 유도하는 교과서의 構成이나 수업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부분적으로 암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 현재를 비판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 論理的인 思考能力,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 자기와는 다른 행동이나 문화를 理解하는 能力, 여러 사회의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한 비교·분석 능력 등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따라서, 교과서와 敎師用指導書에 의지 않아도 되는 이해 위주의 현장성 있는 새로운 지식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원인 분석, 비교, 비판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여, 교사들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사회 교과서 각 소단원의 끝에 있는 「조사」는 학습 내용을 토대로 유추·조사하여 심화 학습을 시키도록 構成되어 있다. 물론 이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기에만 限定시키지 말고, 서울

일본인 학교 교과서의 「나의 노트」처럼 學習方法, 學習內容의 복습, 친구의 공책과 자신의 공책을 비교하고 修正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들까지 포함시킨다면, 학생들이 능동적인 자율 학습을 통해 學習方法과 학습 내용의 정리 능력까지도 스스로 發展시킬 수 있을 것 같다.

5) 사회 과목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방대하고, 학생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학생들이 興味 있게 수업에 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授業方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및 교과서가 구성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우리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의 學習能力에 비추어(다 외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 능력에 비추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6) 교과서의 부록에 「語彙說明」이 붙어 있으면, 학생들이 국어 사전에서 찾을 수 없거나 여러 가지의 의미 중 어느 의미로 사용되는지 판단하기 힘든 어려운 사회 용어들도 손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7) 「지도 읽기」「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 키우기」 등 사회 과목 공부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관련 단원의 본문 내용 중에 포함시키기보다도 그 단원에 딸린 學習問題 등의 형태로 분리해서, 강조하여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8) 교사용 지도서의 각 소단원 지도 지침마다 「판서의 예」를 제시한다면 수업에서의 「판서의 구조화」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러나 반드시 劃一的인 판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개의 판서의 예를 提示하거나 교사 스스로 판서 방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의 제시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9) 교사용 지도서에 敎科書를 전재하고 다른 색채로 쓰여진 지도 지침과 교과서의 해당 내용을 연결하여, 교사들이 학습 지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10) 학생들이 단위 시간 내에 교과서의 많은 내용을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검토까지 할 수 있게 하는 敎授-學習資料로서, 학습서의 개발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사회 과목은 지도, 연대기, 도표, 사진 등이 중요한 학습 내용 자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과서와 연계된 학습서의 제작은 授業效果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自然

1) 서울 한국 학교의 자연 수업은 교과서의 構成대로 관찰 및 실험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다. 실물을 직접 만지는 觀察 및 實驗方法의 우수성은 더 언급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실험에 치우친 나머지 이론 부분이 너무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觀察과 實驗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우는 대신,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식이나 기본적인 이론, 모델 등은 배우지 못하고 지나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미있는 科學 이야기 등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內容과 科學史, 科學理論, 다양한 생물의 비교 등 강의와 문답, 토론 등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

2) 학교 운동장에 재배한 식물의 관찰, 이과실에서의 실험 등 역시 관찰, 실험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 서울 일본인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사가 학생들 좌석 중간에서 실험을 하고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라서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실험하는 모습을 O. H. P로 비추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配慮를 하고 있다. 과학실의 부족으로 인해 교실에서 관찰·실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우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3) 관찰과 실험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미리 관찰이나 실험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어느 豫測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觀察 또는 實驗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한 후에야 실제 관찰·실험 등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서울 일본 학교의 수업 방법은 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姿勢와 想像力을 키워 주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학생간의 토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이끄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서울 미국 학교의 科學授業의 특색은 학생

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교사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계속 나름대로의 생각을 發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탐구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수업 방법 중 하나라 생각된다. 특히 각 과목에 대한 예습(특히 교과서 읽어오기) 이 숙제로 부과되는 일이 많은 우리 국민 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읽어온 단원을 또 다시 읽거나 설명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여 학생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보다는 문답 과정을 통해 교과서의 내용을 공부한 후에, 공부한 내용을 確認·定着시키는 과정으로서 교과서를 읽고 학습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다(이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용 지도서에 다양한 質問들을 수록하여 교사들의 부담은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5) 관찰 수업에 있어 반드시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관찰뿐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興味 있는 관찰 사항을 개발해 내어 관찰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6)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觀察이 수업의 중요한 부분인 자연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사진이나 삽화의 색채와 선명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우리 교과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외국 교과서들에 비해서 종이의 질, 사진·삽화의 색채·선명도가 크게 떨어지는 형편이므로 시급한 改善이 要望된다 하겠다.

7) 우리 자연 교과서에는 복습 및 평가 문항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實驗 및 觀察結果로 얻은 지식을 정착시킬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機會를 제공하고 교사들의 수업 마무리(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교과서의 매 소단원 위에 「학습 문제」 등을 제시하는 것을 考慮할 필요가 있겠다.

8) 서울 미국 학교 교과서 처럼 과학을 실생활과 연관시키는 「과학과 주변 세계」나 과학적인 직업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시하는 「과학과 진로」 같은 것을 교과서 각 단원의 마지막 등에 별도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科學을 실제 생활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겠다.

9) 敎師用 指導書에 학생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이나 상세한 참고 자료 등을 더 많이 제시하여, 敎師들이 必要에 따라 취사 選擇하고 재구성하여 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또한 각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을 도표화 또는 판서하는 방법 등 수업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들을 많이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10) 교과서의 내용 중 다른 과목과 연결시켜 가르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용 지도서에 통합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수업 방법과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統合授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이는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다).

11) 교사용 지도서에서 각 소단원에 대한 敎授-學習活動을 「문제」, 「예상」, 「관찰」, 「실험」, 「기록」, 「토론」, 「종합 정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면, 전체 수업이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일목 요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교사들이 實際授業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빠고 지나갈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12) 삽화와 사진 등이 수업 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자연 과목의 경우에는, 질 좋은 천연색의 學習書를 제작하는 것이 敎授-學習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좋은 지질의 學習書 開發은 財政問題를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습서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부문의 豫算을 줄이거나 가난한 학생에게만 무상 배급하고, 일반 학생에게는 참고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使用해서라도 학습서의 개발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13) 실험 수업에 있어서 敎科書나 敎師用 指導書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시 따르지 않고, 교사가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대안적인 실험 방법을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提示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現場教育 ◇

進路意識提高를 위한 體系的 指導方案

— 開發資料適用을 中心으로 —

李 完 炯*

Ⅰ. 序 論

1. 示範運營의 必要性

人間은 누구나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職業을 가져야 하며 또한 職業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사회에 기여하며 自我를 實現한다.

이러한 職業을 인식하고 탐색하며 선택하는 생애의 전개 과정에서 학교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可能性을 탐색, 발견하고 이를 계발시켜 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임무인데, 學校敎育이 進路敎育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學校에서는 진로 교육을 중·고등 학교에서의 進學指導 및 就業指導 등의 좁은 의미로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選擇·適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도록 하는 진로 교육의 기본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進路에 대한 발달적 견해에 의하면, Ginzberg는 進路에 대한 인간의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으로서 인식, 탐색, 준비 및 전문화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幼稚園과 국민 학교 시기를 진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인식의 단계 및 탐색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 학교 시기에서부터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進路敎育을 遂行함으로써 그 이후 단계의 進路에 대한 원만한 성숙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동으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건전한 진로 의식을 定立시키고 아동들의 진로 의식에 영향을 주는 敎師들의 올바른 進路觀을 형성시킨다는 측면에서 國民學校 단계에서의 進路意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본 연구는 韓國敎育開發院에서 개발한 진로 교육 지도 자료의 적용을 통하여 아동의 進路意識 및 부모들의 進路觀形成에 도움을 준다는 뜻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實態分析

1) 分析內容

현행 敎育課程에 반영된 진로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韓國敎育開發院에서 개발·제작된 설문지[1]를 통해 아동, 교사, 학부모의 進路意識을 조사하였다.

2) 分析結果

(1) 현행 敎育課程에 반영된 진로 교육 내용 분석은 ①현행 敎育課程에 진로 교육을 기본 철학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②敎育課程上의 9개 敎科 중 도덕, 국어, 사회, 실과의 4개 敎科에만 진로 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③일의 세계를 소개하는 내용이 體系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④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에서도 진로 교육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 서울 신계 국민 학교·과학 주임 교사

1) 곽 병선 외 2인, 『국민 학교 아동, 교사, 학부모 진로 의식에 관한 기초 조사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82)의 부록 1에 제시된 질문지를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활용함.

(2) 進路意識 基礎實態分析은

첫째 兒童의 進路意識

① 아동들의 일에 대한 인식은 82.2%가 목적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이 여자보다 더 높은 手段的 認識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② 아동들이 選定한 15개의 좋아하는 직업 중에서 가장 많은 아동들이 선택한 직업은 교사(24.6%)를 비롯해서 다음으로 과학자(18.0%), 의사(13.1%), 운동 선수(5.6%), 법관(4.6%), 간호원(3.9%), 음악가(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아동들은 육체적으로 일하는 직업에는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③ 대부분의 아동들(80.4%)이 장래 원하는 직업에 대한 선정의 이유를 目的的이고 理想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④ 부모의 職業에 대한 인식은 5.7%의 학생 외에는 거의가 부모의 직업이나 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으며, 72.5%의 학생이 부모의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 응답하였다.

⑤ 아동들이 進路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를 보면, 선생님(55.2%) 자기 자신(24.8%), 부모님(16.4%), 친구(3.7%)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들의 진로 선택은 자기 자신의 意圖보다는 선생님의 助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⑥ 진로 계획은 자신의 能力이나 適性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70.6%로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

⑦ 일에 대한 肯定的인 태도를 보인 아동이 62.9%, 否定的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 37.1%를 보이고 있어 일의 중요성에 대한 지도가 계속 이루어져야겠다.

⑧ 精神勞動과 肉體的인 勞動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어린이가 58.5%, 정신적 노동의 직업을 선호하는 아동이 31.1%, 육체적 노동의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5.4%, 잘 모르겠다가 5.0%로 나타나고 있어 직업의 가치를 觀念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⑨ 남녀의 직업 역할에 대해서 26.4%의 아동이 보수적인 태도의 경향을 보이며, 73.6%의 아동이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⑩ 아동들은 일에 대한 槪念의 理解가 불완전하였다.

둘째 父母의 進路意識

① 부모의 직업 선택에 대한 태도는 運命的이라고 보는 견해가 39.0%, 中立이 33.0%, 自己決定性 성향이 28.0%를 나타내고 있다.

② 직업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保守的이고 閉鎖的인 성향을 보였다.

③ 직업 가치에 대한 태도는 手段的으로 보는 경향이 目的的으로 보는 경향보다 높았다.

④ 직업 존엄에 대한 태도는 職業價値를 차등을 두어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세째 敎師의 進路意識

① 교사의 직업 선택관은 비교적 中立的인 성향을 보였다.

② 직업과 성역할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保守的, 閉鎖的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다소의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③ 직업의 가치를 手段的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④ 직업 존엄에 대한 태도는 形式指向의 태도였다.

⑤ 진로 교육의 槪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교사가 48,3%이고 진로 교육의 내용을 바르게 인식하는 교사는 60.0%를 차지하고 있어, 진로 교육에 대한 槪念과 內容 認識이 부족하다고 본다.

⑥ 대부분의 교사들(81.7%)이 진로 교육을 敎科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서의 기능과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진로 교육의 수행 시기에 있어서는 41.6%의 교사들이 국민학교 시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⑦ 진로 교육에 대한 비중을 진로의 인식(60%)에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 요약된 分析結果를 볼 때 아동들의 진로의식과 교사와 학부모의 進路觀 그리고 진로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선, 아동들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못하며 또한 불충분하다. 특히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그들의 진로 의식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서 우려된다. 이와 함께 부모와 교사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進路觀과 진로 교육에 대한 그릇된 認識이나 態度는 아동들의 진로 의식에 직접 간접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3. 示範運營의 目的

다양한 진로 교육 자료의 현장 적용으로 학생, 학부모의 진로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

4. 示範運營의 課題

1) 進路意識 提高를 위한 敎授-學習을 실천한다.

자료; 현행 교육 과정에 기초한 국민 학교 진로 교육 지도서

2) 開發된 진로 교육을 위한 兒童用資料를 적용하여 進路意識을 강화한다.

자료; 일과 직업 그리고 未來科學技術社會를 탐구하는 이야기 모임(8권)

3) 啓導資料를 통한 학부모 進路意識을 함양시킨다.

자료; 학부모를 위한 진로 교육 지침서

5. 示範運營의 對象 및 期間

대상은 서울 공연 국민 학교 全校生과 학부모, 새마을 어머니 회원 200명으로 하였고, 기간은 1986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1년간으로 하였다.

6. 示範運營의 制限點

1) 본 연구에서 투입·적용되는 자료는 韓國敎育開發院에서 개발한 진로교육 자료[2]에 한한다.

2) 제반 여건상 대상은 본교 아동 및 학부모로 국한한다.

Ⅱ. 示範運營의 實際

1. 示範課題 'Ⅰ'의 實踐

進路意識提高를 위한 敎授-學習을 실천한다. 현행 敎育課程 및 敎科書에 제시되어 있는 진로 교육 내용을 진로 교육의 관점에서 통합 지도하였다.

1) 進路敎育 관련 指導內容抽出

전학년 전교과의 진로 교육 관련 지도 내용을 추출하여 현행 敎育課程 진도표에 진로 지도 관련 차시와 읽기 자료[3]를 표시하여 활용하였다.

2) 敎授-學習課程案 活用

韓國敎育開發院에서 배부한 국민 학교 진로 교

〈표-1〉 진로 교육 관련 지도 내용 산출표

교과 \ 학년 \ 학기		1		2		3		4		5		6	
		1	2	1	2	1	2	1	2	1	2	1	2
도덕	바른생활	8	5	12	5	5	2	3	3	4	6	3	2
국어	바른생활					·	3	5	3	5	2	3	4
사회	바른생활					8	9	7	5	4	·	7	·
실과								6	·	·	·	·	7
계		8	5	12	5	13	14	21	11	13	8	13	13
		13		17		27		32		21		25	

2)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는 진로 교육 자료로서 아동용 읽기 자료, 학부모용 계몽 자료, 교사용 진로 교육 자료, 기타 등을 개발하였다. 아동용 읽기 자료는 '일과 직업 그리고 미래 과학 기술 세계를 탐구하는 이야기 모음(8권)', 아동용 읽기 자료의 '교사용 활용 지침서(별책)'이며 국민 학생의 진로 교육을 위한 창작 동화집이다. 학부모용 계몽 자료는 '학부모를 위한 진로 교육 지침서'이며 학부모의 왜곡된 진로 의식을 계몽하기 위하여 개발된 자료다. 교사용 진로 교육 자료는 정규 수업 시간에 진로 교육의 관점에서 교과 수업과 병행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교육 과정에 기초한 국민 학교 진로 교육 지도서'이다. 기타 자료는 진로 교육과 관련된 VTR 자료, 진로 교육 내용의 라디오 방송 자료이다.

3) 일과 직업 그리고 미래 과학 기술 세계를 탐구하는 이야기 모음을 가리킴.

육 지도서의 지도안을 중심으로 실제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교수-학습안을 카드화하여 활용하였다.

3) 敎師硏修

아동의 진로 인식 교육은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진로관 인식과 자질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체계적인 연수를 통하여 교사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4) 읽기 자료 正規授業時間에 교과와 관련시켜서 活用

교과와 관련지어 지도하기 위해 진로 교육을 위한 읽기 자료 작품 목록표를 작성하여 독서 과제로 제시하고 정규 수업 시간에 관련 자료로 사용하여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진로 의식을 심화시켰다.

5) 敎授-學習資料 제작

진로 교육 지도서를 분석하여 진로 교육의 소요 자료를 추출하고 소요되는 자료는 구입, 제작, 복사 등으로 분류하여 제작 활용하였다.

2. 示範課題Ⅱ의 실천

개발된 진로 교육을 위한 아동용 자료를 적용하여 진로 의식을 강화한다.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동화를 읽는 가운데 일과 직업 세계, 미래의 과학과 기술의 세계 등 삶의 세계를 상세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적성과 소질,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 및 가치관을 키워 주는 내용들로 구성된 읽기 자료를 적용 실천하였다.

1) 讀後感 쓰기 指導

읽기 자료를 독서한 후 '나의 나아갈 길'이란 독후감 공책을 마련하여 쓰도록 하였으며 내용은 각 작품의 끝에 제시되어 있는 생각해 볼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여 부모님의 지도 조언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읽기 자료 지침서의 목표 및 강조점을 참고하여 아동의 독후감 공책에 지도 조언하였다.

2) 讀書會 運營과 讀書討論

독서회는 5,6학년을 대상으로 조직 운영하였으며 한 조에 읽기 자료 같은 책 6권씩을 분배하여 독서회별로 돌려 가며 읽고 주 1회씩 독서토론을 실시하였다.

3) 읽기 자료의 劇化學習 實施

진로 교육을 위한 읽기 자료를 극화 학습 자료로 재구성하여 극화 학습을 개최하였다.

3. 示範課題의 實践

啓導資料를 통한 學父母의 進路意識을 함양시킨다.

아동들이 올바른 진로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進路敎育 실시와 더불어 학부모의 바른 進路觀 형성이 필수적이므로 학부모가 아동의 올바른 진로 의식과 自我認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를 위한 진로교육 지침서'를 활용하여 학부모들을 啓導하였다.

1) 學父母를 위한 진로 교육 지침서 輪讀

韓國敎育開發院에서 개발한 '학부모를 위한 진로 교육 지침서'를 새마을 어머니회원에게 배포하여 윤독케 하고 새마을 어머니회 연수 자료로 활용하였다.

2) 硏修會를 통하여 학부모를 계도하였다.

〈표-2〉 학부모 연수 현황

일 시	대 상	참석인원	계 도 내 용	강 사
'86. 6. 2	새마을 어머니회	87명	진로 지도의 의미와 필요성	연 구
'86. 6.19	육성회 대의원	62명	진로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연 구
'86. 7.10	새마을 어머니회, 육성회 대의원	160명	진로 지도의 필요성과 외국의 진로 지도	장석민박사
'86. 9.15	새마을 어머니회	75명	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 분야 안내	교 감

3) 懇談會 개최에 의한 학부모 계도

새마을 어머니회는 매주 화요일 進路指導 프로그램을 TV 시청 후 主題를 선정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4) 家庭通信文에 의한 학부모 계도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배부한 학부모를 위한 진로 교육 지침서 내용을 전교 학부형에게 유인물로 배포하여 계도하였다.

〈표-3〉 진로 지도 시청 내용

일 시	대 상	참석인원	시 청 내 용
'86. 6. 7	새마을 어머니 회원	65명	나의 발견과 진로 계획, 진학과 취업
'86. 6.24	새마을 어머니 회원	59명	변하는 사회, 변하는 직업
'86. 7. 1	새마을 어머니 회원	73명	직업의 의미, 직업관의 과거와 현재
'86. 7.15	새마을 어머니 회원	64명	창조하는 삶
'86. 9. 2	새마을 어머니 회원	75명	4차 산업의 출현과 직업의 변화
'86. 9. 9	새마을 어머니 회원	62명	직업 세계 ①(첨단 기술을 연다) 유전 공학
'86. 9.23	새마을 어머니 회원	68명	직업 세계 ②,③(첨단 기술을 연다) 전자·에너지 공학

〈표-4〉 가정통신문 발송 현황

발 송 일 시	대 상	계 도 내 용
'86. 5.29	전교 학부모	진로 지도의 필요성,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86. 6. 7	전교 학부모	자녀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도, 진로 지도 정보 자료
'86. 9. 2	전교 학부모	학부모의 직업관 및 가치관에 관한 문제

Ⅲ. 示範運營의 結果

1. 課題 Ⅰ의 成果

1) 진로 교육 지도서를 활용하기 위하여 전학년, 전교과에 걸쳐 진로 교육 관련 지도 내용을 추출, 관련 차시를 진도표와 교과서에 표시하고 敎授-學習課程案을 마련하여 적용시킨 결과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2) 진로 교육의 이론을 定立시키기 위한 體系的인 硏修를 통하여 교사들의 진로 의식 함양 및 수업 기술의 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

3) 읽기 자료를 정규 수업 시간에 교과와 관련지어 활용함으로써 진로 의식의 함양에 도움을 주었다.

4) 進路敎育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활용하여 수업의 효과를 높였다.

2. 課題 Ⅱ의 成果

1) '나의 나아갈 길'이란 독서 기록장을 마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를 중심으로 독후감을 작성하게 한 결과, 등장 인물의 생활 방식과 職業과의 관계를 통해 보람 있게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학부모의 지도 조언으로 자녀와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 독서 써클 活動을 통하여 읽기 자료를 읽고 느낀 점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함으로써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고 장래의 문제에 대해 폭넓게 생각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었다.

3) 읽기 자료를 再構成하여 劇化學習을 실시함으로써 일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3. 課題 Ⅲ의 成果

1) 『진로 교육 지침서』를 학부모로 하여금 輪讀케 하고 가정 통신문에 의한 學父母啓導活動을 통해 일과 직업 세계 및 자녀에 대한 이해의 문제 등 여러 그릇된 인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2) 學父母硏修와 懇談會 개최에 의한 학부모 啓導를 통하여 진로 의식을 높일 수 있었고 학부모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Ⅳ. 結論 및 提言

1. 結 論

이상과 같은 실행 결과에서 얻은 示範運營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兒童은

(1)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父母의 職業에 대한 理解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됨을 엿볼 수 있다.

(2) 좋은 職業에 대한 추상적인 憧憬보다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態度가 엿보였다.

(3) 職業의 종류가 다양함을 이해하고 모든 職業이 우리 사회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4) 자기의 素質과 適性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5) 진로 교육 읽기 자료를 통해 노력, 인내, 끈기, 용기 등에 대하여 많은 感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6) 일에 대한 價値를 깨닫고 一人二役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2) 學父母는

(1) 자녀의 素質과 適性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對話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 문제를 생각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2) 부모님들의 아동 장래에 대한 깊은 關心과 進路方向의 認識을 새롭게 하여 협동적인 행동을 배우도록 이끌어 주는 듯하다.

(3) 다양한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하고 자녀의 進路指導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학부모들의 對話內容이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상담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2. 問題點

1) 敎科 중에는 도덕, 국어, 사회, 실과의 4개 교과에만 진로 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편이다.

2) 체계 있는 진로 지도 기술의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

3) 다양한 진로 교육 자료의 개발과 풍부한 자료의 보급이 요구된다.

4) 사회적인 인식과 학부모들의 고정적인 職業觀이 바뀌지 않는 한 아동들의 진로 교육도 형식적 도덕 교육이 될 우려가 있다.

5) 진로 교육을 일부 해당 교과에 통합하여 분산 지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진로 지도가 어렵다.

3. 提 言

1) 진로 교육 시범 운영 결과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개발된 진로 교육 자료가 보급 확산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된다.

2) 敎育課程에 진로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립·삽입되어야 하겠다.

3) 進路敎育의 기본적인 내용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敎師硏修 및 指導技術의 연수 기회를 확대시켜야겠다.

4) 進路敎育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의 개발·보급이 요구된다.

5) 학부모들의 진로 교육에 대한 깊은 인식과 직업에 대한 歪曲된 價値認識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進路敎育에 대한 사회적 홍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

◇ 教育放送 ◇

日本의 放送教育

—日本 텔레비전 放送教育의 發展과 放送教育研究動向을 中心으로—

宋 寅 德*

Ⅰ. 머리말

日本의 放送教育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된 바 있어 本稿에서는 日本의 텔레비전 放送教育이 오늘날과 같이 世界에서 가장 模範的으로 發展하기까지의 과정과 放送教育研究 普及活動에 대해서 筆者가 그 동안 日本의 NHK 와 放送教育研究大會의 參席 등에서 얻은 體驗과 蒐集된 資料를 바탕으로 간단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NHK(Nipon Hoso Kyokai)가 教育放送의 中心이라고 할 만한 學校放送을 開始한 지 금년으로 꼭 51年이 되었다. 1953年 2月 1日 NHK TV가 開局과 同時에 學校放送을 開設하여 每日 午後 1時부터 15分間의 放送을 했고, 對象學校도 처음에는 實驗으로 4個校의 初·中學校에 제한하였지마는 1年後에는 50여個校로 늘어났다. 그리고, 3年後인 1956年에는 學校放送의 利用校가 1,000個校에 이르렀으며, 現在(1986年)는 전체 學校의 97.9%라는 높은 利用率을 갖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日本의 學校放送은 日本의 社會·文化의 發展에 발맞추어 放送의 普及·發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放送教育의 貴重한 經驗의 蓄積은 21世紀를 맞이하여 放送衛星을 活用해서 教育의 革新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日本의 放送教育에 관한 情報와 資料를 分析, 檢討하여 우리가 昨今 推進하고 있는 우리 나라 教育放送 活性化를 위한 方案을 模索하고 實施하는 데 日本의 放送教育의 發展過程을 檢討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Ⅱ. 텔레비전 放送教育의 發展

1. 텔레비전 實驗放送 時代

NHK 에서는 戰前부터 텔레비전의 實驗放送을 계속하다가 1950年 11月 定期的인 放送實驗을 開始하였다. 1年後인 1951年 10月부터 週 1回 15分씩의 學校放送이 東京 世田谷區의 放送技術研究所의 스튜디오로부터 實驗放送이 開始되어 NHK에서는 教育學者, 現場教師, 文部省, 東京教育廳의 專門家로 構成된 「視聽覺 教育研究委員會」(後에 텔레비전 學校放送委員會로 改稱)를 構成하여 텔레비전 學校放送의 프로그램의 目標, 內容에 대한 研究를 開始했다. 그래서 研究委員會에 參加한 4名의 教師가 所屬된 小學校(國校), 中學校 2個校를 텔레비전 學校放送의 實驗校로 委囑하고 텔레비전 學校放送의 利用研究, 프로그램 內容이나 演出의 改善資料의 提供을 받았다. 그 當時 라디오 學校放送의 利用率은 小學校 30% 정도로 利用되었다. 이러한 라디오 學校放送과 새로 始作된 텔레비전 學校放送 프로그램을 어떻게 關聯시키면 좋을 것인가 텔레비전의 特性은 어디에 있는가 論議되어 舊式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스튜디오에서 實驗用 프로그램을 多樣하게 계속 制作하였다. 當時 指摘된 것 중에는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으로서의 表現上의 文法이 있을 것이고 그 文法을 理解하

* 教育放送本部·放送審議委員

면서 프로그램을 制作하는 側과 받아들이는 側은 緊密히 協力해서 計劃的인 實驗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으며, 이것들의 硏究 討議中에서 텔레비전 學校放送의 基本的 性格은 슬라이드나 映畫의 敎材와는 다른 점이 있어서 텔레비전 學校放送은 電波를 媒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이나 特性을 重視하지 않으면 안 된다. 텔레비전 學校放送은 電波미디어에 의한 敎材라는 點을 重視하지만 映像미디어에 力點을 둘 것인가에 對한 問題는 그 후 放送敎育論의 重要한 論點이 되었다.

2. 텔레비전 放送의 開始와 學校放送

1953年 2月 1日 NHK 텔레비전 本放送의 始作과 同時에 每日 午後 1時부터 15分間 고정 時間帶에 小學校, 低·中·高學年 프로그램 3篇, 中學校 低, 高學年 2篇, 土曜日의 課外 活動프로그램 1篇 計 6篇의 프로그램을 放送, 다음해인 1954年 3月에는 大阪와 名古屋에서도 텔레비전 本放送이 始作, 開始後 1年만에는 텔레비전 學校放送 利用校는 250個校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인 1955年末에는 1,000個校에 達했다. 텔레비전 學校放送은 1955年부터 學校에서 利用하기 편리한 午前 11時 35分부터 11時 50分의 時間帶에 放送을 했고 새로운 「幼稚園, 保育의 時間」 프로그램을 新設하였다. NHK에서는 1950年부터 라디오學校放送 硏究委囑校制度를 始作하고 放送利用校에 의한 프로그램 硏究의 推進과 放送利用者側의 意見을 흡수하는 役割을 해오다가 1956年부터는 이 制度를 텔레비전 學校放送에도 擴大, 全國 120個校의 學校에도 硏究를 委囑하고 幼稚園부터 中學校까지의 텔레비전 學校放送프로그램에 대한 敎育現場의 要望을 收斂 反映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텔레비전 學校放送의 役割을 重視한 NHK는 學校로부터의 强한 要望에 應해서 1957年 1月부터 學校放送의 時間帶를 1日 2回(午前과 午後)로 연장하였다. 當時 NHK는 1채널밖에 할당이 되지 않았다. 學校放送을 利用하는 時間에는 限界가 있었던 것이다.

3. 敎育텔레비전의 開局

NHK에서는 學校放送뿐 아니라 家庭敎育, 社會敎育, 職業敎育도 擴大해 갈 構想으로 硏究推進해 나갔다. 1956年이 되어서 敎育放送을 主體로 한 텔레비전 第二放送의 開設을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方針을 세우고 1957年 1月에 郵政大臣과 電波監理審議委會에 텔레비전에 의한 第二放送 周波數 確保에 關한 要望書를 提出했다. 그러한 時期에 NHK와 民放에서는 이와 같이 全國 텔레비전 開局이 推進되어 가는데, 프로그램 속에는 視聽者를 끌기 위한 娛樂的 要素가 적지 않아 텔레비전 功罪論과 低俗的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 교육계는 물론 사회 각층에서 敎育的 要素가 짙은 프로그램의 要請이 높아져 1957年 1月 東京都의 靑山學校에서 開催된 텔레비전 敎育硏究會에서는 敎育專門의 텔레비전 放送의 實現의 要望이 決議되었다. 그래서 1957年 1月에 郵政省이 「텔레비전 放送 周波數 割當計劃 基本方針의 修正案」을 發表하고 開設의 方針을 세워 各界에서 큰 反響을 받았으며 文部省에서는 同年 6月에 文敎行政의 立場을 郵政省에 밝혀 다음과 같은 具體的 要望을 하였다.

(1) 敎育放送은 敎育基本法에 明示되어 있는 敎育의 目的을 達成하는 것이라야 한다.

(2) 學校敎育 프로그램은 學校敎育法 施行規則을 規定하는 學習指導 要領을 基準으로 해서 制作하고 그 對象을 分明히 해서 編成하고 그 內容은 放送前에 豫告될 수 있도록 考慮할 것

(3) 敎育放送에서의 商業的 廣告를 다루는 것은 愼重히 할 것

(4) 敎育放送은 敎育의 機會均等을 도모, 全國 中繼의 措置를 配慮할 것 등이다.

NHK 東京敎育 텔레비전은 1959年 1月 10日에 開局해서 4月에는 大阪에서 始作하여 學校放送의 體系化(學校放送의 敎科主義에의 移行)가 進行되는 1964年에는 東京에서 第2回 世界라디오, 텔레비전 學校放送會議가 開催되어 58個國에서 77個 放送機關으로부터 學校放送 專門家가 參席하였고 다음 해인 1965年에는 第1回 日本賞 敎育프로그램 國際 콩쿨을 開催하였다. 이러한 國際的인 行事를 통하여 日本의 近代化

에 끼친 放送敎育의 成果를 世界에 알리는 同時에 國內에 있어서도 學校放送의 重要性을 關係者에게 認識시키게 되었다.

4. 僻地에서의 텔레비전 利用

戰前, 戰後에는 라디오 學校放送뿐인 時代이었지마는 學校放送은 敎科學習資料로서 有用한 視聽覺敎材라는 役割과 電波미디어의 特性, 예를 들면 同時性이나 速報性을 살린 생생한 敎材라는 面이 强調되어졌다.

文部省은 텔레비전 利用은 僻地學校의 어린이와 學生의 經驗을 擴大시켜 敎室內의 敎材敎具의 不足을 補完하기 위해서 3個年計劃으로 僻地學校의 텔레비전受像機, 購入費의 半額을 補助했다. 그래서 1960年에는 300個校, 1961年에는 400個 僻地學校에 設置하여 텔레비전 學校放送을 視聽하게 되었다. 또한 NHK는 1962年에는 僻地學校의 小學校, 中學校에 TV受像機 寄贈運動을 展開하여 各種 民間團體로부터 텔레비전이 寄贈되어 急速히 텔레비전 普及率이 신장되었다. NHK, 國際基督敎大學 등에서 調査한 結果 學習에 對한 意慾이 向上되고 어린이의 經驗 領域이 擴大되어 知識이 豊富해졌다. 그리고 標準語로 되어 言語醇化가 되었다는 報告가 나왔다.

1964年 90%에 머물렀던 텔리비전 서비스에리어가 1984年 5月 世界에서 最初로 直接衛星(DBS)의 開始에 의해 日本 전체가 視聽이 可能하게 되었다.

5. 텔레비전 學校放送의 擴大와 利用校의 急增

텔레비전 開局인 1953年 5月에 어떤 評論家는 颱風이 불면 날아갈 敎室이 全國에 40万坪以上 있는 實情에서 「1台에 20万圓내지 30万円까지 하는 텔레비전 세트를 敎室에 갖추어 모두 즐겁게 배웁시다 라고 하는 꿈을 實現하는 것은 아직 먼 이야기이다」라고 썼다. 확실히 1953年에서 1960年까지의 敎育 텔레비전局의 開局때까지의 텔레비전 學校放送의 利用率의 신장은 지지부진하였다.

放送利用의 中心은 라디오이었다. 그러나, 텔레비전 學校放送 利用率의 신장이 豫想以上으로 빨라 1959年에 10.2%이던 小學校의 利用率이 1960年에는 45.1%로 놀랍게 上昇되어 해마다 急增, 1971年에는 90%를 초과했다. 그 時期는 日本經濟의 高度成長期에 해당되어 學校에서 텔레비전 受像機의 設置가 容易했고 學校放送프로그램 數의 急增에 의하여 敎師가 利用하고자 하는 씨리즈數가 增加한 理由도 있지마는 무엇보다도 큰 것은 소리뿐인 라디오 學校放送 프로그램과 比較해서 텔레비전은 敎材로서의 情報의 豊富함과 어린이에게 强한 呼訴力, 實驗觀察場面을 敎室에서 볼 수 있는 威力이 커 텔레비전 利用校는 急增해 갔다. 그러나 라디오 學校放送은 反對로 減少하는 추세이다.

6. 비디오의 普及과 特別 씨리즈의 誕生

家庭, 學校의 小型 비디오가 처음으로 市場에 출현한 것은 1964年이었다.

當時로서는 너무 高價이었고 學校의 敎具로 有效한 機器라는 것은 누구도 認定치 않았다. 그러나, 電子技術이 놀라울 정도로 發展하여 黑白 오픈릴 비디오부터 칼라 오픈릴 비디오機器의 開發이 推進되어 마침내 U-matic型의 카세트의 비디오 登場, 더욱 β型(베타)나 VHS型의 비디오가 比較的 염가로 構入이 可能해져 中·高等 學校에 VTR이 急速하게 보급되어 1979年에는 全日制 高校에 VTR 보급률이 90%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其他 學校에도 급속도로 보급되어 텔레비전 學校放送프로의 錄畫로 利用되게 되었다. 그런데 幼稚園·小學校는 텔레비전放送敎育이 急速度로 發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中·高校는 1970年代의 利用校는 지지부진하였다.

小學校와 달라 敎科 擔任制이기 때문에 日課表와 텔레비전 學校放送의 時間帶를 一致시키는 것은 텔레비전 利用에 對한 最大의 問題이었다. 또한 小學校에 比해 學力差가 커서 全國劃一의 텔레비전 敎材로는 適合치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錄畫하면 再生利用이 可能하고 프로그램 內容을 事前에 檢討할 수 있어 비디오의 보급은 텔레비전 學校放送 利用率을 急增하게 하였다. 비디오의 보급에 의해서 生放利用校(放送同時利用)가 감소되고 錄畫利用校가 急增하였다.

1973年度에 生放利用校와 錄畵利用校의 比率이 逆轉되었으며 1984年에는 텔레비전의 利用中學校의 97%가 錄畵利用하고 있었다.

비디오의 普及에 의해서 中·高校의 텔레비전 學校放送의 利用은 飛躍的으로 發展했지만 錄畵利用은 放送時刻과 利用時間과의 맞지 않는 부분을 是正하고 內容檢討의 事前檢討를 可能케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비디오 테이프에의 프로그램의 長期間保存이나 프로그램의 選擇利用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비디오時代의 새로운 型의 텔레비전 利用形態는 지금까지의 生放, 繼續利用을 原則으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編成의 變更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中·高校 敎師들의 要望에 따라 特別 씨리즈 프로그램의 移行은 해마다 推進되어 中·高校放送 프로그램은 점점 特別 씨리즈化해 가고 있다.

年間 씨리즈 프로그램부터 特別 씨리즈로의 轉換은 放送敎育에 對한 基本理念의 革新이었다. 비디오의 보급은 앞으로 數年間內 100%에 이르고 學校放送 프로그램뿐 아니라 一般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敎材가 널리 利用될 것이다.

敎材化된 비디오 디스크가 市販되어 學校에서의 映像敎材의 텔레비전 獨占時代는 끝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衛星放送의 開始, INS實驗의 始作으로 日本의 미디어 시스템 全體가 큰 變革의 時期에 直面하고 있다.

Ⅲ. 學校放送 利用現況

全國學校放送 利用狀況 調査를 〈表 1〉의 規模로 1986年 9月부터 11月까지 郵送法에 의하여 實施한 것이다.

〈表 1〉 調査對象과 有效回答數(率)

校 種	總學校數	抽出比	標本數	有效回答數	有效回答率
幼稚園	15,076校	1/15	1,014校	747校	73.7%
保育所	23,471	1/23	1,022	767	75.0
小學校	24,809	1/24	1,002	892	89.0
中學校	10,991	1/11	1,013	861	85.0
高等學校	5,225	1/5	1,051	902	85.8
總 計	79,572	—	5,102	4,169	81.7

◦調査期間：1986.年9月1日~11月30日
◦調査方法：郵送法

〈表 2〉는 NHK의 텔레비전學校放送과 라디오學校放送에 대해서 幼稚園, 保育所, 小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의 利用率이다.

〈表 2〉 NHK의 學校放送利用校의 比率과 推定利用校數(100%=全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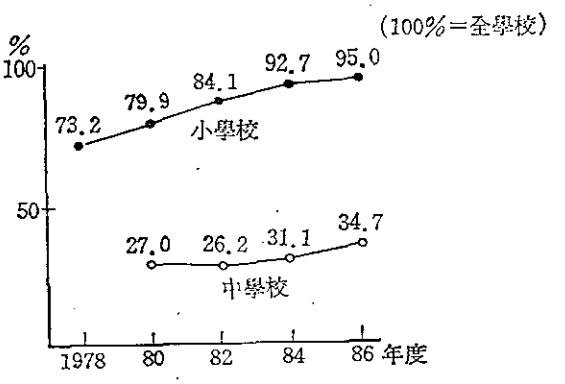
校 種	텔레비전		라 디 오	
	利用率	推定利用校數	利用率	推定利用校數
幼稚園	71.2% (75.0)	10,734校 ±477	13.9% (14.7)	2,096校 ±365
保育所	72.0 (76.1)	16,899 ±734	11.1 (8.7)	2,605 ±513
小學校	97.9 (96.7)	24,288 ±229	7.8 (9.4)	1,935 ±429
中學校	57.3 (59.4)	6,298 ±349	10.8 (13.8)	1,187 ±219
高等學校	56.1* (62.5)	2,931 ±154	2.2 (2.9)	115 ± 45

註 1：( ) 內는 1985年度의 利用率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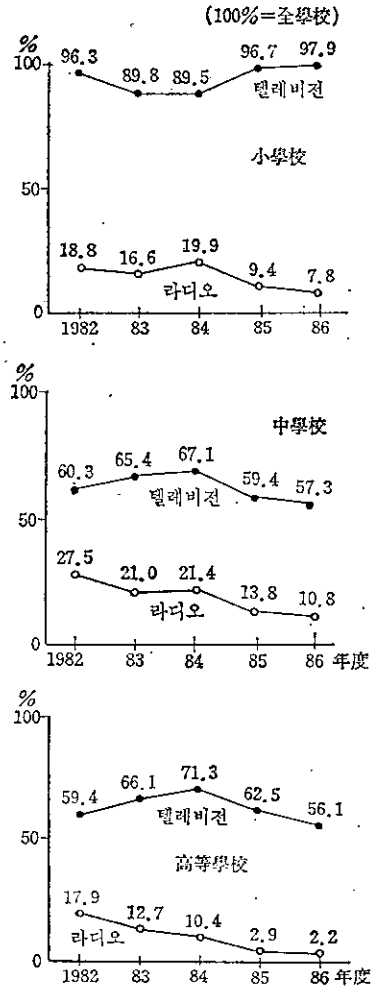
註 2：*마크의 數値는 1985年度에 比해 95%의 信賴率로 有意差가 있음.

註 3：推定利用校數는 信賴率 95%水準에 있는 區間推定임.

全敎室에 텔레비전設置된 學校의 推移圖



1982年부터 1986年까지의 텔레비전, 라디오의 利用率의 推移를 圖 1로 表示한 것이다.



(圖 1) NHK學校放送利用率의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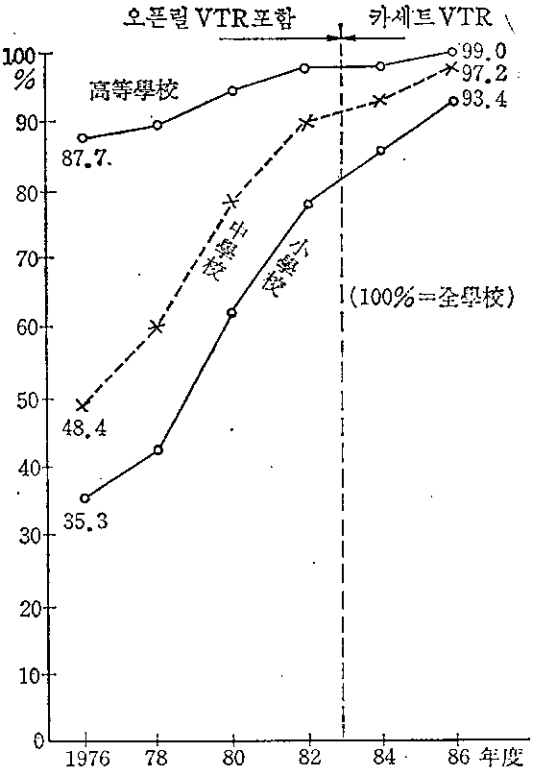
텔레비전 受像機의 普及率은 小學校에 있어서는 1985年度에 95%를 초과, 그후 계속 增加, 現在는 100%이다.

〈表 3〉 칼라텔레비전 受像機普及率

(100%=全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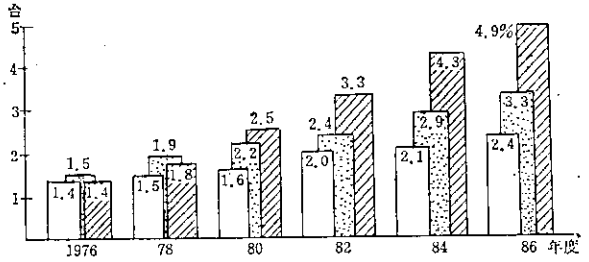
校 種	普 受 率	所有校1校 平均台數	全數室에設置된 學校의 比率
小 學 校	99.9 (100.0)	17.1 (16.8)	95.0% (94.5)
中 學 校	99.3 (99.8)	10.9 (9.5)	34.7 (30.6)
高等學校	99.7 (99.6)	10.5 (9.0)	3.1 (1.5)

註 1:( )內는 1985年度의 數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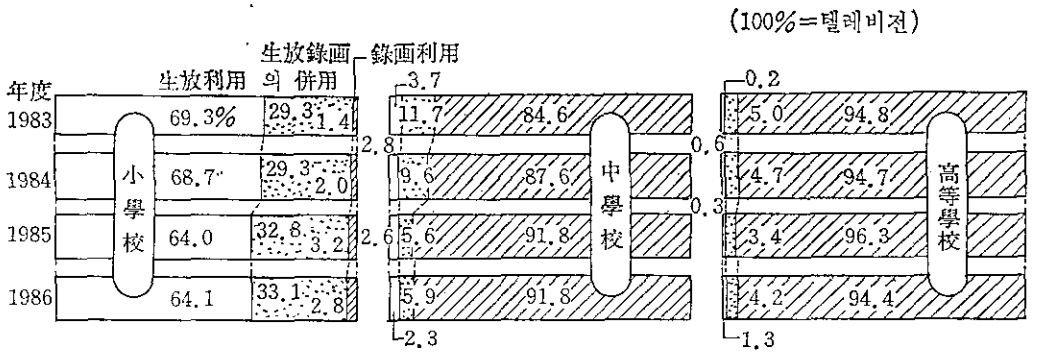


(圖 2) VTR(오픈+카세트) 普及率

VTR은 10年間에 急速히 學校에 普及되었다. (圖 2)



(圖 3) 칼라, 카세트 VTR 所有校에 있어 1校當 所有台數의 推移



(圖 4) 텔레비전生放·錄畫利用率의 推移

(100%=텔레비전利用校)

VTR이 各學校에 設置됨에 따라서 텔레비전 學校放送프로그램의 直接(生放)利用이 減少하고 錄畫利用이 增加하는 傾向이 있다.

Ⅳ. 放送教育의 研究·普及活動

1. 放送教育研究會 全國聯盟의 結成

1949年 8月에 戰後 처음으로 「學校放送研究會 全國大會」를 開催하였다. 當時는 聯合軍의 占領下에 있었기 때문에 國內는 모든 面에 混亂狀態가 계속되어 엄격한 社會情勢이었지마는 新教育의 動向을 노려 放送教育에 큰 意義를 찾고자 하는 熱意찬 教育者가 全國 各地에서 約 850名이 參席해서 2日間에 걸친 研究會를 가졌다. 大會는 豫想 以上의 成果를 얻었다. 다음해인 1950年에는 「放送教育研究會 全國聯盟」을 結成하고 第1回 放送教育研究會 全國大會를 開催하여 放送教育研究의 確固한 基礎가 確立되었다. 學校放送의 普及을 위해서 취한 方案에는 研究會의 組織, 放送研究委囑校의 設定, 프로그램制作體制의 確立이었다.

특히 學校放送프로그램 制作에 關해서는 프로그램 利用者, 教育行政機關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制作者와 三位一體의 體制가 確立된 것은 特異할 만하다.

2. 全國 放送教育聯盟의 研究 普及活動

全放聯은 放送教育의 研究·普及·發展 때문에 結成以來 그 時代의 教育界의 動向, 各級校의 教育課程, 現場教師의 要求 등에 應해서 適切한 施策을 講究하여 效果的인 運營을 해서 今日에 이르렀다. 그 주된 것을 열거하면 全國大會(地方大會, 縣大會), 研究委員會(研究計劃, 施設研究), 特別研究協議會, 放送教育賞, 放送콘테스트 등이다.

1) 全國研究大會

全放聯이 主體가 된 最大의 行事는 年 1回의 全國大會이다. 第1回의 全國大會는 「學校放送의 效果的인 利用」을 主題로 開催 이래 全國 8個地方을 巡回하면서 1986年度 시고꾸의 高知에서 開催한 大會는 37回로서 1回 때는 參席者가 1,300名이었으나 횟수를 거듭할수록 增加해서 每回 1萬名을 넘는 매머드大會로 成長했으며 1986年度의 시고꾸의 高知大會 때는 1萬2,000名의 放送教師 및 關係者들이 1週日間의 大會를 가졌다. 教師集團의 大會로서는 그 規模內容 등이 注目할 만하다. 이 全國大會에서 期待하는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當該 年度의 放送教育에 關한 研究課題나 成果에 對해서 結集的인 討議나 研究의 場이 되

고 있다.

• 그래서 大會 以後의 1年間의 研究課題의 確認과 研究 繼續에의 出發點이며 特히 開催地域에 있어서 放送教育振興의 役割을 해 주기를 期待하고 있다.

• 이 全國大會는 또한 全國各地에 散在한 會員間의 情報交換의 場이다.

• 이러한 行事를 通해서 放送教育의 研究實踐을 함으로써 日本의 바람직한 教育을 探究케 하여 어린이 및 學生들의 希望的인 人間形成을 바라고 教師의 教育에의 決意를 새롭게 다지는 場으로 하고 있다.

2) 施設研究委員會

텔레비전의 放送開始로 學校放送施設에 對한 技術面의 進步, 改善을 꾀하려는 必要性이 急速히 增大해졌다. 그로 인해서 全放聯에서는 組織的인 施設研究의 重要性을 認識해서 全放聯 結成 10周年인 1959年 4月에 施設研究委員會를 設定해서 「훌륭한 機器로 풍부한 學習」이라는 目標로 積極的인 活動을 展開하였다. 그로부터 20餘年의 歲月이 經過하여 그 期間에 施設設備의 研究나 放送機器의 認定 등의 業務를 實施해서 教育現場에 適合한 放送教育機器의 普及에 힘썼다.

3) 放送教育特別研究協議會(特別研修會)

텔레비전學校放送의 開始로 教育現場의 放送教育에 關한 研究에 關心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것을 加一層 促進하기 위하여 現場의 指導者(放送教師) 養成이 急先務이었고 各方面으로부터 要望이 높아졌다. 이 研修의 目的과 性格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放送教育의 指導者로서의 資質向上의 場으로

• 指導者로서 識見을 가짐과 同時에 放送教育의 啓蒙, 普及者로서의 力量을 닦는다.

• 全國大會, 地方大會 등의 內容充實에 寄與하는 指導者로서 自己充實의 場

• 研究大會 會場校, 研究委囑校 등의 內容充實의 場이고 또한 放送教育을 實踐하는 사람들의 계기의 場

• 具體的인 情報交換, 人間關係의 親交의 場

V. 學校放送이 普及된 理由

日本의 學校放送은 오랜 放送教育의 歷史와 거듭된 研究의 經驗들이 쌓여 높은 利用率을 갖게 되었지마는 그토록 普及된 理由中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1. 法的·制度的 側面

日本의 放送法에서 NHK는 編成에 있어서 特別한 계획에 의한 것을 途外하고는 教養프로그램, 教育프로그램, 報導프로그램 및 誤樂프로그램 相互間의 調和를 유지하여야 된다고 規定하고 있어 텔레비전 전체 編成에서 報導 20% 이상, 教育 10% 이상, 教養 20% 이상을 編成하여야 한다는 것과 教育텔레비전에서 教育프로그램 75% 이상, 教養프로그램 15% 이상, 報導프로그램 약간을 編成한다고 方針을 밝히고 있다.

2. 教育制度 改革과 學校放送

日本에서는 第二次 大戰後에 教育改革이 實施되었다. 그래서 學校教育의 制度나 內容이 모두 根本的으로 바뀌고 새로운 教材도 출현하였다. 敗戰國이 된 결과 傳統的인 道德觀과 價値觀에 큰 轉換이 생겼고, 그에 맞는 道德教育에 관한 새로운 指導方針이 없었다. 또한 戰後의 황폐한 時代에 있어 學校의 設備不足과 機材의 不足은 심각한 問題이었다. 學校教師에게는 充分한 知識과 方法이 없었다. 그래서 생생한 社會科 프로그램, 드라마 형식의 道德프로그램, 實驗이나 觀察하는 理科(自然科)프로그램 등은 그 當時의 教師들에게 效果를 가져와 계속 放送해 왔다.

3. 放送利用教師에 의한 放送教育研究會 組織

日本의 學校放送도 最初부터 現場教師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라디오와 같은 機械로 人間教育은 안 된다는 學校放送에 對한 過小評價와 라디오가 學校放送을 하면 教師가 不必要하게 된다는 過大評價로 教育界로부터의 반발을 받았다. 그래서 NHK는 "放送은 教室의 教師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教室의 教師授業을 보다 豊富하게 하기 위한 教材를 보내는 것이 放送의 任務이고 그 프로그램을 利用하여 授

業을 展開하는 것이 敎室에서의 敎師役割이다"라는 基本的인 立場을 밝혔다. NHK는 放送프로그램을 어떻게 커리큐럼 속에 짜넣고 어떻게 利用하면 가장 效果的인가, 아울러 改善할 점 등등을 硏究하는 硏究會를 1939年에 創立하였고 1950年에는 全國的인 規模로 發展하여 各種 硏究大會를 通해서 放送을 利用하는 方法을 公開하여 그 方法을 참고로 한다든가 情報 및 意見을 交換하여 放送利用法을 硏究하고 있다. 特히 一方向性이라는 放送의 弱點을 制作者와 利用者의 意見交換에 의해서 補完하는 效果를 갖는 同時에 放送利用率을 높이는(擴散) 役割을 放送敎育硏究會가 맡고 있다(具體的인 것은 前述하였음).

Ⅶ. 맺음 말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日本의 放送敎育은 오랜 歷史와 거듭된 硏究의 貴重한 經驗들이 쌓여 世界에서 가장 模範的인 放送敎育을 運營하게 되었다. 戰後의 황폐한 施設과 機資材의 不足에서 始作된 日本의 放送敎育은 10餘年以上의 성숙기를 참으면서 꾸준히 推進하여 4個校의 實驗으로 始作한 텔레비전 學校放送이 불과 3年後에는 1,000個校로 急增하고 現在에는 日本 全體學校의 97%라는 높은 利用率을 갖게 된 것은 文部省과 郵政省의 確實한 基本方針으로 行政支援, 學校放送의 重要性을 認識시키기 위한 國際行事, 僻地學校의 텔레비전 受像機 보내기運動, 放送利用의 普及·擴散을 위한 各種 硏究活動을 들 수 있다. 特히 NHK와 文部省의 積極的인 支援 아래 全國의 幼稚園, 小學校, 中, 高, 特殊學校가 義務的으로 加入 活動하는 放送敎育硏究會의 活動은 放送利用 促進活動에 높이 기여했던 것이다. 每年 1,000回에 가까운 名種 硏究大會를 開催하고 硏究集을 發刊·普及하여 放送利用 促進擴散活動을 하고 있으며 지난 '86年 11月 13日에는 日本 시고꾸의 高知市에서 第37回 放送敎育硏究大會 全國大會가 있었다. 1萬 2,000餘名의 敎師, 各界人士가 參加, 1週日 동안 "'86放送과 敎育 文化페스티발"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進行된 이 行事에서는 國際세미나도 開催되어 "放送敎育의 國際交流를 위하여", "國際社會의 時代와 敎育", "世界的으로 본 日本의 學校放送" 등에서 世界全體가 國際化되고 있으며 이들은 TV라는 媒體는 世界의 窓口役割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急變하는 社會 속에서 主體的으로 배우는 意志, 態度, 能力을 確實하게 몸에 익혀 將來 國際社會에서 힘차게 살아갈 人間育成을 目標로 放送敎育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 大會의 結論이었으며, 最近 日本의 放送界, 學界에서는 放送敎育이 21世紀의 轉換期를 向해서 「넓은 視野와 豊富한 人間性」을 目標로 새로운 役割이 强하게 要求되어 새로운 放送調査 硏究·普及·促進活動이 展開되고 있는 實情이다. 各種 미디어時代를 맞이하여 放送敎育은 今後 더욱 重視되어지는 것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敎育放送에 從事하고 있는 專門家는 물론 敎育에 關心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外國의 敎育放送에 對한 動向과 추세를 正確히 理解하여 우리 나라 敎育放送發展에 꾸준한 努力을 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NHK放送硏究と調査」(1987. 4月號)
2) 放送敎育50年(その步みと展望)
3) 世界のラジオとテレビジョン
4) 『放送敎育』(1986. 1. 日本放送敎育協會)
5) 硏究集錄(1986. 6. 全國放送敎育硏究會)
6) 『敎育放送』(1, 2號)(1956. 9. 1987. 3. 한국 교육방송 연구회)
7) 『日本 NHK放送年鑑』(1985)

LOGO의 敎育的 效果와 實施上의 問題點

李 相 珞*

머 리 말

근래에 이르러 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高潮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국민 학교에서부터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컴퓨터에 대한 親熟感은 컴퓨터에 보다 일찍 접근할수록 쉽게 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共感을 얻고 있다.

학생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親熟感을 길러 주기 위하여는 컴퓨터에 興味를 가질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의 베이식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컴퓨터 교육은 다소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의 사람들, 예를 들어 Bork 같은 이는 학생들에게 베이식 프로그램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LOGO 프로그램 언어의 학습이 미국의 학교에서는 매우 普遍化되어 있음은 하나의 시사가 되는 일이다. 아마 이것은 LOGO 언어가 가진 여러 가지 肯定的인 敎育效果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LOGO가 거의 학교 현장에 導入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교육자들의 LOGO에 대한 理解가 없는 탓인 듯하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LOGO 언어의 소개와 더불어 그것의 特徵, 교육적 效果와 利用事例 및 實施上의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 LOGO 言語의 紹介

1. LOGO의 開發

LOGO는 원래 1968년 미국 國立科學財團(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支援한 연구 사업으로서 Bolt, Beranek & Newman사에 의해 開發되었다.[1] 그 이후의 대부분의 일은 매사추세츠州 工科大學의 人工知能硏究室과 교육 연구부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에딘버그 대학이나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계속 발전되어 오고 있다.

처음의 LOGO는 복잡한 언어였기 때문에 1970년대의 대부분의 LOGO 언어는 커다란 연구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LOGO를 지원할 수 있는 값싼 컴퓨터가 개발되어 학교나 가정에 보급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1979년 MIT의 LOGO 연구팀은 LOGO가 이런 컴퓨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에 着手하였으며, 그 결과 애플 컴퓨터에서도 LOGO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LOGO의 命令語(LOGO command)

아래 그림은 애플 컴퓨터에서 LOGO가 처음 시작될 때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먼저 안내 인사가 나오고 이어 다음 줄에 물음표(?)가 나온다. 이 물음표를 프롬프트(prompt)라 하며 LOGO가 당신이 어떤 지시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는 標識이다.

* 敎育資料部 · 硏究員

1) Harold Abelson, *Apple LOGO*, byte publications. Inc., 1982.

指示를 하려면 命令文을 쳐넣고 리턴 키(return key)를 친다. 예를 들어 26과 32의 곱을 알려면 다음과 같이 명령을 쳐 넣는다.

PRINT 26 * 32

즉, P, R, I, N, T, space, 2, 6, space, *, space, 3, 2, return key를 차례로 친다. 그러면 컴퓨터는 832를 출력한다.

命令文에서 단어 사이의 space는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위의 명령에서 T와 2 사이의 space를 생략하고 PRINT26 * 32로 쳐 넣으면 컴퓨터는 I DON'T KNOW HOW TO PRINT 26을 출력하면서 명령이 틀렸음을 알려 준다.

LOGO에게 "LOGO IS A COMPUTER LANDUAGE"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PRINT [LOGO IS A COMPUTER LANGUAGE

LOGO에서는 화면상에서 거북이(turtle)를 움직이면서 다양한 도형을 그려 볼 수 있다. 거북이는 LOGO 언어가 도형모드(draw mode)에 있을 때 화면 한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삼각형의 標識를 말한다. 아마 LOGO가 어린이들에게 매력적이고 有用한 학습의 道具로서 이용될 수 있는 이유도 LOGO에 이러한 技能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거북이를 움직이는 데는 몇 가지 命令이 있다. FORWARD 50을 치면 거북이는 앞 방향으로 50 걸음을 나아간다. RIGHT와 LEFT는 거북이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회전시키며 RIGHT 90을 치면 거북이는 오른쪽으로 90°를 회전한다. PEN UP과 PEN DOWN은 각각 거북이가 지나가는 經路에 자국을 남기거나 또는 자국을 남기지 않게 한다. (즉 지나가는 경로에 선이 그려지게 한다) 이러한 명령들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재미있는 일은 LOGO에서는 컴퓨터에게 새로운 말(명령어)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컴퓨터에게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
TO SQUARE
  REPEAT 4 [FORWARD 40 RIGHT 90]
END
```

이때 SQUARE는 새로운 LOGO언어(흔히 프로시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함)로서 정의된 단어이다. 첫째 줄은 프로시져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다(이름을 반드시 SQUARE라고 할 필요는 없으며 BOX 또는 HI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 나머지는 컴퓨터에게 어떻게 그 프로시져를 수행할지를 알리는 일련의 명령이다. 즉 SQUARE는 거북이가 50보 앞으로 전진하여 90° 돌고 다시 50보 더 전진하여 또다시 90°를 도는 일을 네번 되풀이하게 한다.

프로시져는 또한 입력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QUARE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보자.

```
TO SQUARE  :SIDE.
  REPEAT 4 [FORWARD :SIDE RIGHT
  90]
END
```

위에서 :SIDE는 SQUARE에 관련되는 변수로서 SQUARE를 호출할 때마다 :SIDE의 값을 달리하면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Ⅱ. LOGO의 特徵

1. 敎育的 背景

LOGO 언어의 根本이 되는 이론은 피아제의 아동의 思考 모델(thinking model)과 일반적 思考에 관한 思考(thinking about thinking)와 관련한 人工知能 측면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고 있다.[2]

이러한 접근 방식의 근원과 철학은 行動主義에 立脚한 컴퓨터 補助授業(CAI)의 입장과는 크

2) Seymour Papert, *Mind Storms*, Basic Books Inc., 1980.

게 다른 것이다. 그래서 初期의 LOGO 主唱者들은 CAI를 학교 교육 체제의 변화가 없이 컴퓨터를 교육에 도입하려는 企圖로 보았기 때문에 CAI에 의한 학습 활동을 맹렬히 반대하였다. 대신 그들은 광범위한 학습 환경의 再構成을 위한 革新的 試圖를 提案하였다.

LOGO 연구에 있어 하나의 새로운 강조점은 이것이 10~11살 정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수학적, 논리적 그리고 問題解決能力의 發達過程의 초기 단계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는 프로그래밍이 개인의 능력(문제 해결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어린이들을 단순히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LOGO의 前提에 근거하고 있다.

LOGO는 그것이 가지는 단순성 때문에 어린이들이 쉽게 이에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소개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言語的 特性 때문에[3] 어른들에게까지도 유용한 思考의 道具로서 활용됨으로써 매우 폭넓은 이용 대상을 가지고 있다.

2. 言語的 特性

LOGO는 프로그램의 作成方法을 배우기 위한 언어로서 가능한 한 쉽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서로 같다. 즉 어떤 문제를 하나의 언어로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풀 수 있다면 다른 언어로서도 問題解決이 可能하다. 다만 문제의 類型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쓰는 것이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1) LOGO는 프로시듀럴 言語(procedural language)이다

로고로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하나의 커다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기보다는 보통 작은 독립된 부분(procedure라고 부름)으로 나뉘어 작성한다. 이러한 점은 요즈음 많이 쓰이는 PASCAL, APL, LISP, C 언어 등이 共通的으로 가지는 特性이며 새로 開發되는 FORTRAN에도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BASIC에는 이러한 특징이 없다.

2) LOGO는 相互作用的(interactive)이다.

LOGO는 BASIC과 마찬가지로 어떤 명령을 쳐 넣으면 즉시 遂行된다. 또한 LOGO에서는 프로그램의 한 줄 한 줄을 쉽게 고칠 수 있다.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수행되려면 먼저 컴퓨터가 理解할 수 있는 언어(기계어라 함)로 飜譯되어야 하는데 飜譯機에는 인터프리터(Interpreter)와 컴파일러(Compiler)의 두 가지가 있다. LOGO는 인터프리터 언어인데 비하여 파스칼은 컴파일러 언어이다.

파스칼 언어로서 2+2의 값을 알고 싶다고 하자, 먼저 파스칼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한다(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4가 출력된다. 이에 반해 LOGO와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에서는 단순히 PRINT 2+2를 쳐 넣으면 즉시 같은 결과가 출력된다. 때문에 인터프리터 언어를 相互作用的 言語(Interactive language)라고 한다.

3) LOGO에서는 RECURSIVE가 可能하다.

어떤 프로그램이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를 수 있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 作成技法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를 리커시브 언어(recursive language)라고 한다.

```
TO COUNTDOWN : NUMBER——①
  PRINT : NUMBER
  IF : NUMBER=0[STOP]
  COUNTDOWN : NUMBER-1——②
END
```

위의 프로그램에서 ②에 나오는 COUNT DOWN은 ①에서 선언된 自己自身을 부르고 있다. 프로그램을 수행시켜 10을 입력하면 결과는 10, 9, 8, 7, 6, 5, 4, 3, 2, 1, 0이 출력된다.

Ⅲ. LOGO의 效果와 利用事例

LOGO가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效果에 대하여는 많은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檢證

3) Brian Harvey, *Why LOGO*, 'in New Horizons in Educational Computing, Edited by Masoud Yazdani, Ellis Horwood LTD, 1984.

하기 위한 體系的인 硏究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서는 LOGO가 아동들의 知的 發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된 LOGO의 실행 사례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몇 가지 實驗的 硏究의 結果에 대해 살펴본다.

1. 想像力과 發表力의 向上

컴퓨터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개인의 經驗을 이야기하게 하거나 想像의 이야기를 꾸며 내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들이 컴퓨터 화면에 만들어 낸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다만 여기서는 컴퓨터와 LOGO를 통하여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더 풍부한 경험과 더 많은 흥미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LOGO는 아이들이 화면에서 거북이를 움직이게 해 줄 수 있게 하는 단순한 프로그램 언어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컴퓨터를 그들의 상상을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물체로 바꾸어 주는 장난감으로 보기 때문에 컴퓨터에 매료되는 것이다. 미국의 Drexel 조기 어린이 센타(Drexel Early Childhood Center)[4]에서는 LOGO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할 때 사용한 理論的 假定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의 世界는 대단히 閉鎖的·自己中心的이며 아이들끼리는 놀이를 통하여 서로의 세계를 共有한다.
- 컴퓨터는 장시간 동안 어린이의 흥미를 끌기 때문에 어린이의 注意集中期間을 늘릴 수 있다.
- 아이들이 지어낸 이야기는 그들의 內面世界를 드러내 보이는 窓으로 생각될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어린이의 마음이나 그들이 가진 세상의 물체에 대한 槪念과 관련되는 이미지(image)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 아이들은 이야기에서 그들의 人性을 드러낸다.
-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조리 있게 順序를 정하고 文章을 構成하며 필요한 뜻을 강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거나 얘기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하여 더 이야기를 잘 지어낸다.
- 아이들의 상상에 의한 이야기는 그들의 環境을 폭넓게 해준다.

2. 實驗 硏究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교사나 연구자들은 Papert의 LOGO는 思考의 道具라고 하는 주장의 是非를 判斷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의 중요 障碍要因으로서는 무엇이 思考能力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定義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LOGO 학습에 대한 評價方法의 不在 및 학생과 교사의 요구에 맞는 실험 설계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많은 주장들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에 관한 사고"에 대한 개념에 관계되는 것일 것이다. Papert는 주장하기를 학생들은 LOGO를 가지고 학습하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해 낼 수 있는지를 表現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是非를 判定하기 위한 연구들에서 그 결과들도 서로 相反되고 있다.

Horton과 Ryba[5](1986)의 글에서는 로고가 認知技能과 學業成就에 肯定的인 效果를 미친다는 Gorman, Bourne, Clement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또 이와는 相反되는 主張의 예로서 Pea, Pea & Kurland의 LOGO의 학습 환경이 다른 학습 환경에 波及되는 학습의 轉移效果는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Horton과 Ryba는 그들 스스로 연구를 수행해 본 결과, LOGO를 학습한 集團이 LOGO를 학습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보다 優秀한 경향을

4) Sheila Vaidya, *Using LOGO to Stimulate Children's Fantasy*, 'in Educational Technology', December, 1983.

5) Jane Horton, Ken Ryba, *Asseing Learning with LOGO*:A pilot study, in the Computing Teacher, 19868, 9月호

보임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LOGO에 의한 학습 평가를 통하여 思考能力發達을 위한 集中的 노력은 학생들의 認知發達에 기여함을 시사하고 있다.

1983년에는 Bank Street College의 Children and Technology를 위한 Center에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학습과 LOGO 학습에서의 社會的 接觸에 대한 집중 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다.[6] 연구 결과,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학습이 특히 LOGO를 이용하여 認知的 能力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력한 의문을 提起하였다. 학생들에게 LOGO는 작성된 프로그램을 읽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발표하게 하였던 바, 학생들은 순서에 대한 개념, 조건문, recursive에 대한 이해가 없음이 밝혀졌다. 더우기 프로그램 전에 사전 계획을 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試行錯誤的인 방법을 選好하거나 프로그램을 재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9세 또는 11~12세의 LOGO를 배운 어린이들이 배우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하여 더 높은 計劃樹立能力을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Gordon Reimer(1984)[7]의 글에는 LOGO가 아이들의 幾何學的 思考能力이나 問題解決의 構造化 能力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사람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Weir의 연구 결과로서 LOGO가 유치원에서 고등 학교에 이르기까지 보통 어린이에게 뿐만 아니라 遲進兒나 腦性痲痺의 어린이에게도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는 事實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3. 敎科授業에서의 利用事例

LOGO는 그것이 가진 多樣性과 사용의 容易性 때문에 프로그램의 작성 이외에 여러 다른 科目에서 학습의 도구로 사용된다.

1) 數學, 幾何學

幾何學은 아마 LOGO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과목일 것이다. 거북이를 움직이면서 학생들은 圖形에 대한 認識을 가지게 되며 각도를 이해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점, 선분, 평면에 대한 이해도 증가시킬 수 있다.

수학 시간에는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리, 평균, 그래프 이론 등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2) 英語

학생들은 많은 단어들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으로 구분하여 각 품사별의 단어 목록을 작성한다. 그리고, 각 목록에서 단어를 하나씩 끄집어 내어 組合을 하면 여러 가지 文章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은 LOGO가 가지고 있는 List처리 技能 때문에 가능하다. 또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spelling game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3) 科學

化學에서는 週期律表에 있는 여러 가지 元素의 原子量이라든가 원소들이 가진 특성을 설명하거나 分子나 化合物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데 LOGO가 이용된다.

물리에서도 LOGO가 이용될 수 있다. 이때 거북이는 마찰이 없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구실을 한다. 학생들은 뉴턴(Newton)의 운동 法則에 관한 여러 가지 實驗을 할 수 있게 된다.

Ⅳ. 實施上의 問題點

지금까지 LOGO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學習環境을 제시해 주며 思考의 道具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LOGO를 우리의 學校現場에 導入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이 먼저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1.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LOGO 프로그램 言語가 실행되기 위하여는 먼저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어야 한다. 現在 각급

6) Toby. J. Tetenbaum, Thomas A Mulkeen, "*LOGO and the Teaching of Problem Solving: A Call for a Moratorium,*" in Educational Technology, November, 1984.

7) Gordon Reimer, *LOGO Computer Programming in Kindergarten,* In Microcomputer's in Education Conference, Edited by Ruth A. Camuse, Computer science press, 1984.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오직 베이식 프로그램 언어만이 實行可能하며 디스크 드라이브의 普及은 거의 全無한 상태이다. LOGO program에 따라서는 기억 장치의 容量이 64K 바이트를 요구하며 어떤 LOGO 프로그램이라도 디스크 드라이브 장치를 必須的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LOGO 프로그램의 가격이 100~177$이나 되므로 소프트웨어의 구입 값도 적은 費用이 아니다. 더우기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著作權의 보호 요구가 더욱 강력해 질 展望에 비추어 LOGO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대량으로 無斷複製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問題를 야기시킬 소지가 된다. 때문에 우리 能力으로 자체의 LOGO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2. 敎師

現在로 전국의 많은 敎師들이 컴퓨터 硏修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연수의 內容은 주로 베이식 언어에만 局限되어 있고 LOGO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마 LOGO 언어라는 것이 있다는 事實을 알고 있는 敎師도 매우 찾아보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앞으로는 디스크 장치를 갖춘 道 단위의 硏修機關에서 연수를 實施할 때에는 연수의 內容에 LOGO 언어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敎材

시중에 LOGO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서적은 2~3권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이들 교재는 외국의 교재를 주로 인용하고 있으며, 언어에 대한 해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사용 대상도 어느 한 학교급의 학생에게만 局限되어 있지 않고 매우 폭넓은 편이다. 앞으로 학교에 LOGO가 導入되려면 각 학교급의 학생의 수준에 맞는 敎材들이 開發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금언

□ 배울 뿐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할 뿐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지기 쉽다.

□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孔子 〈論語 : 爲政篇〉—

prof:le

孔子(551~479BC); 中國春秋時代의 대철학자·사상가·儒敎의 鼻祖, 성은 孔, 이름은 丘, 魯나라 사람, 그의 學派는 儒家라 불리며 그의 사상은 孟子, 荀子에 의해 계승되었음, 仁을 理想의 道德이라 하였음.

◇ 海外敎育動向 ◇

未來 컴퓨터의 動向

李 萬 熙*

Ⅰ. 序 論

최근 컴퓨터의 보급과 이에 대한 관심은 유행병과 같이 대단한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것은 情報化 社會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모든 분야에서 업무 수행이 컴퓨터 없이는 효율을(생산성) 높일 수 없고 개인간은 물론 국가간의 競爭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선진 각국에서는 컴퓨터의 발전과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컴퓨터는 하루가 다를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記憶能力增大와 컴퓨터와 通信의 결합 및 컴퓨터 능력 향상에 따른 제5세대 컴퓨터의 실현 등이다.

Ⅱ. 本 論

1. 메모리와 컴팩트 디스크

컴퓨터 記憶能力은 최근 발전을 거듭해 불과 1~2년 전에는 경제성이 없어 아이디어에 불과했던 것도 충분히 컴퓨터에 情報를 저장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뉴스에 자주 소개되는 RAM (Ramdom Access Memory)이나 ROM (Read Only Memory) 등은 우리 나라에서도 상당량이 생산되고 있고 컴퓨터 기억 능력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백과 사전과 같은 방대한 資料의 영구적 보관에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CD-ROM(컴팩트 디스크)이다. 이것은 그 잠재 가능성이 막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컴팩트 디스크는 본래 오디오 장치에서 원음을 재생하고자 컴퓨터의 기록 원리와 레이저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일본 소니와 네덜란드 필립스사의 공동 개발로 발명되었고 원음에 가까운 소리의 재현과 잡음의 배제로 미, 일,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 폭발적인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컴퓨터와 오디오 兼用의 디스크 드라이버 裝置

5년 전부터 보급되기 시작된 컴팩트 디스크는 내부에 마이크로 컴퓨터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여 일본의 경우 디스크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디스크를 움직이는 기계 장치도 대량 생산과 競爭을 통하여 1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 컴팩트 디스크 드라이버 정치를 다시 퍼스날 컴퓨터에서 소형 大容量의 記憶裝置로 이용하게 되었고, 컴퓨터 이용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계 상호간의 호환성을 위하여 미국 규격 협회(ANSI)에서 하이시에라 표준으로 기록 형식의 통일을 결정 중에 있다. 이미 몇몇 기업에서는 동일한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를 스테레오와 컴퓨터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 디스크 드라이버 장치를 만들고 있다.

컴팩트 디스크(CD-ROM)는 직경 12 cm의 알미늄 은색 원반으로 550 M Byte의 놀라운 記憶容量을 갖고 있다. 이것은 200자 원고지 1백 3십만 장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러한 막대한 記憶容量을 퍼스날 컴퓨터에서 사용하게 되면 과거에는 유명한 도서관이나 연구소 등에서만 보

* 敎育資料部 · 技術員

유하던 資料를 개인이 소장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예로서 온라인 데이타 베이스의 컴팩트 디스크화이다. 온라인 데이타 베이스 회사는 전산화된 情報센타로서 모든 資料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필요한 資料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사용자는 通信料金의 절약을 위하여 마음 놓고 장시간 데이타 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사용시마다 데이타 베이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 이러한 막대한 양의 자료를 갖고 있는 데이타베이스는 종래의 컴퓨터 장치로는 기계 장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구입 및 유지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규모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데이타 베이스 회사가 대형 컴퓨터를 보유하고 여러 사용자가 공동 비용 부담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컴팩트 디스크를 이용하면 불과 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디스크 자체의(자료 정리, 입력 비용 제외)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 막대한 양의 데이타 베이스를 저장하여 개인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컴팩트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타 베이스를 구입하면 사용자는 구입시 한 번만 경비를 지불하고 시간이 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 장의 컴팩트 디스크에 記憶되는 情報는 온라인 사용시 300BPS 모뎀으로 1일 24시간 전송시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막대한 양이다. 따라서, 커다란 백과 사전이나 일년분의 신문이나 잡지, 법률 서적 등도 한 장의 컴팩트 디스크에 충분히 기록할 수 있고, 날로 두꺼워지고 있는 전화 번호부를 컴팩트 디스크로 생산한다면 부피를 줄이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더우기 컴팩트 디스크로 기록된 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곧바로 컴퓨터 資料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나 법률가, 교사 등 폭넓은 분야의 사람들에게 이용될 것이다. 또한 컴팩트디스크의 記憶能力은 문자 정보뿐 아니라 음향, 영상의 종합 처리가 가능하다.

2) 데이타 베이스의 컴팩트 디스크 商品

개발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데이타 베이스 회사인 다이얼로그사에서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타 베이스를 컴팩트 디스크 형태로 판매할 예정이라 한다 본원에서 마이크로 휘시로 구입해 온 에릭 데이타베이스도 컴팩트 디스크로 판매될 것이다.

3) CAI에서의 컴팩트 디스크의 利用

컴퓨터를 교육에서 활용하는 CAI가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情報를 필요로 한다. 특히 교육에서는 발생 資料의 보관보다는 기존 지식의 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1회만 기록이 가능한 컴팩트 디스크가 적합하다. 한 장의 컴팩트 디스크에 전과정 한 학기분 교육용 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할 것이다.

2. 通信과 컴퓨터

1) 컴퓨터와 通信이 結合된 워크 스테이션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퍼스날 컴퓨터는 컴퓨터, 팩시밀리, 복사기, 전화기 등이 결합된 워크 스테이션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 워크 스테이션은 작성된 문서를 通信網을 통하여 팩시밀리나 컴퓨터 데이타 상태로 다른 곳으로 전송하거나 情報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의 여러 유사 장치가 하나의 기계 장치로 통합되어 레이저 프린터로 발전되고 있다. 컴퓨터와 通信의 결합은 위에서 말한 記憶容量의 증가와 같이 컴퓨터 활용 업무에서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다.

막대한 容量의 情報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情報가 입력되어야만 하고 이 資料입력 비용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단독으로 모든 資料를 입력할 수 없으므로 각자 보유한 情報의 교환이 필수적이다. 이제까지는 컴퓨터 센타에서 情報의 입력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情報의 발생지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산된 장소에서 입력된 情報는 通信을 통하여 수집 정리되야만 情報로서의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갖게 되고 위에서 말한 컴팩트 디스크 데이타 베이스의 제작도 가능해진다.

2) 衛星通信의 利用增加

通信을 위해서는 통신 선로가 필수적이나, 기존의 전화 선로를 이용한다면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이 또한 막대한 규모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人工衛星을 이용하고 있다.

지구의 적도 상공 22300마일에는 수십대의 通

信 人工衛星이 떠 있다. 이들 통신 위성은 대부분 電話音聲이나 텔레비전 영상 전송에 쓰이고 있다. 현재 인공 위성 사용에 있어 20% 정도가 데이타 전송에 쓰이고 있지만 1990년에 이르면 약 40% 이상이 데이타 통신에 사용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대형 컴퓨터 센터에서만이 인공위성 통신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송수신이 가능한 小形地球局(중계소)이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곧 인공 위성 통신에 있어 퍼스날 컴퓨터의 몫이 커질 것이며, 人工衛星通信의 장래는 퍼스날 컴퓨터가 중요한 사용 고객이 될 것이다. 퍼스날 컴퓨터에서 인공 위성 통신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인공 위성 통신의 이점은 비용이 저렴하다. 현재 퍼스날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20%~50% 이상 저렴하다. 또한 전화 회선은 이용을 가정한 고정 용량을 기준하여 사용 요금이 계산되나 衛星通信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容量을 변화할 수 있다. 몇년 전만 해도 위성 통신의 문제점은 사용 비용이 비쌌으나 마이크로 컴퓨터 기술 발전에 힘입어 지구국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가격 역시 그렇다.

둘째, 설치가 간편하다.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에 이동 소형 지구국을 설치함으로써 간단하게 해결된다.

세째, 위성 통신은 에러가 적다. 기존 전화 회선의 오차는 10만분의 1인 반면 衛星通信은 약 1000만분의 1이다.

전형적으로 지구국은 대기업의 원거리 지점에 설치됨이 통례다. 각각의 지구국은 Stand Alone PC(단독 사용 퍼스날 컴퓨터)나 대형 터미날, 또는 LAN(근거리 지역 통신망)과 접속되고 衛星을 통해 호스트 메인프레임과 상호 통신한다.

3) ISDN(綜合情報通信網)

선진국에서는 고도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여 ISDN에 국가의 중추 신경으로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 情報化 社會에서 情報의 유통량은 점차 증가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기존의 교환기에 의한 통신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며 비용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개인이 전화를 비롯한 각종 통신 기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 情報化 社會가 가능하고 선진국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ISDN은 디지탈 전화망으로부터 발전된 하나의 通信網이며 이 망은 여러 가지의 통신 기기를 디지탈 접속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로서 TV의 공청 안테나 및 케이블, TV, 전화선, 컴퓨터 통신 회선 등을 하나의 통신 선로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몇 가지 표준화된 다목적 가입자 연결 장치에 의하여 통신망과 접속된다.

ISDN은 통신 장치의 범용화 또는 소형화로 가정, 사무실 공중용 접속은 물론 타국가 통신망과도 접속사용이 편리하게 되고 전기 통신 서비스 활용을 광범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장차 ISDN은 20 년에 걸쳐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 광선은 전쟁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컴팩트 디스크 등 情報의 저장과 호출에 사용될 뿐 아니라 인쇄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종래의 프린터는 소음이 크고 속도의 고속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면 고속도 인쇄가 가능하고 기계식 프린터의 한계인 고밀도 인쇄를 가능하게 된다. 더우기 팩시밀리, 복사기의 역할도 겸하여 통신 기기로서의 역할도 하게된다.

3. 第5世帶 컴퓨터

1세대로부터 현재의 4세대까지의 컴퓨터는 보다 빠른 계산 능력과 記憶容量을 확장시켜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두뇌에 비하면 能力이 훨씬 떨어지는 것이다. 곤충은 상당히 속도가 느린 신경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행동은 현존하는 어떠한 컴퓨터보다도 훨씬 높은 知能을 나타낸다. 이는 지적 행동의 본질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아직 초보적이기에 연구를 통하여 대폭적으로 진보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일반인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人工知能 분야가 초보적인 단계에서지만 지난 20 년 동안 꾸준히 발달해 왔다.

현대 과학은 지금 이 두 가지 분야 電子工學과 人工知能의 결합으로 정말로 고속이고 지능을

가진 차기 세대 컴퓨터를 발명해 낼 만한 단계에 와 있다. 일본에서는 통산성이 주축이 되어서 계산이나 기억 용량의 향상뿐이 아니라 연상, 추론, 학습이라는 인간의 두뇌에 가까운 기능을 가진 컴퓨터 개발을 서두르기 위해 5세대 컴퓨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5세대 컴퓨터는 방대한 지식 데이타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단순한 데이타의 저장뿐 아니라 데이타 간의 연관성을 갖게 하여 기억시킬 수 있다.

한편, 규칙도 기억시켜 규칙과 관계에 적합한 資料를 찾아내는 이른바 지식을 갖춘 컴퓨터가 될 것이다. 또한, 인간의 音聲認識, 圖形認識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 人工知能

그 동안 아무리 속도가 빠른 컴퓨터라 할지라도 知能을 가진 기계가 될 수는 없었다. 人工知能 분야는 최근에 와서야 산업계에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성과를 얻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높은 수준의 조언을 해주거나 숙련도가 필요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 내는 전문가 시스템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 시스템의 役割은 전문 분야에 대한 經驗과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처리하여 검토 범위를 좁혀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專門的 結論을 그리 많지 않은 경험 법칙으로 유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의학 분야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어 신체 장기의 분석 및 신호 분석 같은 분야에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 있다.

2) 音聲認識 및 合成

컴퓨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키보드, 카드리더, 마우스 등을 주로 이용하여 왔으나, 音聲認識을 통하여 입력을 하면 타자기의 4배, 필기의 10배 속도로 입력이 가능하다.

音聲認識에 있어 음성의 개인차, 발음의 복잡성, 외부 잡음, 연속 음성의 구별 곤란, 문장 속의 단어 식별 등의 문제가 있다. 현재 4세대 컴퓨터로서는 능력상 처리하기 어려우나 시험·제작되고 있는 5세대 컴퓨터에서 音聲認識이 시험 중에 있고, 실용 예로서는 은행의 잔고 조회 시 손님이 전화를 걸어서 질문하면 컴퓨터가 응답하여 손님의 구좌 번호를 音聲認識하여 필요한 정보를 음성 합성을 통하여 음성으로 알려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병원에서 音聲認識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음성 합성을 이용하여 손님 번호 호출 등에 이용되고 있다.

3) 言語飜譯

이미 우리들이 일상에 쓰고 있는 말을 컴퓨터를 통하여 번역하는 것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언어의 번역에서는 자연어의 의미 등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한 데이타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言語飜譯에 있어서도 1종 언어 번역(예 : 영어와 불어 한국어와 일어), 2종 언어 번역(예 : 중국어와 영어), 3종 언어 번역(예 : 일어와 영어) 등 언어의 멀고 가까움에 따른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다.

현재 판매되는 언어 번역 시스템은 일본 후지쓰의 경우 音聲認識 장치를 통해 入力可能하고 시간당 일어와 영어를 6000 단어 정도의 속도로 번역하고 있으나 최종 飜譯物을 위해서는 사람이 다시 다듬어야 된다. 이것은 아직 사람의 두뇌에 있는 一般常識 데이타 베이스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성의 유지 등에 있어 사람을 통한 번역보다 공정을 기할 수 있다.

퍼스날 컴퓨터를 이용한 言語飜譯 시스템도 개발이 되어 일어, 영어 번역의 경우 일본에서만 6천 시스템이상 판매가 되었고, 일어, 한국어도 개발이 완료되었다. 5세대 컴퓨터가 실현되면 사람이 번역을 하듯 상식에 맞는 번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結 論

컴퓨터는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現代社會의 모든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실제로 거의 무한한 분야에서 컴퓨터 기술을 응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개선된 기술로 더 큰 이익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도 기할 수 있게 된다. 컴퓨터를 진보적이고도 융통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건강 관리, 교육, 훈련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개선된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컴퓨터 競爭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KEDI 圖書會員募集

本院은 創立 이래 10數年 동안에 약 500여 종의 硏究報告書를 發刊하였으며, "교육개발" "한국교육" 英文版 "우수연구보고서" 등의 定期刊行物을 發刊, 配付함으로써 우리 나라 敎育發展에 이바지해 오고 있읍니다.

이들 硏究刊行物은 그 需要가 날로 늘고 있으며, 특히 最近에 刊行되고 있는 各種硏究報告書와 定期刊行物은 敎育一線에서 일고 있는 敎育改革熱과 함께 그 需要가 急增되어 現在까지의 配付方法으로는 그 要請을 다 채워드리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와 같은 實狀을 勘案하여 本院에서는 希望하시는 敎育者諸位(또는 敎育機關)에게 本院硏究物을 손쉽고 값싸게 購讀하실 수 있도록 '87年부터 "KEDI 圖書會員制"를 設置하여 다음 要項에 의거 會員을 募集하오니 뜻 있는 분의 많은 參加를 바랍니다.

〔募 集 要 項〕

1. **會員에 대한 特典**:
   (1) 1年間 本院이 發行하는 刊行物(販賣可能한 圖書一切) 30種 內外를 郵送함.
   (2) 製作實費에 의해 普及함.
   (3) 本院圖書室所藏圖書利用의 혜택을 드림.
2. **加入期間**: 隨時로 加入할 수 있으며, 會員의 資格은 '88년 1월부터 12월 末 까지임.
   ※ 단, '87년 현재까지 會員으로 加入하신 분에게는 上記 회원 자격 획득은 물론, 本院 보관의 旣 刊行物 중 배부 가능한 報告書와 앞으로 刊行될 '교육개발' 등을 우송해 드림.
3. **加入方法**: 加入申請書와 함께 會費를 納付하면 됨.
4. **年間會費**(1口座당): 50,000원
5. **會費納付方法**: 서울 양재동우체국 온라인 계좌번호: 011916-0006202-12
   (한국 교육 개발원 원장 김 영식)

問議處: 우편 번호 135
(전화: 572-5121~6, 572-5021~9, 577-5121~0011, 575-1122~2)
서울特別市江南區牛眠洞 山20-1 韓國敎育開發院 敎育資料部 出版室

※ 加入申請書는 裏面의 신청서에 직접 記入하시어 點線에 따라 떼어내서 提出해 주셔도 可하며, 樣式을 別紙에 移記 또는 複寫하시어 使用하셔도 무방합니다.

KEDI 도서 회원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담당		실장		부장	

주 소				
개인의 경우	성 명	한자 ( )	전화번호	
	근무처	한자 ( )	직 위	
단체의 경우	단체명	한자 ( )	대표자명	한자 ( )
발 송 처	우편번호			
구 독 기 간	1988년 1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구독구좌수	구좌	구분	신규 재가입	
회 비 (1구좌당 50,000원)	◦ 납입처 : 서울 양재동 우체국(온라인 전자 종합 통장) 계좌번호 : 011916-0006202-12 김 영식 ◦ 송금액 : ◦ 송금연월일 : 198 년 월 일 ◦ 송금우체국명 :			

※ '87년도 회원 가입 접수 기간은 1987년 8월 말일까지로 함.

본인은 상기와 같이 귀원의 도서 회원으로 가입코자 합니다.

1 9 8 7. . .

가입자명
(개인·단체) ㊞

한국교육개발원장 귀하

(베어내는 선)

▷ 院 內 動 靜 ◁

○ 主要協議會 및 세미나 ○

○ 5월 2일부터 8일까지 職業技術敎育硏究室에서는 第5次 高等學校 敎育課程 試案開發硏究의 일환으로 工業高等學校 敎育課程 總論 草案檢討協議會를 開催하였다. 이 協議會의 結果들은 工業高等學校 敎育課程 改正試案을 作成하기 위한 基本資料로 活用된다.

○ 5월 8일, 院內·外 人士 17人이 參席한 가운데 本院 第3會議室에서는 水產·海運系 高等學校 敎育課程 總論 草案檢討를 위한 協議會를 開催하였다.

○ 5월 9일, 藝術系 高等學校 敎育課程 總論試案 確定을 위한 協議會를 院內·外 人士 15人이 參席한 가운데 院外에서 開催하였다.

○ 5월 11일, 本院 第3會議室에서는 外國語學校 敎育課程 總論 草案을 檢討하기 위한 協議會를 院內·外 人士 25인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하였다.

○ 5월 14일, 本院 第2會議室에서는 體育系 高等學校 敎育課程 總論 草案을 檢討하기 위한 協議會를 院內·外 人士 28人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하였다.

○ 5월 21일 반도 유스호스텔에서는 第5次 高等學校 敎育課程의 編制 및 單位配當에 관한 檢討協議會를 開催하였다. 이 날 協議會에는 本院 곽 병선 敎育課程硏究部長 外 關聯硏究員 20여 명이 參席하였다.

○ 來訪人士 ○

○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우리 나라를 訪問한 쟌 드 프레이뉴(Dr. Jean Defraigne) 벨지움 하원 의장, 이지도르 에겔메어스(Hon. Isidore Egelmeers) 상원 부의장 외 國會議員 8人이 本院을 訪問, 김 영식 院長과 韓國의 敎育現況 및 敎育改革의 事例에 대해서 意見交換 및 슬라이드를 관람하였으며, 특히 中等 및 大學의 敎育政策에 관하여 다각적인 討議를 가졌다.

○ 4월 30일 英國 개방 대학(open university)의 스티븐스(prof. Richrad Steavens) 敎授는 本院을 訪問 김 영식 院長과 원격 교육에 관한 다양한 協議를 가졌다.

○ 5월 19일 태국 文敎省의 事務局長, 副局長 및 職員 5名은 本院 김 영식 院長, 정 찬영 企劃調整室長을 訪問, 敎育課程 및 敎科書 開發에 관하여 폭넓은 意見을 交換하였다.

○ 4월 17일 미국 워싱턴 주재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지 동경 특파원인 브룩스(Mr. Bennet Brooks)씨와 파라로(Mrs. Kim Fararo)씨가 韓國大學敎育現況 취재차 本院을 訪問하였다.

○ 4월 17일 美國의 NCS(National Computer System) 社의 國際 마케팅과의 課長인 탐슨(Mr. Mark Tompson)씨가 試驗學力評價의 컴퓨터 評價方法에 관한 論議次 本院을 訪問하였다.

○ 4월 21일 美國 유네스코 總務課長인 치트라누크로(Ms. Suchtra Chitranukroh)씨는 유네스코와 本院간의 共同關心事에 관한 意見交換을 위하여 本院을 訪問하였다.

○ 對外活動 ○

○ 4월 23일 本院에서 열린 敎育改革審議會 제38차~40차 全體會議와 分科委員會 및 企劃調整實務會 연석회의에 本院 김 영식 院長이 參席하였으며, 일부 회의는 主宰하기도 했다.

○ 4월 28일 敎育改革審議會 第40次 全體會議에서 本院 김 영식 院長이 敎育改革審議會 第1分科 委員長으로 추진해 온 "학제의 발전 방안"이 가결되었다. 現行의 6—3—3—4제를 5—3—4—4제로 개편, 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의 시행 첫해인 오는 1992年에 國民學校에 入學하는 學生들로부터 적용, 시행할 것을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다.

○ 5월 14일 仁川敎育大學에서 主催한 講演會에 本院 김 영식 院長이 초빙되어 世界 속의 韓國敎育이란 題目으로 講演을 하였다.

○ 5월 23일 本院 김 영식 院長은 全國經濟人聯合會 主催로 열린 第15期 最高經營者 課程의 經濟·思想 分野 討論會에서 韓國的 資本主義 精神과 韓國企業의 進路에 대한 論評을 하였다.

○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대만에서 열린 21世紀 敎育을 위한 國際 세미나에 本院 김 영식 院長이 초빙되어 "Maker and Breaker of a Nation"이란 主題의 論文을 發表하였다.

○ 4월 17일 中央敎育硏修院에서 열린 배심 토의에 本院 敎育發展硏究部 배 천웅 平生敎育硏究室長이 參席하여 "平生敎育과 現職敎育"이란 主題發表를 하였다.

○ 4월 21일부터 곽 병선 敎育課程硏究部長은 2일간 韓國2종 敎科書協會 主催로 實施된 敎科書改善을 위한 곽담회에 參席하였다.

○ 4월 22일 本院 한 종하 硏究委員은 '87年 科學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시 敎育委員會 및 初等科學硏究會가 공동 主催한 科學敎育講演과 科學映畵 상영회에서 "2000年代를 對備한 科學敎育의 方向"이란 主題發表를 하였다. 그리고, 4월 24일에는 서울시 中·高等學校 科學敎師 500명을 對象으로 "未來社會에 對備한 科學敎育"이란 主題講演을 하였다.

○ 4월 23일 최 영표 敎育制度硏究室長은 敎育改革審議會 專門家 세미나에서 敎育制度 發展方案이란 主題下에 "進路敎育體制 確立方案 : stream 中心"을 發表하였다.

○ 5월 3일 敎員敎育硏究室 박 재윤 硏究員은 서울敎育大學 會議室에서 열린 大韓敎育法學會 第2次 學術發表會에 參席하여 "學校法人制度와 敎育信託制度의 比較"를 發表하였다.

○ 5월 12일 本院 신 세호 副院長은 공주 敎育大學에서 열린 特講에 초빙되어, 同大學敎授 및 學生들을 對象으로 "敎師는 未來를 創造한다"라는 演題로 特講을 하였다.

○ 5월 21일 신 세호 副院長은 韓國人間開發硏究院에서 主催한 人間開發經營者硏究會 硏究 모임에서 企業經營者를 對象으로 "급변하는 社會와 韓國敎育의 새 課題"란 主題講演을 하였다. 또 5월 29일에는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職業訓練硏究所의 特別敎育講師로 위촉되어 "韓國社會의 未來展望과 敎育의 未來"란 주제로 講義를 하였다.

○ 海外出張 ○

○ 5월 12일 敎育課程硏究部의 장 석민 職業技術硏究室長은 美國의 오하이오 주립 대학에서 열리는 技術敎育 정상화 연구에 관한 學術會 參加 및 論文 발표차 出國하여 5월 27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敎育委員會 등 여러 敎育關係機關을 방문하여 進路敎育 및 技術敎育의 現況을 調査하였으며, 또한 關聯資料를 수집하였다.

○ 5월 23일 敎育發展硏究部 최 영표 敎育制度硏究室長은 중화민국에서 개최하는 21世紀를 向한 國際세미나 參席과 韓·中敎育硏究 교류 협의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出國하여 5월 30일 歸國하였다.

○ 5월 25일 敎育發展硏究部의 김 병성 比較敎育硏究室長은 美國, 日本의 각급 학교 敎育의 量과 質 國際比 硏究 資料를 수집하고, 향후 本院에서 개발하여 실시할 '각국의 각급 학교 敎育의 量과 質 조사지'의 비교 분석 준거 검토와 관련,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 및 會議參席차 出國하였다.

○ 院內消息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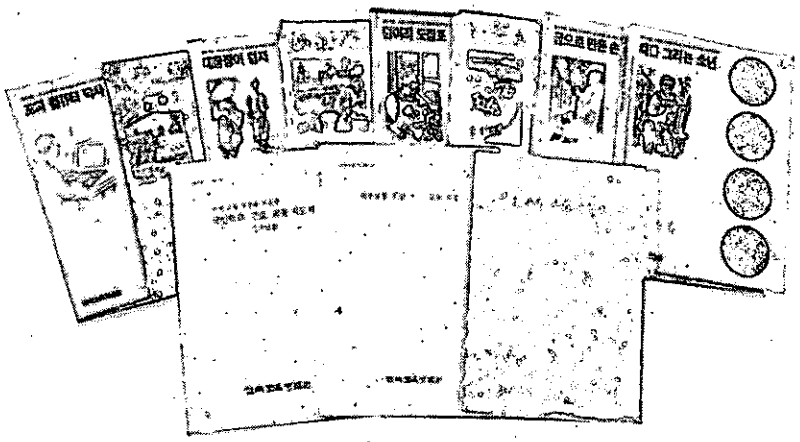
○김 영식 院長은 4월 24일 본원 講堂에서 열린 放通高運營效率化를 위한 協議會에서 "世界 主要國家의 敎育動向"이라는 주제로 特別講演을 하였다, 이날 集會에는 문교부의 관계자, 14개 시·도 담당 장학사, 전국 50개 放送通信高等學校 교감, 주임 교사, 본원의 담당 硏究員 등 90여 명이 參席하였다.

○中·高等學校 학생들의 영어 듣기 능력 신장과 언어 학습 지도 방법 개선에 목적을 둔 전국 中·高校 英語 듣기 能力評價가 5월 25일부터 29일까지(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다. 이는 본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문교부 지침에 따라 '82년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다.

○ 5월 29일 本院 講堂에서는 '87年度 職員 건강 진단을 순천향 병원 의료진에 의해 실시하였다.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로교육보조자료로 펴낸

국민학생을 위한 창작동화집



이 동화집은 일과 직업, 그리고 미래 과학 기술 세계를 탐구하는 이야기 모음으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스스로 일과 직업 세계, 미래의 과학과 기술 세계 그리고 우리의 생생한 현실적 삶의 세계를 이해하고, 직업에 대한 건전한 태도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한 창작 동화집이다. 이 동화집은 모두 8권과 별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해를 그리는 소년
- 대장장이 형제
- 금으로 만든 손
- 꼬마 컴퓨터 박사
- 벙어리 도장
- 볼기 맞은 임금님
- 하늘에서 만난 친구들
- 풀빛 메아리

*별책 : 교사용 활용 지침서

이 작품 뒤에는 이야기를 읽고 난 뒤에 어린이 스스로 생각해 보거나, 친구 또는 교사, 부모와 토의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문제"를 실어 자연스럽게 진로 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단지 교사나 학부모는 이 자료를 소개하고 읽도록 권장만 하면 된다. '교사용 활용 지침서"는 교사가 특별 시간이나 자율 학습 시간 또는 정상 교과 시간에 이 읽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교사용 진로 교육 자료 : 국민 학교 진로 교육 지도서

이 자료는 현행 교육 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진로 교육 관련 내용을 진로 교육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교사는 이 지도서를 활용함으로써 정규교과수업시간에도 진로 교육을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교육 지침서

이 자료는 학부모들의 오도된 직업관을 바로잡고, 자녀의 진로문제를 현명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자료는 학부모교실, 새마을 어머니 교실 등의 교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3종류의 자료는 이미 '86년도에 전국 14개 진로교육시범학교와 사회교육기관 등에 적용되어 효과가 검증되었고 아동용 동화집은 '86년도 "출판 문화상"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원은 대행 출판사로 하여금 이들 자료를 실비로 유가 보급토록 하는 한편, 이들 자료의 활용을 원하는 학교나 기관에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과 진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해 적극적인 협조와 자문을 해 줄 것이다. (직업 기술 교육 연구실 제공)

◦연구, 개발 : 한국 교육 개발원 직업기술 교육 연구실(572-5121, (교) 244)

◦발행·보급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675-1891~3)

※ 판매처 : 전국 유명서점

韓國敎育開發院 硏究叢書

[1] 敎育制度의 發展
弘益大敎授 徐 廷 華 編著

[2] 韓國의 敎育財政
서울大敎授 尹 正 一 編著

[3] 高等敎育의 秀越性
서울大敎授 尹 正 一 編著

[4] 學校敎育과 敎育隔差
本院 比較敎育硏究室長 金 炳 聲 編著

[5] 學校制度
本院 敎育發展硏究部長 金 永 哲
世宗大敎授 朱 京 蘭 編著

[6] 韓國의 敎育課程
本院 敎育課程硏究部長 郭 柄 善 編著

[7] 初·中等敎育의 質改善
本院 敎育課程硏究部長 郭 柄 善 編著

[8] 韓國人의 男女役割觀
本院副院長 辛 世 浩
敎員大敎授 權 樂 遠 編著

[9] 學習不振兒 敎育
忠南大敎授 朴 成 益 編著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 發展構想(교육 부문 보고서)
韓國敎育開發院 編

⊙ 現場敎育相談問題 公募 ⊙

敎育現場에서 겪는 問題나 그 밖의 敎育에 관한 質疑事項을 간략하게 적어(形式：自由) 보내주시면 專門家의 명확한 應答과 함께 本誌에 揭載해 드리겠읍니다.

단, 內容에 따라 公開應答해 줄 필요가 없는 質疑에 대하여는 質疑者에게 個別的으로 應答해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事項을 보내실 때는 所屬, 職位, 姓名을 明記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江南區 牛眠洞 山 20-1
韓國敎育開院 敎育資料部 出版室
우편번호：135

※ 本誌의 內容은 本院의 公式的 見解가 아님.

〈編輯委員〉
委員長 郭 相 萬
委 員 金 炳 聲
南 美 英
文 龍 鱗
鄭 永 壽
鄭 鐸 熙
崔 云 實
許 敬 哲
幹 事 孔 永 萬

(비매품)

격월간 교육개발 제 9 권 제 3 호(통권 48 호)

1987년 6월 5일 인쇄 · 1987년 6월 10일 발행
발행인 김 영 식
발행처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대) 572-5021·5121
등록 번호 등록 바—574
등록 연월일 1975년 8월 20일
인쇄처 : 大韓敎科書(株)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實踐 要綱을 遵守한다.

이 책은 발행 부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교육 연구 개발 및 현장 교육에 관계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